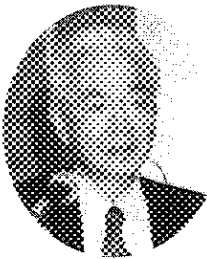


X. 第 2 分 科 會

1. 日本側 백그라운드 페이퍼

『韓日 FTA를 향한 日本 經濟界의 對應』



大貫 義昭 (Onuki Yoshiaki)

三井物産(株) 顧問, 經團連 日韓産業協力檢討會 座長

서 론

경단련의 「일한산업협력검토회」 좌장을 맡은 오오누키(大貫)입니다. 저는 최근의 한일산업계를 둘러싼 환경변화와, 한일산업협력의 현황과 향후 전망을 내다보면서 한일 FTA에 대한 경단련의 생각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1. FTA를 둘러싼 최근 정세와 일본 경제계의 대응

세계경제의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한편으로 EU(유럽연합)나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등, 지역경제권이 활발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지역에서는 ASEAN+3(한중일)에 의한 동아시아 자유무역권, ASEAN과 중국과의 FTA구상 등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번 고이즈미(小泉) 총리께서 일본·싱가폴 경제연계협정에 서명하시고 또한 ASEAN 국가들과의 「포괄적 경제연계구상」을 제안하시는 등, 일본도 각국과의 FTA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일본 경제계는 이전부터 정부에게 WTO를 중심으로 한 다각적자유화를 기본으로 하되, 각국과의 FTA체결에도 착수하도록 촉구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와 체결한 경제연계협정은 저회 경단련도 협상의 초기단계부터 경제계의 구체적 요구사항을 일본정부에게 건의하는 등, 협정체결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러한 결과, 실제 협정내용에도 기업 측 생각이 상당히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아시아 이외에도, 예를 들어 멕시코도 일본과의 FTA체결 희망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단련은 1999년부터 검토를 거듭하여 일본과 멕시코

간의 FTA추진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정리하여 국내외에 발표함과 동시에 일본·멕시코 경제계합동회의 등에서 조기체결 실현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성과로 작년 6월 폭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셨을 때 일본과 멕시코의 산관학(産官學) 대표로 구성된 공동연구회 설치가 결정되어 9월부터 현재까지 3차례의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 한일산업협력의 전망과 한일 FTA에 대한 생각

일본과 FTA를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하는 가운데, 한일 FTA 추진은 일본 경제계의 중요과제 중 하나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단련은 2000년 10월에 개최된 전경련 대표들과의 간담회 합의사항에 따라 작년 2월, '경단련 아시아·대양주지역위원회' 산하에 주요업종 실무자로 구성된 「일한산업협력검토회」를 설치했습니다. 검토회는 11차례에 걸쳐 양국의 산업협력 현황과 향후 전망, 한일 FTA문제 등에 대해 산업계 입장에서 논의를 거듭하여 작년 11월, 자료 제1의 「일한산업협력의 새로운 발전을 향해」를 정리하여 포괄적 한일 FTA를 조기에 체결해야 한다는 취지를 고이즈미 총리를 비롯하여 일본 정부에게 건의했습니다. 작년 11월 하순에 개최된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정상들과의 간담회 석상에서 경단련의 견해를 한국측에도 전달하였으며, 자료 제 2의 공동 공식발표문에도 있듯이, 양국 경제계가 협력하여 한일 FTA의 조기체결을 지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께도 저희의 생각을 전달하여 이해를 얻은 바 있습니다.

저희 검토회는 한일산업협력의 현황과 향후 가능성에 대한 업종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우선 명백해진 것은 전기·전자·통신, 정밀기기, 자동차, 철강 등의 주요분야에서 상호의존관계나 전략적 제휴가 이미 널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현황에 입각하여 향후 가능성을 고려해 보면 전체적으로 양국기업의 협력관계 진전이 예상되며, 특히 전기·전자·통신, 철강 등은 선진국형 수평분업이 진전될 업종이 되리라 예상됩니다. 또한 한국의 대일 수입규제철폐에 따라 자동차나 AV제품 등의 대한수출이 시작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한국시장에서도 새로운 협력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시멘트 등 건설소재 업종에서는 한중일의 3국간 협력까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과 향후 가능성에 대한 분석 결과, 본래 산업협력이란 사업활동을 거듭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만, 양국기업이 서로 상대국 시장 진출시에 장애가 되는 제도적 장애물을 FTA로 인해 포괄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면 산업협력은

더욱 진전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일 FTA를 관세철폐 등에 그치지 않는 포괄적 협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상이 경단련의 생각입니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국 산업계 여러분과 상호이해를 심화시키고 긴밀한 연계를 통해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경단련은 한국 경제계와의 상호이해와 우호친선을 위해 1983년 이후, 매년 전경련 정상들과 상호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작년 11월에는 서울에서 개최되어 김각중 회장님을 비롯한 전경련 정상들과, 이 의견서에 근거하여 한일산업협력과 FTA에 대해 중점적으로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그 상황을 김대중 대통령과 장재식 산업자원부장관님께도 말씀드렸으며, 한일 FTA를 조속히 체결해야 한다는 저희들 의견에 대한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번 방한 시에도 논의가 되었습시다만, 우선 한일 FTA가 한국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한국측 우려에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한국측에서는 무역불균형 시정, 대한기술이전 촉진, 일본의 비관세장벽 철폐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기, 전자, 섬유, 화학을 비롯한 많은 분야에서 양국기업에 의한 중층적(重層)인 협력관계가 이미 구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한일 FTA가 일방적으로 한국 산업계에 악영향을 미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으며, 오히려 한일 FTA 추진으로 인해 양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제고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일 FTA는 양국경제나 산업협력을 활성화시키는 효율적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의 이러한 생각에 한국측도 마찬가지로 의견을 갖고 계시며, 전경련 정상들과의 간담회 때도 특히 IT관련분야 등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여 글로벌 스탠더드를 형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찬 발언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김대중 대통령과 장재식 장관님께서도 “한일 FTA를 실현하는 것이 한일 양국은 물론 아시아경제, 나아가서는 세계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한일산업협력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정부도 환경정비에 주력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으므로 저는 향후 한일 FTA의 실현가능성이 크다는 자신감을 굳혔습니다.

이러한 한국측과의 의견교환을 토대로 전경련과 정리한 것이 자료 제 2의 공동공식발표문입니다. 이 공식발표문은 한국에서는 전경련 측에서 한국정부에 전달 하셨습니다. 또한 경단련은 일본정부의 관계부처에 전달하여 한일 FTA의 조기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한일 FTA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들

향후 양국 정부간에서 한일 FTA 추진방법에 대한 협의가 있으리라 생각됩니

다만,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한일 FTA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들을 검토하여 10항목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께 미리 배포해 드린 의견서 부속자료 A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하여 말씀드리자면 첫째, 관세관련문제에 대한 대응입니다. 현재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품목에 따라서는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결과적으로 일본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 제품의 국제경쟁력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세철폐나 분류 변경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한국의 노동문제에 대한 대응입니다. 한국에서는 '97년 IMF체제에 편입되면서 상당부분 노동문제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기업 입장에서는 노동자에게 유리한 노사협정이나 관행 등 여전히 많은 문제가 남아 있으며, 일본기업들이 대한투자를 주저하는 최대요인 중 하나로 여기는 문제이니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세관수속을 비롯한 무역관련수속의 효율화, 간소화, 규준(規準), 인종의 통일화, 상호승인의 추진 등입니다. 이 문제는 양국정부에게 구체적 사례를 들면서 개선을 요구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서울 재팬클럽이나 주일 한국기업연합회가 요망서를 수 차례 제출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제반규제 완화, 간소화를 오히려 자국의 국내문제로 받아들여서 한일 양국이 국내제도를 재검토하는 것도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문제발생시의 지원제도 정비입니다. 이미 한국에는 대한투자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one stop service)창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한국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함과 함께 유효하게 기능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 여기에 덧붙여서 이미 진출하고 있는 기업들이 노사문제나 각종 인허가 관련문제에 직면했을 때 적극적으로 지원, 중재역할을 해 줄 기관의 설치가 요구됩니다.

4. 한일 FTA 실현을 향해

지금까지 한일 양국을 둘러싼 환경변화, 양국간 산업협력 현황과 향후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서 한일 FTA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말씀해 드렸습니다.

저는 한일 FTA는 양국경제나 산업협력을 활성화시켜 양국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효율적 수단인 만큼 중층적 산업협력관계에 있는 한일 양국에게 있어 21세기의 양국관계를 상징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포괄적 FTA를 조속히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포괄적FTA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양국 비즈니스에 관한 여러 제도의 개

선도 가능하므로 국내 구조개혁 추진의 지렛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실제 FTA협상을 시작할 때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농림수산물에 대표되는 요주의수입품목(sensitive item)의 취급입니다. 경단련의 검토회에서는 회원 중에 관련업계 분이 안 계신다는 이유도 있어 농림수산물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전경련과의 간담회에서도 향후 회피할 수 없는 과제라는 공통 인식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분야의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 전체의 편익(便益)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를 하고 극복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한일 양국은 아시아 경제를 주도할 중요한 파트너로서 산업 협력을 가일층 진전시킴과 함께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주축이 되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FTA체결 건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동아시아 경제확대에 관해서는 2000년 11월에 개최된 ASEAN+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 자유무역권 구상이 제창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실질적인 토론이 진행되지 않은 가운데 중국과 ASEAN과의 FTA구상이 선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WTO에도 가입한 중국의 위상은 향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이것이 아시아의 지역내 분업이나 한일 양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동아시아 정세를 보아도 한일 양국이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포괄적인 FTA를 체결하여 변화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를 주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본과 싱가포르간의 경제연계협정이 경단련을 비롯하여 민간 경제계의 지원으로 체결된 점을 고려할 때, 양국 경제계가 긴밀하게 연계해서 정부에 호소하여 한일 FTA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양국 경제계 여러분께도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1]

「한일산업협력의 새로운 발전을 향해」

2001년 11월 20일

(사)경제단체연합회

한국과의 경제교류를 되돌아보면 일본기업은 1965년 한일수교 전후부터 한국기업과 다양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양국 간에서 활발한 비즈니스가 전개되고 있다. 작년 일본의 대한(對韓)무역은 미국, 중국, 대만에 이어 제 4위의 규모(약 510억달러)에 달한다.

정단련은 양국 기업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양국 경제나 양국의 경제관계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양국의 비즈니스환경 정비나 이를 위한 틀 구축을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비롯한 한국 경제계와 오랫동안 의견교환을 도모해 왔다.

최근의 한일관계를 보면, 1998년 10월과 2000년 9월, 김대중 대통령의 두 번의 방일을 계기로 양국은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하여 한일 자유무역협정(FTA)가능성을 비롯, 미래지향적이며 건설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아래, 정단련은 작년 10월, 전경련과 FTA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새로운 21세기, 향후 한일산업협력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 상호검토하기로 하였으며 올해 1월부터 「일한산업협력검토회」를 설치하여 논의를 거듭해 왔다.

그 결과, 정단련은 향후의 한일산업협력과 한일 FTA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해 냈다. 즉,

- 한일양국은 동아시아의 선진국으로서 아시아경제의 향후 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파트너이며, 앞으로 더욱 산업협력을 진전시켜야 한다.
- FTA는 한일산업협력을 가속화시키며 양국경제나 양국경제관계를 활성화시키는 유효한 수단이며, 한일 FTA는 광범위한 경제적인 연계를 지향하는 포괄적인 것이어야 한다.
- 한일 FTA는 미래를 지향하는 한일관계 전반에 걸쳐 유익한 것이어야 하며, 21세기의 양국관계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조속히 체결되어야 한다.

다음은 한일산업협력의 현황과 향후 가능성, 한일 FTA의 바람직한 모습, 또한 향후 과제에 대한 정단련 측의 생각이다.

1. 한일산업협력의 현황과 향후 가능성

(1) 현황

대한(對韓)비즈니스 현황을 살펴보면 전기·전자·통신, 정밀기기, 자동차, 철강을 비롯한 주요분야에서 기술제휴, 부품공급, 제품의 공동개발, 제 3국에서의 협력 등이 전개되고 있으며 상호의존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일본기업 중에는 한국기업과 40년 가깝게 협력해 온 사례도 있는 등, 최근에는 양국기업의 전략적 제휴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은 한국의 OECD가입('96년), 아시아 외환위기 발생과 IMF의 한국지원('97년)을 계기로 수입선다변화제도 등, 지금까지 외국의 기업활동을 제한해 온 무역, 투자에 관한 여러 제도가 폐지되었으며 동시에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새롭게 제정되어 개혁이 실현되었다. 그 결과 한일산업협력이 촉진되는 환경도 차차 정비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산업협력 추진 시 일본기업이 직면하는 문제로서 노동문제나 무역투자관련 제반수속이 너무 번거롭다는 지적이 있다. 노동문제에 대해서는 IMF지원을 계기로 정리해고제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본기업 입장에서 여전히 對韓비즈니스의 커다란 장해요인이 되고 있다.

(2) 향후 가능성

앞으로의 한일산업협력에 관해서는 뒷 부분의 첨부자료에 있듯이 업종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협력관계 진전이 예상된다.

특히, 전기·전자·통신, 철강 분야에서는 양국의 기술수준이 세계 정상급이라 세계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한편, 부품, 원자재 공급 등에서 긴밀한 협력관계가 구축되어 있다. 일본기업의 세계전략 전개 시 상품의 공동개발, 부품, 원자재 조달, 제품의 상호유통 등에서 한국기업은 더욱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이며, 선진국형 수평분업의 가장 전형적이 업종이 되리라 예상된다.

다른 한편, 한국의 수입선다변화제도에 따라 실질적으로 대한수출이 불가능했던 자동차나 AV제품 등에 대해서는 1999년 동 제도가 철폐됨에 따라 일본기업들의 현지법인 설립이 시작됐다. 또한, 한국기업의 일본진출도 서서히 추진되면서 향후 양국시장에서 새로운 한일협력 네트워크 형성될 가능성이 기대된다. 또한, 시멘트 등 건설자재 분야는 한중일 3국에 의한 동북아 지역내 공급체제 구상도 있다.

2. 한일 FTA의 바람직한 모습

(1) 무역자유화를 둘러싼 정세

세계경제는 글로벌화의 파도가 크게 일고 있는 가운데, EU(유럽연합)나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로 대표되는 지역경제통합의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후반 이후, FTA체결이 증가하고 있다.

일본도 WTO의 다자간 무역협상체제를 보완하는 것으로서 FTA를 체결할 기운이 높아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싱가포르와 금년 중에 「일본-싱가폴 경제연계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며, 멕시코와는 「경제관계 강화를 위한 일본-멕시코 공동연구회」가 설치되어 올해 9월부터 FTA의 가능성도 포함하여 포괄적 논의를 시작했다.

현재 아시아에서 OECD에 가입한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이지만 WTO가입에 따른 중국의 경제적 위상이 향후 더욱 향상되리라 예상된다.

또한 작년 11월에는 싱가포르에서 ASEAN+3(한중일)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동아시아의 자유무역권 구상이 제기되는 등, 지역차원의 협조를 지향하는 새로운 움직임도 있다.

한일 양국은 앞으로도 아시아경제의 발전을 건인하는 중요한 파트너이며, 한일 산업협력의 바람직한 모습은 이와 같은 세계경제의 흐름 속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2) 한일산업협력과 FTA

양국 기업들은 이전부터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활발하게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다. 양국간 산업협력 발전은 양국기업의 창의(創意)노력에 따른 사업활동의 산물이다.

그러나 기업차원에서 극복할 수 없는 제도적 장벽(예를 들어 관세, 규제 등)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해결이 필요하다. FTA로 인해 ①관세철폐, 서비스 자유화, 투자 자유화 등에 따른 시장확대·무역촉진, 그 결과로서 비즈니스와 경제 활성화, ②양국의 제반규제 조화, 즉 규제의 철폐·완화를 통한 고비용구조 시정과 국내 구조개혁 등을 기대할 수 있다.

FTA로 인해 양국기업간 경쟁이 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나 경쟁 과정에서 전략적 제휴도 실현, 확대되어 한일간 산업협력이 더욱 진전될 것으로 생각된다. FTA는 한일간의 산업협력을 가속화시킬 유효한 수단이다.

(3) 포괄적 FTA의 필요성

일본기업들 중에는 관세철폐라는 장점은 물론, 한일 양국의 국내제도개혁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FTA에 기대하는 의견이 많다. 따라서 한일 FTA는 단순히 관세철폐에 그치지 않고 포괄적FTA가 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뒷부분에 첨부한 자료처럼, 노동문제(노동자에게 과도하게 유리한 제반제도와 관행을 시정), 기준·인증제도 통일화와 상호승인, 무역관련 제반수속의 간소화·효율화와 전자화, 투자규칙 정비, 인적(人的)이동에 관한 제도(비자취득에 관한 서류, 수속의 간소화 등), 문제발생시의 지원제도,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3. 향후 과제

실제 FTA협상을 시작했을 때 피할 수 없는 과제는 농림수산물에 대표되는 요주의수입품목(sensitive item)의 취급이다. 농림수산물의 예를 들자면 일본의 대한수입 비율은 10%정도로 높으며, 이 분야가 예외취급 된다면 실질적으로 전품목 자유화를 촉구하는 WTO규칙과의 정합성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들은 이러한 분야의 문제를 일본전체의 통상전략 아래, 자유화에 의한 시장개방과 수입확대가 국민 대다수의 편익을 증진시킨다는 인식하에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한국 산업계에서는 FTA를 체결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일본만이 가시적인 혜택을 누리고 한국은 대일 무역적자가 더욱 확대된다는 우려가 뿌리깊어 FTA의 효과를 의문시하는 의견이 적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한일 FTA가 한국의 규제개혁추진에 이바지하고, 장기적으로 한국 산업계의 국제경쟁력 강화에도 연결된다는 점에 유의하여 양국 경제계는 협정체결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한일 FTA는 미래를 지향하는 한일관계 전반에 걸쳐 뜻 깊은 것이며, 21세기의 양국관계를 상징하는 의미에서도 조기에 체결해야 한다.

이 상

업종별 대한(對韓)비즈니스의 현황과 향후 협력가능성

전기·전자·통신	현황	향후의 협력가능성
정밀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밀기기 전체를 보면 51.6억달러의 대한수출(수출 90.4억달러, 수입 47.8억달러) -한국기업과는 상품에 따라 중층적인 경쟁과 협력관계에 있음. -예를 들어, 반도체나 액정 등의 전자부품은 치열한 경쟁관계와 보완적관계가 공존 -백색가전은 양국 모두 국산제품 중심이지만 부품·모듈은 해외제품의 조달 중 -AV기기 등은 1999년 수입선다변화제도 폐지를 계기로 한국 업체들이 생산한 제품이 AV정보통신의 고단층 첨단기술상품의 대한수출을 개시, 수입판매를 목적으로 한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기업도 있어, 이들 상품의 수준이 가능해 저라라 예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국의 기술수준은 세계 정상급. 한국은 첨단기술 개발력에서 일본과 견주어 있음. 기기기술에서 큰 차이가 없으므로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로서 향후 다양한 협력 가능 -전기, 전자부품, 정보통신분야에서는 자부합여, JV설립, 투자기술개발, 이 밖의 제조부문에서는 일부공장의 제조위탁, 상호상품 공급, 해외생산기점간 연계 등의 제휴 가능. 또한, 한국이 백색가전 등의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일본시장에 진출한 때에는 서비스 제품 가능 -계측기기분야는 한국측은 소기업법에 있으므로 산업내 부문 기능성은 원장지. 생산지점으로서의 한국의 우위성은 고부가가치 제품에만 한정 -인더스트리얼 자동화 부의클러스터나 엔지니어스 등, IT분야의 협력최대도 기대 -단, 각 분야의 범용품 생산분야에서는 한국이 종선에 갖고 있던 비교 우위성이 중국의 대두로 인해 위협받을 것으로 예측
경쟁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밀기기 전체를 보면 14.2억 달러의 대한수출(수출 19.7억달러, 수입 5.5억달러) -생산라인용 제어장치(릴레이, 타이머, 스위치, 컨트롤러 등), 사회시스템기기(은행 A T M, 승차권판매기 등), 민생기기(내장기기(프린터기, 팩스, 스캐너), 키보드, 스피커, 포토마이크로폰 등), 건강기기(혈압계 등)의 반도체 제조장치 등의 제품과 키 파조나 영상관련상품(카메라, 캠코더, 녹상기 등) 제품과 부품들 한국에 수출·판매. 한국으로부터는 복사기, 저계 등을 수입 -생산라인용 제어장치는 한국기업과 치열한 가격경쟁관계에 있으나 일본측이 불필요한 우위성을 차지 -민생기기 내장기기는 한국기업과 치열한 가격경쟁관계에 있음. 한국으로 수출하는 일본제품 대부분이 한국 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전자기기에 내장되어 한국에서 수출 -자동차 탑재용 기기(릴레이, 키 레스 컨트롤러, 파워 윈도우 유닛 등)는 일본의 100% 사회자가 생산하는 사례 있음. 동사의 현지 조달율은 50% 정도. 나머지 50%는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서 일본에서 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라인용 컨트롤러 등은 한국시장에서는 고부가가치 제품분야. 일본측 주력 민생기기가 내장기기에 대해서는 한국기업과의 가격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판매문제로부터 생산비용 인하가 중요한 과제. 중국에서 생산하여 한국으로 수출하는 방법도 검토 -한국기업과의 협력방안은, 제어장치에 관해서는 제 3국에서의 생산, 판매협력이나, 건강기기 내장기기의 전략적 제휴 외에도 중앙아시아시장에서 선행하고 있는 한국기업과 제휴하여 일본기업의 시장개척 등의 가능성 있음. -생활관련상품에 대해서는 정밀기기나 관련 서비스의 전적인 판매권은 일본기업이 갖고 있고 있으므로, 전자상거래 등 IT분야를 활용한 사업에 강한 한국기업과 상호의 강점을 살린 협력이 유망함.
경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장 전체를 보면 12.3억 달러의 대한수출(수출 25.9억달러, 수입 12.7억달러) -일본은 고부가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 양국기업은 소재를 상호공급. 직간접 한국기업에서 보면 일본이 최대의 수출국이자 수입국 -일본기업은 한국기업과 이미 기술협력이나 원자재 공급 등을 포함한 포괄적 제휴관계에 있거나 자본제휴를 하는 등 양국기업간에서 전략적 제휴 추진 중 -일본기업은 POSCO와는 경쟁하면서 도미올리와 소재공급을 통한 부문제, 일본기업이 한국의 일반 소비자들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는 전자강판이나 자동차 철판 등 고부가가치 제품이 대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로의 공동수출, 제품의 상호유통, 수출품의 수평분업 등이 유망 -또한, 종전의 협력관계를 토대로 전략적 제휴제약을 체결한 양국 기업이 제철주 권위인화를 선취하여 기초 기술개발, 제 3국에서의 합병, IT분야, 구매 등을 대상으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사례 있음. -업계에서도 정보교류를 위한 분야 구축

	현황	향후의 협력가능성
비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 니켈, 알루미늄, 납, 아연 등 비철금속 전체를 보면 513억엔의 대한투자(수출 828억엔, 수입 315억엔) -비철금속의 대한 수출에 전체 중 56%를 차지하는 동과 통합금관련사업의 한일 협력사업으로는 양국기업이 협력하여 한국에서 동정련(銅精練)사업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銅)정련사업분야의 발전적 제휴(提携)·자제조단, 조업기술 등), 소재분야의 JV, OEM 및 기술제휴 등의 협력관계가 유망
요업(製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철수출 광물제품은 23억 달러의 대한수출(대한수출 46억달러, 대한수입 23억달러) -유리 및 유리제품의 대한수출이 27억달러 -상징적 협력사업으로서 한국이 한일합작회사를 설립. 자동차용 안전유리 제조, 판매 외에 프라온관용 유리 편브를 제조·판매. 합작회사에 대한 기술지원, 기술자 파견서 일각수속이 복잡함. 국내 자금조달수단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있음. 일본국내 생산용은 한국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 -시멘트는 한국의 내수경쟁에 따라 한국의 공급력이 과잉상태. 압도적인 대한수입존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한국과 일본을 바짝 뒤쫓고 있으므로 한일간의 수평분업, 최첨단 기술개발제휴 유망 -일본 시멘트회사의 국제전략을 고려하면, 한일양국의 유력기업간 제휴는 국제적 위상 제고에 공헌. 한국 시멘트회사의 생산능력이 높으므로 제휴의 장점이 크다. -한국의 시멘트 주요공장이 동해수에 집중해 있어, 북한의 인프라 정비가 추진되면 북한의 동해수 수요에는 한일기업이 대응하고, 한반도 서해안은 중국에 진출한 일본기업이 대응, 부산 등 한국남부는 일본 규슈(九州)에 있는 시멘트 공장 등이 대응하는 식의 분업체제도 가능
플랜트·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구까지 세진플랜트, 제지플랜트, 환경플랜트 등 다양한 플랜트를 수출해 왔으나 최근들어 감소추세 -이 밖에도 각종 기계·기기(예를 들어 발전설비, 운반기계, 환경장치, 유압기기 등)에 관해 기술공급을 실시 -조선분야는 양국이 긴조하는 선박종류가 유사하여 고부가가치조선(船)을 비롯한 많은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 3국의 플랜트 프로젝트로, 서로 자신 있는 분야를 담당하여 협력 가능 -조선분야와 관련, 현재 일본의 조선업계는 개편중. 당분간 산업협력의 기능상 낮음.
종합화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유화학제품, 무기(無機)화학품, 도료, 농약을 비롯한 전체를 보면 28억 달러의 대한수출(수출 35.4억달러, 수입 9.4억달러) -일본은 기초화학품, 정밀화학품을 수출, 한국으로부터는 범용수지 등을 수입 -한일합작사업으로서 한일합작회사를 설립하여 전자공업용 악품, 기능성 필름 등 전자부품용 특수수출 등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의 전자, 반도체분야 성장에 따른 선미화대의 가능성. 정밀화학품 관련 사업화도 가능 -한국기업과는 수지 가공분야에서 제품·규형에 관한 분업, 화학제품의 유통상 대이티 취득이나 환경대책에 관한 협력, 의료품의 연구·임상개발 기지 제휴, 구미기업 대응을 염두에 둔 중국시장에서의 협력, 상호위탁생산, 기술제휴에 의한 국제경쟁력 강화 등의 협력이 가능
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섬유제품의 대한수출은 직물(4.8억달러)과 선(1.2억달러)을 중심으로 5.4억달러, 수입은, 의류(9.5억달러)를 중심으로 13.6억달러로, 전체적으로 8.1억달러의 대한적자 -ASEAN과 중국의 생산력·기술력 향상으로 인해 고정상품에 관해서는 양국기업 모두 경쟁력 상실. 양국기업은 고부가가치 전략으로 구미시장이나 중국시장 등에서 성장 -「한일섬유산업연합회 인차합동회의」의 장기적 계획으로 정보교환의 틀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일 FTA체결을 염두에 두면서 양국기업의 높은 기술력을 활용하여 기타지역에 대한 수출화대를 공동과제로 삼아 견도 -한국은 이베린 밸리(apparel valley-대금의 고도화·고부가가치화를 추진중에 있으며, 한일 기술협력(패션 소재, 디자인 협력 등)도 가능 -정보교환·공동화를 통한 이상으로 활발하게 하고 대중(對中)진박에 대해서도 가일층의 공동보조를 가능케 하는 틀 구축을 기대

	현	향후의 협력가능성
문	한국에서 유수업 회사를 설립한 경우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에 의한 제한규제나 노사관계 불안 등을 이유로 직접 진출하지 않고 있음.	-한국의 항만 중에는 세계에 통용하는 것도 있음. 한국의 노동임금이 저렴하므로 FTA가 체결되어 공용화, 간소화된다면 문물비용 절감을 위한 운수분야의 한일 상호이용도 가능
유	일본 소매업들의 해외 진출은 감소경향에 있으며, 한국에서 철수하는 사례도 많음. 다른 한편, 종합상사가 소매업에 진출하는 사례도.	-한국의 유통업계는 대규모 체인스토어, 편의점 외에 대형할인매장과 같은 염대도 급증. 일본과 기술 제휴 가능
향	-한일상공협정의 돈이 유효하게 기능하여 항공시장은 아시아 최대규모로 성장. 현재 여객의 수요확대가 기대됨. -이집트부터 니리다(CEIU)공항의 이익을 제한 등 수교된 공항용량의 부족은 양국간 항공수송의 애로사항으로 밝혀 왔으나 2002년 4월, 니리다공항의 잠정확주로 완성 및 한국인원공항 개항으로 항공수송은 한국노선의 대폭증강을 결정	-양국산 단기거리에객들의 편의성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현재 국내선으로 한정되어 있는 하네다(羽田)공항과 김포공항 간에 항공편이 운항되면 한국측과의 관계 증진이 기대
종합상사	-1993년에 현지법인 설립이 인가되는 등, 비즈니스환경이 대폭 개선	-IT분야(컨텐츠, 비즈니스 모델 공동연구개발)의 협력분야나 서비스분야의 수평적 협력관계 구축의 가능성 있음. 문물비용 삭감을 위한 제휴 가능성도.
자	-수송기계 전체를 보면 5억달러의 대한투자(수출 6.6억달러, 수입 1.6억달러)	-수입선다변화제도 폐지를 계기로 새롭게 현지법인을 설립한 기업도 있어, 서서히 안정화의 대한수출이 증가할 가능성 있음.
공	-그 중 자동차 분야는, 한국의 수입선다변화제도 폐지에 따라 완성차의 대한수출이 아직 시작 초기단계로 4천만달러 정도	-향후 한국의 부품산업이 일본메이커의 품질기준을 충족시킨다면 한국으로부터의 부품조달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 있음.
업	-다른 한편, 예진, 진장품(電張品) 등의 자동차부품은 대한수출이 5.6억달러, 대한수입은 1.1억달러이며 기술제휴도 진전	
남	-은행분야에서는, 외국자본기업으로 단일국가에서 통자금고 1위를 차지함. 단, 외환 불어 감소경향	-이미 은행업무에 관한 규제완화는 대폭 추진되었으나 금융시장의 인프라 구축이 더욱 진전되면 일본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참여를 도모하여 한국금융시장 확대에 기여함과 동시에 각 산업의 자금조달 다양화가 기대.
용	-증권분야에서, 외국인투자에서 차지하는 일본의 점유율은 기우 1%. 해외진박의 세김포에 따라 철수도 잇따르고 있으며, 과거의 10개사에서 현재 3개사로 감소	-한류문화시장은 단계적 자유화와 외국자본에 대한 시장 개방이 진행되고 있으며 중장기적 발전이 기대된다. 일본의 생명보험사가 한국의 부자선타회사와 제휴한 사례도 있어 한일양국의 벤치기업에 대한 출자 등, 비즈니스 기회 발굴이 진행될 가능성 있음.

[자료 B]

한일 F T A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사례

(1) 관세

- 고율관세 부과로 인해 일본제품의 대한수출이 어려운 것 외에도, 결과적으로 일본부품을 사용하고 있는 한국제품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철폐하거나 관세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예) 세율 16%…면직물, 세율 8%…기계류, 베어링, 자동차부품, 사진용필름·인화지, 알루미늄제품, 자동판매기, 건강기기

(2) 노동문제

- 지나치게 노동자에게 유리한 노사협정이나 관행을 시정할 필요가 있음.
- (예) 유급휴가제도 개선(휴가매입제도 폐지)

(3) 무역관련 제반수속

- 세관수속의 간소화·효율화가 필요. 무역수속의 전자화도 검토해야 함.
- (예) HS코드의 공통화, 검역관련수속 운영의 투명화

(4) 기준·인증의 통일화, 상호승인 추진

- 기준·인증제도 등이 사실상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예) 차량법규(한일간의 차량법규가 다름)
- 인허가 권한이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경우, 각 부처가 기준·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제도 간소화와 정합성 확보를 요망
- 자격제도의 상호승인, 양국 자격제도의 공통화 검토
- (예) 공인회계사 자격, IT기술자 자격 등

(5) 투자규칙 정비

- 현재 양국 정부간에서 협상중인 한일투자협정을 신속히 체결해야 함.

(6) 사람의 이동

- 비즈니스 관계자들의 이동이 편한 제도가 되어야 함.
- (예) 비자취득에 관한 서류·수속의 간소화

(7) 문제발생시의 지원제도 정비

- 투자를 위한 원 스톱 서비스창구 설치의 평가. 기능을 다할 것을 기대. 노사문제, 각종인허가 관련 문제 발생시의 지원·중재 기능을 갖춘 창구설치를 기대. 특히 노사분규에 관해서는 한국당국의 적극적인 기업 지원을 기대

(8) 지적재산권의 실효성 있는 보호

- 계속해서 정비를 추진함과 동시에 실효성 있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체제구축이 필요.
- (예) 가짜 브랜드, 해적판CD, 비디오 등을 엄격하게 단속

(9) 원산지규칙

- 원산지 표시방법이 까다로움. 또한 원산지 입증을 위한 부품리스트 제출의 의무화로 인해 기밀자료까지 청구됨. 원산지표시 폐지 또는 표시방법의 간소화가 이루어져야 함.

(10) IT분야 협력

- 전자상거래 관련제도의 조화 : 전자서명·인증제도의 상호 운용성, EDI 표준화, 개인정보보호, 경쟁정책

한일 자유무역협정을 향한 공동 Communiqué

2001년 11월 26일 서울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경제단체연합회는 2001년 11월 26일 서울에서 제18차 한일 재계회의를 개최하고,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한일 양국간에는 전기·전자·통신, 정밀기계, 자동차, 철강, 섬유를 비롯한 각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 및 전략적 제휴가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에도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국은 보다 심도있는 산업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한일 산업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는 데 있어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FTA는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양국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항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한일 무역불균형의 시정, 기술이전의 촉진, 비관세장벽의 철폐 등과 같은 과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3. 중국의 WTO가입과 ASEAN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동아시아 자유무역권 구상 등 급격한 국제경제의 변화에 대응하여 한일 양국은 아시아경제를 견인하는 중요한 파트너로서 협력체제를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한일 FTA 체결을 서둘러야 한다.
4. 전경련과 경단련은 협력하여 한일 FTA의 조기 체결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경주해 나간다.

金 珏 中

김 각 중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今 井 敬

이마이 다카시
경제단체연합회 회장

2. 韓國側 백그라운드 페이지

『韓日 FTA의 爭點과 對應戰略』



楊 秀 吉

韓國貿易協會 客員研究員, 金・張 法律事務所 顧問,
前 駐OECD 大使

1. 序 論

지난 3월 21일부터 23일에 걸쳐 이루어진 고이즈미 총리의 공식방한을 계기로 이루어진 한일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한일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産・官・學공동연구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한일 FTA구상에 대해서는 1998년 10월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행동계획」에 관한 양국 정상간 논의를 계기로 그 후 학계 및 실업계 수준에서 연구가 전개되어 왔으나 이 과정에 정부의 공식적인 참여는 배제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이 합의를 계기로 정부간 차원에서도 연구가 시작되는 것이다. 두 정부가 한일 FTA연구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것은 그간의 민간 차원의 연구결과로 한일 FTA체결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왔음을 반영하는 것이며 나아가 향후 정부차원의 연구작업도 이러한 결론을 전제로 할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제 전개된 공식적 연구작업의 초점은 한일 FTA의 추진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일 FTA를 어떠한 내용으로 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하는 방법론에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일 FTA에 관한 산・관・학 공동연구회의 설치 합의는 양국간 경제관계의 전개과정상으로는 또는 한국과 일본 각국의 통상정책전개 과정상으로는 매우 의미심장한 하나의 轉機를 마련해 준다고 하겠다. 한일 FTA를 추진한다는 것은 양국간 경제통합의 序幕을 열겠다는 것이며, 이것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잊그제 즉 1998년까지도 이른바 「수입선다변화제도」라는 이름아래 일본의 주요 공산품 수입을 억제해 왔던 사실에 비추어 실로 코페르니쿠스의인 전환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한국과 일본간 경제관계의 基調가 그만큼 획기적 변화를 보이기에 이른 것이다. 또 한일 FTA구상 연구 착수는 오랫동안 오로지 WTO체제에 입각한 다자주의에 집착해 왔던 두 나라의 통상정책이 다자주의와 지역주의를 병행추구하는 이른바 multi-track추구방식으로 그 전략을 전환했음을 확인해주는 사실이다. 한국은 이에 앞서 한칠레 FTA협상에 착수한 바 있고, 일

본은 FTA를 기간으로 하는 일본-싱가포르 경제파트너쉽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얼마전 체결한 바 있으나, 한일 FTA는 그 비중에 있어서 이들 두 가지를 크게 능가하는 만큼 이러한 “확인”의 의미도 큰 것이다.

이와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한국의 경우 한일 FTA를 지지하는 여론이 조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이 한일 FTA에 대한 정부간 차원의 연구에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주의 내지는 multi-track을 추구하는 통상정책이 세계적 대세이며 또 한국과 일본간의 경제적 동반자관계에는 숙명적 필연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두 가지 인식에 입각한 정부 및 산업계지도자들의 정치적 결단에 크게 기인한다. 그러나 부문별 산업현장에서는 한일 FTA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불안감이 더 큰 것이 사실이며 또 한일 FTA는 그 추진방법에 따라 한·일 각국의 글로벌한 차원의 경제전략 목표에 역행할 위험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향후의 산·관·학공동연구과정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냉철하게 그리고 엄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한일·일한 FTA비즈니스포럼의 2002년 1월 25일자 공동선언문의 행간에 은근하게 흐르고 있고, 또 한일비즈니스포럼의 대정부보고·건의문에 명시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하 본인의 발표에서는 한국 실업계의 보고·건의문을 배경으로 해 한일 FTA에 관한 주요 쟁점을 검토해 보고, 이에 입각해 한·일 양국이 추구해야 할 FTA의 성격을 논하고자 한다.

2. 한국 實業界의 입장

한일 FTA에 대한 한일실업계의 입장은 한일비즈니스포럼의 對정부건의문에 요약되어있다. 이 건의문에서 한국실업계는 우선 한일 FTA가 그 자체로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통합체 특히 동아시아 FTA 결성을 위한 하나의 중심축으로서 이해되고 접근되어야 하며, 이런 과정에서 북미와 유럽이라는 양대 역외경제권에 대한 전략이 동시에 감안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한일 FTA는 한국과 일본 각국의 글로벌 통상전략의 공통축으로서 구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일 FTA가 각국의 다자적 통상정책과 일관성을 갖추어야하며, 특히, 제 3국들과의 통상관계에 주는 영향과 그 반향을 감안해 整合性있게 구상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실업계가 동아시아경제통합체라는 장기비전을 상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비전은 「동아시아비전그룹」이 ASEAN+Three정상회의에 제출(2001년 10월)한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동아시아공동체」(East Asian community)와 그 취지를 같이하고 있으며, 한일·일한비즈니스포럼 공동선언문에서 제시하는 “중국, ASEAN 등과의 경제통합”을 좀더 구체화하고 있다. 한일·일한비즈니스포럼 공동선언문과 한일비즈니스포럼 건의문간에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前者는 한일 FTA 자체를 강조하고 後者는 동아시아 FTA를 강조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한국의 실업계는 글로벌한 전략이나 동아시아경제통합 추진의 관점에서 한국 농수산물시장의 개방이 불가피하며, 나아가 이것이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및 농어가 피해보상과 함께 능동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건의하고 있다. 또 건의는 한일·일한비즈니스포럼 공동선언문상의 “한일 FTA 체결시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될] 산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배려하고 필요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라”는 건의를 농수산업에 적용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특히 한국 실업계는 한국이 현재 칠레와 FTA를 협상하고 있으며, 이 협상이 한국 과일재배 농가의 반대로 교착되어 있는 바, 이를 계기로 농수산업의 개방을 능동적으로 추진하라는 것이다. 또한 한국 실업계는 일본측에도 농업시장개방의 어려움이 있음을 주목하며 한일 FTA의 일환으로 농업의 구조조정 내지는 “고도화”를 위한 협력과 제휴를 추진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농수산업의 개방은 한국의 경우 WTO 및 APEC차원의 무역협상은 물론 대부분의 양자 관계에서 반드시 대두되는 難題로서 일반적으로 교역상대국 그 어느 누구와 FTA를 체결하고자 해도 걸림돌로 등장하는 만큼 한칠레 FTA추진을 계기로 농수산물 시장개방에 착수하자는 것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한일관계에서만은 농수산물시장개방이 일본에게는 어려움을 가져와도 한국에게는 그렇지 않을 듯 하다. 그래서 한국이 일본측에게 농수산물시장개방을 촉구하는 격이 되었다. 그러나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이 스스로의 농수산물시장개방을 능동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한 한국은 한일 FTA 이외의 그 어느 FTA도 도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WTO 또는 APEC차원의 무역협상에서도 수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한국 실업계는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농수산업의 취약한 국제경쟁력이 능동적 대외통상정책의 추구를 어렵게 하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음은 일본도 마찬가지인 만큼 이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공동대응 모색은 매우 중요한 협력과제로 수용할 수 있겠다. 한일·일한비즈니스포럼 공동선언문에서는 이 FTA의 “거시경제적 이익과 개별산업간의 이해조정”을 “국가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일경제협력의 일환으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공동모색하고, 농업개방문제를 그 구체적 경우로 삼아 공동연구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측 건의문은 농수산물시장개방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경우 한국이 동아시아 FTA추진의 리더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 점은 일본의 경우에 특히 절실하게 해당되는 권고사안이며, 또 두 나라 모두 이 과제를 해결하는 경우 양국은 동아시아에서는 물론 범세계적 무역협상에서 리더역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한국측은 대정부건의문에서 한일 FTA가 한국의 공업부문에 가져다 줄 수 있는 타격을 우려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공업의 상당부분에서 한국이 일본에 대해 경쟁력이 없으며 그러나 상대적 고관세(89%내외)에 의해 일본과의 경쟁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음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한국측의 별도의 분석에 의하면 FTA가 체결되는 경우 자본과 기술 집약적인 기계산업에서 對日수입 급증과 국내산업붕괴가 예상된다. 또 섬유, 의류, 석유화학, 철강, 가전제품, 자동차, 구리(銅) 등 부문에서 그 고부가가치 제품의 대일수입급증과 그에 따른 타격이 예상되고 그 결과 한국측은 상대적 저부가가치 제품에 특화하게 되고, 전체적으로 “중저가 범용제품 생산기지”로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일본에 대해 경쟁력이 있어 FTA체결로 인한 타격이 예상되지 않는 부문들도 있다. 철강, 반도체, 조선, 플랜트(해외부문), 항공, 시멘트, 식품 등 제조업 및 금융, 유통 등 서비스업이 그 예로 제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상당부분에 걸쳐 수입급증과 산업위축이 초래되고 그 결과 대일무역수지는 물론 종합무역수지가 악화되고 경제성장에도 부정적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한국측의 우려인 것이다. 이 점은 한국의 기술 경쟁력이 일본에게 크게 뒤지며 또 한국의 실행관세율 수준이 평균 7.9%에 이르는 반면 일본의 평균 실행관세율수준이 2.9%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비추어 일단 수급이 가는 사실로서 이른바 靜態的 계량분석의 결과와도 일치되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이른바 계량분석에서 제시하듯 대일시장개방으로 인한 경쟁압력 강화와 산업구조조정으로 인한 생산성향상을 상정하면 완화 내지 반전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해도 그 실효성이 불확실하고 또 적어도 중단기적으로는 상당한 무역수지 악화와 산업기반 약화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한국측은 한국의 산업이 FTA의 이러한 부정적 효과를 상쇄 내지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일본내의 각종 비관세장벽이 완화 또는 철폐되어야 하고, 둘째, 일본기업들의 對韓직접투자확대를 통해 일본으로부터의 기술과 산업 이전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들에 대한 대책이 한일 FTA의 일환으로 또는 그에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두 가지 중 前者만이 일본측의 과제임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실업계는 後者를 위해 지적재산

권 보호, 경영의 투명성 제고, 고급인력양성, 동반자적 노사관계 정립,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고 있는 바 이들은 모두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한국측 스스로의 과제인 것이다.

한국 실업계의 대정부 건의문에서 제기되는 문제 또는 과제는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한일 FTA가 다자무역규범을 준수하고 나아가 궁극적으로 동아시아 FTA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한일 FTA가 관세 또는 제도적 무역장벽 제거만을 목적으로 해서는 한국측에게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주기 어렵기 때문에, 한일 FTA는 이에 그치지 말고 보다 포괄적인 상호교역촉진조치들을 내용으로 삼아야한다는 것이다. 셋째, 한일 FTA추진과 병행해 농수산부문의 구조조정과 개방에 대한 양국간 협력을 추구하라는 것이다. 넷째, 국내의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라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들 4가지 과제중 한일 양국이 추구해야할 FTA의 성격에 관한 처음 두 가지 과제를 차례로 검토한다.

3. 동아시아 FTA 중심축으로서의 한일 FTA

지난 3년여간에 걸쳐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전개된 한일 FTA논의는 그것이 FTA참가국들 즉 한국 또는 일본경제에 가져다 주는 영향의 분석에 초점이 주어졌고 제 3국 또는 여타의 국가들에 가져다 줄 영향 또는 부작용과 그에 대한 제 3국들의 정책적 대응을 그다지 문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각기 세계적으로 제 2대 및 12대 규모의 무역국가이며 동아시아에서 제 3대 및 최대규모의 무역국가로서 이들간 FTA가 동아시아의 여타국가 및 미국, 유럽 등지의 주요 동아시아교역상대국에게 충격을 안 줄 리 없으며, 나아가 정책적 대응을 유발할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이다. 한국과 일본 양국은 상호 FTA 및 그 외의 FTA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러한 충격과 반응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함에 있어서, 우리는 우선 한일 FTA가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아태지역 국가간 논의되기 시작한 수많은 FTA 또는 소지역협정(SRTA)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목하자. 아시아외환위기 이전까지 아태지역내에는 호주와 뉴질랜드간의 Closer Economic Relations Trade Agreement(CER)(1993), 아세안 FTA(1993) 및 북미 FTA(NAFTA)(1994)의 세 가지 소지역협정(SRTA)만 존재하였다. 그러나 2001년 상반기 현재로 세로 체결되었거나 협상 또는 논의되고 있는 FTA와 그 변형이 23개에 이르고 있다. 그 중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CRFTA(Cross-Regional FTA)로서 미국, 캐나다 및 멕시코 등 NAFTA관련 FTA가 7개, 칠레관련 FTA가 4개에 달했고, 서태평양국가간 쌍무적 SRTA가 7개, 두 가지 소지역협정을 연결하는 SRTA로 AFTA-CER가 Closer Economic

Partnership 1가지, 그리고 동아시아국가간 FTA로서 동아시아FTA(EAFTA)로 발전가능성을 가진 것이 4개에 달했다. 이들 중 일본과 관련되는 것이 6가지, 한국과 관련되는 것이 7가지, 싱가포르와 관련되는 것이 9가지, 칠레와 관련되는 것이 5가지, 뉴질랜드와 관련되는 것 6가지, 그리고 멕시코와 관련되는 것이 3가지로서, 이들이 APEC역내에서 SRTA에 참여국으로 가장 자주 거론되는 국가들임을 알 수 있다. SRTA논의가 많다하여 그만큼 수많은 SRTA가 체결되는 것은 아니다. 23개의 SRTA구상중 이미 체결된 것은 아직껏 싱가포르-일본 New Age Economic Partnership과 싱가포르-뉴질랜드 CER 두 가지에 불과하다. 그리고 막상 협상단계에 접어든 FTA도 싱가포르-미국, 일본-멕시코 및 한국-칠레 FTA의 3가지 정도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APEC역시 SRTA체결에 그만큼 난관이 많음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문제는 이와 같은 각종 FTA 내지 SRTA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경우 지역내 무역구조의 왜곡으로 역내경제들이 성장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나아가 역내국가간 무역마찰이 빈발해 지역경제의 안정 내지는 정치적 결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작용을 예방 내지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무역질서에 대한 비전과 전략이 정립되고 추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FTA의 무질서한 생성에 따르는 부작용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가 발생해 제 3국의 무역을 위축시킨다. 특정 FTA가 회원국에 가져다주는 무역증대효과가 클수록 제 3국들로부터의 무역전환효과도 크다. 둘째, 여러 개의 FTA가 공존하는 경우 이른바 Spaghetti bowl효과가 발생한다. 관세인하일정 등 관세 및 비관세장벽인하 방식상의 차이, rules of origin, 예외품목의 내용, 표준, 반덤핑규정 등 여러 부수적 제도상의 차이가 무역구조를 왜곡하고 무역에 따른 부대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셋째, 여러 지역협정이 공존하는 경우 일부 국가는 hub(중심국)가 되고 나머지는 hub를 둘러싸는 spoke(주변국)가 되어, 지역협정의 혜택이 hub국에게 집중되는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우선, hub국에게 협상력이 집중되고, 특히 협정의 내용이 hub국에게 유일하게 타결되고 또 투자가 hub국에 집중된다. 또한 기존의 spoke는 새로운 spoke의 가입을 정지하고자 하게 된다. 넷째, 여러 FTA를 추진하는 경우 다자간 무역자유화와 일반적 무역자유화 노력을 등한시 하게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FTA의 성립에 따르는 이러한 여러 가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FTA는 또 하나의 FTA를 유발시키는 Domino효과가 작용하기 마련이며, APEC지역내 지역협정구상의 확산도 이러한 Domino효과로 설명할 수 있겠다. 실로 동아시아

국가들이 여러가지의 FTA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배경에는 EU를 hub로 하는 수많은 FTA의 대두와 NAFTA국을 중심으로 하는 FTA확산 및 전미자유무역지대(FTAA) 추진에 따르는 Domino효과가 크게 작용했다고 하겠다. 물론 아시아 외환위기로 인해 동아시아경제들의 상호의존성과 공통된 취약성에 대한 의식이 크게 작용하게 된 것도 주요 계기가 된 것이 사실이다.

동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이 FTA참여에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多岐한 FTA추진에 따른 여러 부작용에 비추어보아 동아시아국들은 처음부터 동아시아 FTA에 대한 비전을 갖고 이에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비전은 이미 「동아시아비전그룹」에서 ASEAN+Three정상들에게 제시한 바 있다. 비전으로서의 동아시아 FTA에 대해서는 ASEAN+Three국들간에 이미 공감대가 있다고 하겠으나 그 비전을 실현하는 데에는 많은 난관이 있으며 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FTA를 추구하는 역내 개별국가의 입장에서 동아시아 FTA에 대한 ASEAN+Three차원의 협상이 개시되고 마무리되기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 따라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 바와 같은 여러 FTA구상이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에도 한국과 일본은 양국간의 FTA를 추진해 나가면서 역내에서 논의 또는 협상되는 여러 FTA가 동아시아 FTA로 수렴되게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다.

동아시아경제협력체의 무게 중심은 당연히 동북아지역에 있다. 이 점은 세계 시장에 대한 동북아 3국의 점유율이 20%임에 비해 동남아지역의 점유율이 2%에 불과하다(1998기준)는 사실이 단적으로 잘 나타난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점유율은 1.5%에 불과하다. 따라서 동북아 3국중 두 나라 또는 세 나라 모두간의 FTA는 AFTA 및 여타 동아시아국의 합류를 유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바, 한국과 일본은 이런 점을 활용해 한일 FTA를 추진하면서 이것을 동아시아 FTA의 중심축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일 FTA가 추가적 신규회원의 가입을 촉진하게 하기 위한 open-ended한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일 FTA가 처음부터 쌍무적이 아닌 “지역적(plurilateral)” 구조로 디자인되고 특히 예외품목이 극소화되고, 또 품목별로 상이한 rules of origin이 아닌, 단순하고 보편적인 rules of origin을 갖추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즉 이른바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表 2>에는 몇 가지의 주요 FTA가 APEC역내 각 경제에 주는 정태적 후생효과 추정치가 제시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한일 FTA는 일본을 제외한 모든 동아시아국가, 심지어는 한국에게도 후생의 감소를 가져다 준다. 그러나 이에 중국이 가입하는 경우 일본, 중국, 한국 모두의 후생이 증대되고 특히 중국의 후생증대효

과가 매우 크다. 한 단계 더 나아가 ASEAN국들이 이에 합류하는 경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등 필리핀 이외의 모든 주요 동남아국들이 후생 증대를 보게 된다. 이것은 이만큼 동아시아 FTA구성에 대한 유인이 역내국가간에 작용할 것임을 뜻한다.

이처럼 동아시아 FTA의 발전이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날 수 있으려면 신규회원국의 가입을 촉진하는 구조의 open regionalism을 디자인해 FTA의 내용으로 제도화함과 동시에 동아시아라는 지역적 正體性(regional identity)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ASEAN+Three의 역할이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表 2>에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이 시사되고 있다. 그것은 동아시아 FTA에의 참여범위가 호주와 뉴질랜드의 참여로 범태평양 전역으로 확대되면 거의 회원국 모두의 후생이 더욱 증대된다는 사실이다. 한편 그것이 더욱 확대되어 APEC 전역에 미치게 되는 경우 대부분 회원의 후생은 더욱 증대되는 데 동시에 일부 회원의 후생은 감소하기도 한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방적 지역주의에 의한 동아시아 FTA의 확장에도 어느 범위 이상에서는 자연스런 저항이 조성될 수 있다는 뜻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FTA는 open regionalism원칙에 의거 궁극적으로 APEC권으로 확장되도록 추진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해 WTO차원의 다자간 무역자유화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4. CEP로서의 FTA

한일 FTA와 그에 따라 형성될 것으로 기대되는 동아시아 FTA이 갖추어야 할 내용을 보면 당연히 상품교역의 자유화가 주요 요소인 것이 사실이었으나, 그것은 단지 주요요소의 하나에 불과하게 된다. 서비스 시장의 상호개방도 주요요소가 됨이 물론이다. 그러나 상품과 서비스 시장의 상호개방(liberalization) 못지 않은 것이 무역과 투자의 원활화(facilitation)라고 하겠다. FTA의 내용이 시장개방에 머물지 않고 원활화까지 포괄하게 되는 경우 흔히 이를 Closer Economic Partnership(CEP)이라고 한다. CEP는 원활화만을 포괄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무역과 투자의 원활화가 그만큼 중시되는 것을 나타내는 데 동아시아경제 상호간에는 특히 그러한 것이다.

1999년 3월 방한시 일본의 오부치 당시 수상이 제안한 「일한경제협력의제21」이 바로 CEP에 해당하는 개념으로서 조세협약, 투자협정, 기준인증, 표준, 지적소유권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정부간 폭넓은 협력구도를 제시하고 있다. 그 중 조세협약과 투자협정은 이미 체결된 바 있다. 반면 한국을 위시해 일본의 여러 교역상대국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는 일본내의 “눈에 안보이는” 비관세장벽은

「경제협력의제21」에 포함되어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그러나 그 보완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유통, 금융 등 각종 부문에 걸친 일본 내수 시장에서의 경쟁적 구조 확립을 의미할 것이며 이러한 과제는 일본의 전반적이고 본격적인 경제개혁의 일환으로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이와 별도로 이에 관해 일본정부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한국기업의 일본내 마케팅을 지원해주는 것이고 또 한국기업으로서 이 지원을 매우 공격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은 한국대로 일본과 보조를 맞추어 국내의 투자환경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한일 FTA 및 그것이 지향하는 동아시아 FTA는 이처럼 전통적 의미에서의 FTA보다는 CEP에 보다 가까워야 한다. 이것은 동아시아국가간 경제발전상의 격차가 여러 단계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특히 경제발전상으로 앞선 나라는 그 보다 뒷선 나라에게 기술개발지원과 인적자원개발 지원, 중소기업육성 지원 등 APEC에서 말하는 「경제발전협력」(Eco-Tech)차원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동아시아경제통합체의 실현에 매우 중요할 것이다.

끝으로 FTA 또는 CEP에 역외국을 향한 대외통상정책상 공동보조를 도모하기 위한 협의, 협력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동아시아국가들이 갖는 취약점의 하나가 국제통상무대에서의 협상력 부족이다. 또 그 주요원인의 하나가 미국의 경제력이 막강하고 유럽은 역외국에 대해 공동무역정책을 구사할 수 있으나 동아시아는 그 어느 수단도 갖지 못하는 사실에 있다. 이 약점은 FTA의 조성으로 보완할 수 없다. 역외국에 대한 공동보조가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세동맹 내지 공동무역정책까지는 추구하지 않더라도 제 3국에 대한 대외통상정책을 조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예컨대 최근의 미국행정부의 수입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에 이러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면 다소의 견제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조정메카니즘을 FTA협약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다.

<表 1> 아시아의 환위기 以後 대두된 FTA구상 및 기타 소지역협정(SRTA)

1. 태평양횡단 CRFTA(Cross-Regional F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FTA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ngapore - United States · Japan - Mexico · Korea - Mexico · Singapore - Mexico · Japan - Canada · Singapore - Canada · P5 (USA, Australia, Singapore, Chile, New Zeala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ile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rea - Chile · Singapore - Chile · Japan - Chile · New Zealand - Chile
2. 서태평양 SRTA(Sub-regional Trade Agre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태평양내 쌍무적F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ngapore - Japan · Singapore - New Zealand · Singapore - Australia · Singapore - Korea · Korea - Australia · Korea - New Zealand · Hong Kong - New Zeala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SRTA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FTA - C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시아FTA지향성 F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apan - Korea · Japan - Korea - China · ASEAN - plus - Three · China - ASEAN

출처 : Robert Scollay(2001)

<表 2> APEC내 주요FTA의 경제적후생효과 : 초기GDP대비 増分(%)

	한일 FTA	한중일 FTA	EA FTA	서태평양 FTA	APEC FTA	APEC MFN자유화	ETAA
일본	0.01	0.25	0.34	0.57	0.74	0.68	0.00
한국	-0.28	0.80	1.18	1.20	1.63	1.08	-0.10
중국	-0.05	2.09	1.96	1.94	2.56	3.35	-0.08
인도네시아	-0.01	-0.15	0.69	0.71	0.70	0.58	-0.04
말레이시아	-0.07	-0.70	1.24	1.74	1.59	1.35	-0.02
필리핀	-0.08	-0.35	-0.19	1.01	4.16	3.94	-0.34
태국	-0.03	-0.21	1.00	1.19	1.81	1.93	-0.06
싱가포르	-0.07	-0.87	4.12	0.92	0.72	0.37	-0.01
호주	-0.02	-0.05	-0.11	1.05	0.81	0.81	-0.01
뉴질랜드	-0.06	-0.12	-0.36	4.32	3.60	2.53	-0.06
미국	-0.01	-0.02	-0.03	-0.06	-0.01	0.01	0.06
캐나다	0.00	0.05	0.06	0.06	0.02	-0.07	0.04
멕시코	0.00	0.02	0.03	0.03	0.12	0.07	0.27
칠레	-0.02	0.03	0.02	0.01	0.18	0.24	-0.04
APEC전지역	-0.01	0.16	0.25	0.35	0.58	0.56	0.02

출처 : Robert Scollay (2001)

3. 自由討論

麻生 泰(Aso Yutaka) 코디네이터 : 그러면, 자유토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두 개의 발표를 기초로 해서 여러분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회의 모두부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발표 테마를 중심으로 해서 자유로이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을 들어 주시면 사무국이 무선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회사명과 자신의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시간은 5분 내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일본측의 발언자로서 저희가 미리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JT큐슈의 이시이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石井 幸孝(Ishii Yoshitaka) 九州旅客鐵道(株) 代表取締役會長 : 안녕하십니까? 큐슈여객철도(주)의 회장을 맡고 있는 이시이입니다. 방금 양수길 대사로로부터 말씀이 있었습지만, 일본에서 노사관계가 가장 안좋았던 국유철도에서 15년 전에 민영화를 한 선배가 됩니다만, 그러한 부분도 참고삼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한일 FTA는 되도록 조속히 추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양국의 정상이 합의를 하고 만든 한일·일한 FTA비즈니스포럼의 일본측 좌장대리를 맡았었습니다. 작년 9월에 제1차 합동회의를 열고 그 때는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것은 분야별로 부정적인 영향이 크나든지 한국기업의 경영풍토의 문제, 일본시장의 폐쇄성, 상거래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장벽과 같은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처음부터 문제점이 현재화되고 차이점을 서로 공유를 했기 때문에 그 후 순조롭게 논의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웃나라인 중국의 급속도의 대두, 그리고 FTA의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먼저 한일이 체결을 하지 못하면 세계의 흐름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인식으로 논의가 거듭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적인 교류의 활성화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하나는 아직 한일 FTA라는 국민 차원의 컨센서스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시민차원, 또는 여러 단체, 여러 계층이 상호 방문을 통해서 서로 훌륭한 부분, 배워야 할 부분, 차이점 등을 서로 이해함으로써 이러한 FTA라는 것에 대한 국민차원에서의 촉진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노사관계의 체험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도 양국의 제휴기업 중에서 잘 되어 있는 것은 인간관계가 상당히 신뢰관계 위에서 추진되고 있는 기업은 연계가 잘 되어 있다, 몇 가지 예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서 인적교류를 더욱 더 활성화시킨다는 것이 중요하며, 또 한 월드컵에서 한국인에 대한 노비자 방문, 환전의 편의 등 여러 가지 시행됩니다만, 월드컵이 끝난 후에도 그것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만, 한국 남부와 큐슈, 추고쿠지방, 경제적인 발상이라고 할까요, FTA의 파일로트적인 추진방법을 시행한다는 것이 하나의 시나리오로서 유망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특히 후쿠오카는 부산과는 일상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 가지 교류가 있습니다. 유럽의 이웃나라와의 관계 같은 교류가 이미 성립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중소기업, 벤처기업에서는 수평분업과 같은 제휴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지역적으로 관계가 있는 곳부터 먼저 FTA를 실시해 나간다는 것이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藤生 泰 코디네이터 : 제가 진행역의 특권으로 지금 이시이 회장님의 양수길 대사님 발표에 대한 코멘트에 대해서 연결시켜서 양수길 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저도 이시이 회장님과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만, 양수길 대사님께서서는 한일중 3국 관계를 고려해서 문제도 많고 시간도 필요하고 리더십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쭙보겠습니다.

金都亨 코디네이터 : 그럼 양수길 대사님께 질문이 있었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요약하지는 않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미 인적교류, 상호방문 등등 자치체간의 협력 차원에서 볼 때 한국남부와 큐슈지방이 가장 대표적인 지역 경제권입니다. 거기서 소위 파일로트적인 FTA를 먼저 실시하는 것은 어떤지 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는 한중일 3국을 시야에 넣고 있지만 시간적으로 과연 문제는 없을까, 그리고 핵심적인 역할을 할 리더의 존재 부재, 이러한 제약요인을 생각했을 때 어떤는지, 그렇다면 이시이씨가 제안한 파일로트적인 실험은 어떤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楊秀吉 韓國貿易協會 客員研究員 : 감사합니다. FTA를 조속히 추진하자고 말

씀하셨는데 저도 조속 추진부분에 원칙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조속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우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일본은 일본대로 FTA에 관한 복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와도 추진하고 제시고 아세안과도 추진을 시작하셨고 한국과도 물론 추진 중에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이 멕시코와 FTA를 추진하면 가장 손해보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왜냐하면 멕시코시장에 무관세로 진출을 하시는데 일본과 한국은 이 멕시코에 진출하는 차원에서 경쟁제품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다음에 일본이 아세안으로 진출하게 되면 한국이 또 크게 무역전환 효과로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거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아세안과 추진할 수 있고 중국과도 추진할 수도 있는데 이럴 때마다 모든 것이 일본의 이해관계에 상당히 영향을 주어서 이것이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가면 좋은데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말하자면 어떤 사전적인 비전이나 의도가 없이 전개될 때에는 그런 여러 가지 쌍무적인 FTA 네트워크가 무질서하게 생기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일본대로 복안이 있어야 할 것이고 한국은 한국대로 한일 FTA만 볼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FTA의 가능성을 검토해서 자기 나름대로 복안이 있어야 하고, 한일 FTA는 그러한 두 나라 FTA 전략에 교차점으로서 구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일 FTA는 그것이 디자인하는 방법에 따라서 제 3국에 반응을 플러스로 유발할 수도 마이너스로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한일 FTA에 있어서 제도 스탠더드의 인증 같은 것이 한국과 일본의 독특한 제도를 기간으로 할 때에는,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의 어떤 비즈니스 컬처에 입각한 한일 고유의 제도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제 3국들이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면 못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일 FTA의 여러 가지 요인들도 말하자면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해야 하는 것이지 두 나라만 합의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에 따라서 제 3국이 한일 FTA에 추가적으로 가입해서 한중일 FTA로 발전시킬 수 있느냐, 혹은 그렇게 안되고 오히려 중국은 한일 FTA의 여러 가지 내용상 자기들이 추가적으로 가입을 못하니까 별도로 내 길을 가겠다 해서 아세안과 FTA를 한다든지, 또 중국이 한국과 FTA를 하던가 일본과 FTA를 하던가 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양상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즘 흔히 말하는 동아시아 FTA 내지는 서태평양 FTA이라는 궁극적인 형태로 자연발생적으로 귀결되게끔 한일 FTA를 구상하자 해서 이런 전략을 먼저 갖고 거기에 따라서 하자는, 그런 어떤 비전과 기본적인 원칙이

정립이 되는 한계 내에서 조속히 추진하자고 저는 이렇게 조건을 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인적교류 활성화에 관해서 저도 당연히 동의를 하면서 사실은 이것도 FTA 내용에 혹은 FTA와 병행해서, 제가 아까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및 촉진협정 얘기도 말씀을 드렸고 또 다른 개념에서는 FTA에 자유화 개념이 빠진 촉진을 강조하는 무역과 투자의 촉진협정, 이것을 TIFA라고 하는데, 동아시아국가간에 무역수준이 더 제고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관세와 같은 장벽문제라기 보다는 여러 가지 제도나 사회적인 여건이 상충되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더 크다고 보는 사람들은 자유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촉진을 해야 한다고 보는 생각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유화는 자유화대로 추진하면서 촉진은 촉진대로 여러 가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의 일환으로서 인적교류도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일 FTA의 일환으로 한다면 거기에 노동시장의 상호개방, 노동시장에도 물론 값싼 임금의 단순노동시장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페셔널들, 여러 가지 고급인력들이 상호 경제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게 만들면 당연히 인적교류가 촉진되고도 남는다고 봅니다. 그와 같은 것을 못오게 하면서 그냥 관광만 와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의 그러한 숙련노동, 프로페셔널 차원에서의 노동시장 개방, 또 이것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으로서 서비스시장의 상호개방과 같은 것을 하면 당연히 인적교류가 활성화되고도 남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러한 차원의 인적교류는 상호 우호관계만 증진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하나의 생명력을 갖는 양국간의 경제교류 차원의 활성화가 생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 차원에서의 파일롯트 FTA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FTA 성격상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지역이 따로 무역정책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상호 경제교류, 인적교류 촉진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할수록 다다익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혹시 상호 관광산업에 관한 투자, 한국의 남해안 등은 기가막힌 천연자원과 관광자원이 많은데 아직도 제가 보기에 국제화 수준으로 발전하기에는 경영노하우 문제도 있고 일본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보는데 일본의 지방기업이 한국의 이러한 관광산업에 투자를 하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리더십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만, 동아시아의 지역협력체가 유럽이나 미주와는 달리 없는 것은 뚜렷한 리더십을 가진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이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차원에서 라이벌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이 상당한 장애물이 된다고 보고 그 이면에는 두 나라간의 정치적, 역사적 여러 이유로 인한 불신이 작용을 하

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리더십이 없으니까 못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두 나라와 한국을 포함하는 3국간의 공통된 리더십 창출을 목적으로 해서 경제교류를 추진하는 것을 해야 한다고 보면서, 모든 것을 우리가 정치가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유럽공동체를 추진한 사람은 장모네라고 하는 꼬냑을 생산하는 프랑스의 일개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전세계를 여행하고 특히 캐나다에 갔을 때 어느 지방에 가니까 이 지방에서 저 지방으로 가고 싶는데 교통수단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현지 사람에게 의논하니까 이 말을 타고 가서 그 말을 그곳에 놓고 그냥 가라, 우리끼리 이 말에 대해서는 협력이 있다, 이렇게 자원을 서로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에서 큰 효율성이 있는 것을 보고 놀래서 유럽이 경제통합을 해야겠다는 꿈을 갖고 이 분이 정치지도자들을 주말마다 자신의 파리 교외에 있는 별장으로 초대해 꼬냑을 마시면서 분위기 조성을 해서 주로 프랑스의 슈망 외무부 장관이 주요 역할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정치계 지도자들을 움직였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기 계시는 재계 지도자들께서 바로 장모네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중일간의 문제에 관해서, 유럽 EC 발전사를 보면 프랑스와 독일을 항상 중재하고 창의적인 대안을 개발하는 국가가 룩셈부르크입니다. 프랑스 통합 역사에 나옵니다. 룩셈부르크는 인구가 몇십만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뱌므로 해서 프랑스와 독일 두 나라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면서 같이 공통의 리더십 창출에 기여를 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중국과 일본만큼 정치적인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 두 나라 사이에서 이러한 중개역할을 함으로써 한중일 공통의 리더십 창출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잠재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金德吉 大永産業開發(株) 會長 : FTA에 대해서 제 생각을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이 회의에서 제가 일어로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일교포 3세입니다.

우선 이 FTA가 동북아의 안전보장과 정치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FTA의 실현이 일본과 한국의 구조개혁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지방경제, 중소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모두다 긍정적인 관점에서 봤습니다. 아시다시피 9월 11일 테러 이후 미국 부시정권이 신외교독트린이라는 어떤 강경한 외교정책을 내세웠습니다.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미국 주도의 리더십, 테러와의 전쟁, 인권 만

주주의가 확립된 세계의 실현, 이것은 미국의 어떤 고압적인 자세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한미일의 안보외교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경제적인 부분은 생략되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한국의 대기업 삼성전자 등에는 미국의 자본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자본이 교류됨으로써 안보면에서의 안전관 역할이 더욱 더 증대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러한 일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예를 들어 제트기를 공동 개발한다든지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아마 여러 가지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형프로젝트를 생각할 수 있는 소지로서 FTA를 생각하는 것이 어떨까, 물론 세부적인 사항은 있겠습니다만, 한일 양국이 제트기를 제조하자는 비전을 가져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IT산업에도 관련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한국도 지식기반산업에 이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지식기반산업도 지난번에 투자협정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물론 신뢰관계도 중요하지만 지적재산권의 보호도 다른 국가에 비하면 상당히 진전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도 어떤 제휴가 가능할 것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방안이 가능할 것입니다. 일본 입장에서 보면 아시아의 통화위기 이후 관심이 미국쪽에서 동아시아로 향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대두와 같은 공통인식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동아시아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사카에 있습니다. 오사카 동쪽에 가시면 90%의 중소기업은 어떠한 형태이건 한국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이 상당히 진전되고 있으며 시장에 대한 국제인식도 상당히 진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경제를 한국과 연계시킴으로써 구조개혁이 가능한 많은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저는 배울 바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한국에서는 한국과 일본을 생각하면 한국에서 임금이 올랐을 경우 또 엔화 약세가 되면 한일의 무역 격차는 떨어집니다. 이것은 중국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며, 한일 양국간에서는 무역 스타일이 다른 아시아 국가와는 다른 별개의 것이 되어 버렸다는 점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늘의 뉴스로 아시다시피 동티모르에서 680명의 PKO가 파견이 되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한국 PKO와 일본 PKO가 공동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한일 양국 군이 공동작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사상 초유의 일이며, 한국 PKO분들이 동티모르의 어린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학교에도 갈 수 없고 실업률도 20%가 넘어 30% 가까이 되는 정말 생활하기도 급급한 그런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침으로써 어떤 규율이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티모르에서는 한국 PKO의 평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PKO도 유도를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한일 양국이 유도와 태권도를 가르치

려는 프로젝트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면에서 FTA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면에서도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楊秀吉 韓國貿易協會 客員研究員 : 우선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서 조금 추가하고 싶은 것은 속도와 관련해서 제가 반드시 한일 FTA를 유보하고 한중일 FTA내 동아시아 FTA 자체를 지금부터 협상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한일 FTA를 디자인 하는 문제입니다. 이 때에 제 3국이 가급적 가입하고 싶은 인센티브를 만드는 그런 포물리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제 자료에서는 이것을 오픈 리즈널리즘, 개방적인 지역주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예컨대 원산지에 관한 규정 같은 것을 한일간의 산업 이해관계를 반영해서 특정산업별로 원산지 규정을 만드는 것은 제 3국의 가입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적어도 동아시아 FTA까지 자연 발생적으로 제 3국들이 가입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한일 FTA 디자인에 반영하자는 것이 제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에 안보와 정치문제에 관해서 저도 아까 모두에 한일 FTA와 같은 지역의 경제통합문제는 동북아 내지 동아시아의 안보 정치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잠시 언급을 암시한 바와 같이 지금의 어떤 정치적인 결속력이 없는 것이 경제통합 추진에는 장애가 됩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서로 경제적인 상호 의존성이 증가합니다. 예컨대 한중일 FTA, 한일 FTA를 하면 일본경제가 힘들다, 그러면 한국에게도 손해가 오는 것이고 한국경제가 힘들어지면 일본산업에도 마이너스가 오고, 그래서 서로 오히려 경제를 공동 번영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정치적인 협력을 하기 때문에 이 동북아, 혹은 동아시아의 안보 내지 정치적인 협력체제가 없다고 한다면 바로 경제통합을 추진해서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예컨대 중국까지 들어오는 동북아 FTA가 추진된다고 한다면 북한의 입장에서 자기들의 경제발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차원에서라도 이러한 움직임에 참여하고 싶은 인센티브가 생긴다고 봐서 한반도 통일문제에도 이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동아시아의 움직임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재미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 워싱턴에서 왔는데 이 곳에서 미국의 국제경제연구소장 프레드릭슨 박사와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동아시아에서 어떤 경제통합이 되면 이것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안되느냐, 특히 외교안보 리더십 발휘에 있어서, 이와

같은 의제가 토론되었을 때에 솔츠 전국무장관은 그것은 좋다, 왜냐하면 혹시 싸울지 모르는 중국과 일본이 하나의 공동운명체가 되어서 덜 싸우게 되니까 미국 으로서는 부담을 더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키신저 전장 관은 반대의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동아시아에서 협력체가 생긴다면 분명히 미국에 반대하기 위해서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한테 안좋은 것이다 라고 말 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마다 견해가 다르다고 봅니다만, 지금 동아 시아에서는 사실 동북아 정치경제협력체보다는 지금 ASEAN+3 형태로써 이미 동아시아에 어떤 정치경제적 대화의 포럼이 생긴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 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1991년에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수상이 동아시아 경 제그룹을 만들자고 주창했다가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받고 일단 철회한 바 가 있습니다만, 결국은 마하티르 수상이 얘기했던 동아시아 경제그룹의 생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당연히 경제문제는 물론이고 국제 정치, 경제, 안보 문제에 관한 교감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해서, 동아시아가 말하자면 미국의 어떤 일방적인 리더십 행사, 또 미국과 유럽 두 지역에서 세계경제를 경영하는 2극체 제에 대응해서 이것을 3극체제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며, 이와 같은 상황 에서 아마도 미국이 추구하는 목표가 우리 동아시아의 지역 이익에 부합되는 것 이라면 이것은 미국의 리더십을 보완하는 것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의 일방적인 리더십 행사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양단간에 바 람직한 것이라고 보면서 이와 같은 것도 다 이 경제통합을 추진함으로 해서 이루 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大貫 義昭(Onuki Yoshiaki) 三井物産(株) 顧問 : 그럼 방금 이시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스피드문제에 대해서 제 소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 FTA 는 역시 싱가포르의 예를 보면 2년 내지 3년으로 종결을 봤습니다만, 한일의 경 우도 그렇고 중국을 포함시킨 3국 체제의 FTA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아마 추 가적으로 2년 내지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여러 가지 내부 조정이라든지 관제문제, 기타 무역절차의 문 제, 자유화문제 등등의 토양을 만드는데 3년 내지 5년이 필요하다, 같이 FTA를 3국에서 한다는 것 보다 한일이 먼저 선행을 해서 추후에 중국이 가입을 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되면 5년 내지 7년 후에는 3개국의 FTA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수길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세계의 무역절서 형 성 방법이라고 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GATT에서 WTO 로 이행을 하면서 세계의 공동기반을 갖고 자유무역추진을 한다고 해 왔습니다

만, 우루과이라운드 시작으로부터 그렇게 간단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간 EU의 발전이라든지 NAFTA 형성이라든지 그러한 것이 나왔고 지역주의가 추진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WTO체제의 발전과 더불어 동시 병행적으로 지역적인 그러한 블록간의 협상이라는 것이 동시 다발된다는 시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FTA의 효과라는 것은 무역의 멤버에 대해서는 촉진 효과이고 외부 국가에 있어서는 전환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데, 일본도 한국도 상호간의 무역촉진 효과를 먼저 도모를 한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 EU도 가입이 상당히 늘고 있고 미국도 그것을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안을 포함시킨 아시아지역에서는 동아시아의 우리 양국이 2~3년 내에 시작을 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트여객기문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이 가능하면 좋지만 기술적인 문제, 제트여객기에 대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의 항공기 산업과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三木 邦夫(Miki Kunio) 韓國伊藤忠(株) 代表理事社長 : 한국이또추의 미키라고 합니다. 질문 또는 의견보다도 제가 이번에 참석을 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대구에 있는 식품제조회사를 방문했었습니다. 이 회사는 일본에 대한 수출을 중심으로 과일의 통조림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이제 폐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러한 말씀을 하셔서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아무리 합리화를 시켜도 중국과는 경쟁을 할 수 없다, 3할 정도 가격차이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상대가 안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조그마한 예가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중국의 대두라는 것을 계기로 해서 아시아, 세계의 산업구조가 크게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금 양수길 대사님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한국과 일본간의 FTA, 당초는 양국간에서 시작을 하겠지만 중국 또는 지역을 염두에 둔 장래를 전망한 FTA로 디자인해야 한다고 지도 생각을 합니다.

한편 무역업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FTA에 대한 큰 기대감이 있습니다. 일본 국내에서 석유산업은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북해도에 정유소가 있는 회사도 있고 큐슈에 정유소가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자기 정유소에서 나오는 기름을 큐슈에서 북해도까지 수송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동업자간에 제품을 서로 유통을 시키는 것입니다. FTA가 체결되면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그러한 제품의 유통이라고 할까요 지역적인 유통은 물론입니다만, 시간적인 유통, 한국에서는 추식이나 구정의 휴일 기간에 일본에서 협력을 하고 반대로 일본의 연말연시에는 한국에서 협력을 하는 시간적인 유통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제 김재철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자상거래를 활용해서 단시간 내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동시킨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양국이 모든 상품,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유통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되면 우리로서도 앞으로 업태를 바꿔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시이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간적인 문제, 여러 가지 양국의 국내사정도 있고 즉시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되도록 빨리 연구회에서는 타임스케줄을 우리 업계에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楊秀吉 韓國貿易協會 客員研究員 : 일본측의 오오누끼 선생님께 여쭙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일본·멕시코 FTA도 추진이 되고 있고 한일 FTA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오오누끼 선생님이 보시기에 어느 것이 먼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답변을 생각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두가지 말씀드리자면, 아까 항공산업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중국말로 백화만방이라고 합니까? 그 말을 서양사람들이 번역해서 “꽃이란 꽃은 다 피게 해라”라는 식으로, 항공산업뿐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민간 섹터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바로 한일간의 FTA 내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민간산업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산업협력과 관련시켜서 똑같은 문제는 아니고 다른 문제입니다만, 저는 특히 한일 산업계에서 공동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농업 구조조정 방안에 관해서, 서로 똑같이 골치를 앓는 문제이고 실제로 각 나라의 농촌 문제가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FTA가 가능하다고 저도 얘기를 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만, 일본과 한국이 유사한 처지에 있는 것이 한국이 그 동안에 GATA 내지 WTO에서 무역자유화 협상에 관해서 능동적인 역할을 못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태평양, 다시 말해서 APEC 차원에서의 무역자유화 노력이 있었습니다. 오사카 액션 어젠다 라는 것이 있었고 그것을 뒤따라서 15개 부문에서 완전 무역자유화 하는 것을 조기화하자 라는 EVSL이라는 것도 시도했는데 안되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한국과 일본이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지역협력에 있어서 한국은 지금 칠레와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한국정부는 칠레가 적도의 반대쪽에 있어서 농업의 시즌도 정반대가 되고 경제규모도 적고 해서 말하자면 이것은 누워서 떡 먹기다 라고 생각해서 연습삼아 해보자 해서 시작했다가, 그것이 지금 교착이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칠레 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한국 쪽에 있습니다. 칠레 쪽에서는 하자고 했는데 우리 쪽에서 그

런데 농업은 좀 보류하자 하니까 칠레는 그럼 공업을 보류하자 해서 지금 교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 내의 농업문제이기 때문에 농업 구조조정 문제로 인해서 다자협상에서도 우리가 어떤 능동적인 태도를 못 취하고 있고 APEC이라는 지역협상에서도 능동적인 입장을 못 취하고 있고 한·칠레라는 차원에서도 우리가 능동적인 자세를 못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정부가 여러 나라를 상대로 FTA를 생각을 해 봅니다만, 제가 보기에 그것이 아마도 일본과의 FTA 빼 놓고는 아마 농업문제로 인해서 제대로 한국정부가 추진을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본도 유사하게 심지어 한국과의 상대에 있어서도 농업과 어업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말하는 여러 가지 FTA가 다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멕시코의 관계에 있어서도 저는 일본이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궁금한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는 일본과 한국이 여러 가지 FTA 얘기를 호탕하게 합니다만, 실제로 정치적인 의지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이 차원에서는 농업문제로 인해서 아마 힘들 것이다, 하기 때문에 이 농업문제를 두 나라가 공통적으로 풀어가는 어떤 지혜를 짜는 연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이밍과 관련시켜서는 그 이후로 한일협정을 너무 광범위하게 모든 것을 다 망라해서 백과사전식으로 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특히 무역투자 촉진 차원에서 가능한 것은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는, 말하자면 신뢰구축, 컨피던스 빌딩 어프로치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가능한대로 하나씩 해 나가는 것도 어떤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회자께서 중국의 위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에서도 중국이 저렇게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면서 등장하는 것을 위협으로 보는데 저는 그 반대의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이 저렇게 성장을 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마치 100년의 미국의 동부에서 볼 때 서부가 개발되고 열리면서 새로운 기회와 시장이 생겼던 것과 같다는 생각이 되어서 저는 중국의 고도성장을 기회로 봅니다. 단지 거기 위기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경제가 내부적으로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 중국의 인구가 13억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2~3억이 거의 실업에 해당되고 지금 중국의 농촌에도 유랑자가 이동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중국에도 1년에 3만건 이상의 파업과 노사분규가 벌어지고 있어서 이것이 상당히 강압적으로 억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중국의 구조적인 취약점은 마치 아시아 금융외환위기 전에 한국이라든지 동남아가 갖고 있던 구조적인 문제들과 유사한데 오히려 그것보다 심각성이 큰 문제들이라고 생각되어서, 만일에 이 중국의 구조조정 문제가 혹시 WTO 가입으로 좀더 악화되어서 중국경제가 불안화가 되

고 중국경제가 붕괴한다면 이것이 일본과 한국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는 바로 거기에 중국의 위협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중일 FTA를 추진한다면 이것이 중국의 그런 의미에서의 구조조정 문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거기에 또 하나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大貫 義昭(Onuki Yoshiaki) 三井物産(株) 顧問 : 오늘은 한일 문제이기 때문에 멕시코 문제는 안 나올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데이터를 가져오지 않았고 또 아는 바도 별로 없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견해로 말씀드리면 저는 멕시코와의 FTA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국쪽이 훨씬 더 빨리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역구조를 보면 일본측은 멕시코로부터 농수산물이라든지 천연자원이 중심으로 들어오고 또 일본에서 수출하고 있는 것은 공업제품의 중간재가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조립되어서 미주 지역, 북미지역에 수출되는 기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업제품의 중간재의 수요는 물론 있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토양도 저쪽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쪽에서 보면 농산물, 천연자원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과의 협상하고는 별개의 차원인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진전이 전혀 안된 상태입니다. 제 동료가 그 공동연구의 멤버이기 때문에 다시 동경으로 돌아가서 자세하게 물어보고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멕시코와의 문제, 칠레와의 문제는 좀처럼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程 勳 仁川大學校 教授 : 저는 인천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정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오누끼 좌장님의 논문에 국한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일 FTA를 향한 일본 경제계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 FTA에 관한 일본의 사정과 대비해서 한국의 사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은 한국에도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세계 많은 나라가 지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다소 불안감을 느끼고 일본에서 먼저 제의한 한일 FTA 체결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한일 FTA가 체결이 되려면 체결에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는데 오오누끼 좌장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직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일본에 대한 무역적자가 적지 않고, 또 양국 산업구조나 무역구조가 대단히 경쟁적이다 하는 점 때문에 분위기 조성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한국의 신문에 보도된 바를 보면 2001년에 처음으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이 대 일본 수출액을 능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2년에도 중국이 일본을 앞질러서 한국의 제 2의 수출 대상국으로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FTA 체결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한국 국민들의 이러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양국간의 무역, 투자, 기술교류 등의 분야에 있어서 일본의 역할이 더욱 기대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에 쌍무적 투자협정이 체결되었으므로 앞으로 양국간 투자가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FTA로 가기 전의 과정으로서 한일 기업간의 전략적 제휴를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양국이 서로 비교우위를 지닐 수 있는 그런 산업 및 무역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한국의 대일 수출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에 아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복잡한 통관절차, 비관세장벽을 과감하게 줄이고 또 가능한 한 일본의 내수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데 국민들이 투자나 소비를 보다 활성화 시켜서 해외 특히 아시아로부터의 수입이 늘어나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저는 일본이 지금보다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농산물이라든지 이러한 다소 사소한 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향을 버리고 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양국의 FTA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오오 누끼 좌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大貫 義昭(Onuki Yoshiaki) 三井物産(株) 顧問 : 상당히 중요한 점을 지적해주셨습니다. 현실적으로 FTA 논의가 진전이 되면 무역적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통계 숫자가 달라서 일본쪽에서 시산하면 100억불 정도가 수입초과가 되고 있습니다. 공업제품에서는 8%와 3%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면 더욱 더 적자가 될 것이 아닌가 라는 논의가 나올 것은 예상됩니다. 물론 그것은 어느 정도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FTA를 체결했을 때에는 그 당사국간에는 무역불균형이 물론 단기적으로는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증가하더라도 동시에 무역투자라든지 그 밖의 면에서 자유화가 이루어진다면 결국 서로간의 상대방의 기술을 도입할 수 있고 또 자금투자를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양국의 국제경쟁력은 강화될 것입니다. 기술력이 낮은 국가간의 체결이면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다만, 한국과 일본 같이 선진국간에 그런 것을 체결하면 경쟁력 효과가 더욱 더 증대됩니다. 그 결과 한국기업의 경쟁력도 제고되며 일본과의 무역에 있어서도 서서히 그런 것이 수정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 무역적자 문제의 취급에 대해서는 지난 번 10월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무역적자 해소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전망을 저희가 갖고 있었는데 다만 무역수지 문제에 대해서는 양자간의 무역협정을 맺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해소의 방안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수지의 문제는 한국으로부터 대중국 수출이 100억불 정도가 플러스되었고, 또 일본은 대중국 수입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100억불 가까운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이분이 되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화수지의 분산 방안으로 본다면 이 삼각구조의 균형이 굿밸런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3국간의 FTA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분간은 그와 같은 격차가 나옵시다만, 반드시 해결될 것입니다. 그것에 너무 사로잡히면 양국간의 경쟁력은 늘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楊秀吉 韓國貿易協會 客員研究員 : 한국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발언하면서 다른 한국사람들과 상반되는 견해를 자주 발표해 왔는데, 한일 무역적자 문제에 관해서 정훈 교수와 입장이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과 한국의 무역관계를 보면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무역적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한국에게 이 한중 무역불균형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를 자꾸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우리가 지난 40년 동안 일본에 대해서 해 오던 관계, 요구하던 것과 똑같은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흑자를 보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부터 자본재, 원자재, 부품 수입을 해서 그것을 투자하고 가공해서 전세계에 수출하고 특히 중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쌍무간의 무역불균형의 그 공과는 그것이 우리나라의 총체적인 무역불균형이 어떻게 기여를 하느냐 그 관점에서 봐야 하는 것이지 쌍무적인 관계만 보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마다 모두 균형을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봐서 우리나라가 흑자가 되면 좋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난 40년 동안 혹은 30년 동안에 대일 무역적자가 나쁜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아까 제가 발표 때 말씀드린 한국의 3강 무역구조의 하나의 불가결한 요인이었던 것이며 좋았던 것이다, 그래서 소위 대일 무역 수입선다변화제도가 잘못된 제도였다고 말씀드린 취지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사람들과의 토론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미국이나 전세계를 대상으로 엄청난 흑자를 보고 있는데 한국에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것을 위한 것이다, 만일에 한국으로부터 수입을 안해 보아라, 또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안해 보아라, 그럼 당신들의 무역흑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아까 우리 한일 관계를 얘기할 때 항상 한중일 관계를 염두에 두고 한중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적어도 동아시아를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자, 한일 FTA 협상에서도 바로 그 점을 생각하자고 말씀드린 것이 이러한 취지였습니다.

지금 정훈 교수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국 산업계에서는 한일 FTA에 관해서 굉장한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 지도자들 전에서는 한일 FTA를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지지를 하십니다만, 산업 현장에 가면 굉장한 불안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불안감 중에는 잘못된 이유도 있고 올바른 이유도 있는데, 지난번에 오오누끼 좌장님 만나기 전에 한국 산업계의 실무 대표들을 만나니까 당신들은 한일 FTA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불안하다, 왜 불안하냐, 무역역조가 걱정이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무역역조가 문제가 되더라도 그것은 국가적으로 걱정할 일이지 당신은 당신네 산업만 생각해서 얘기해 보라고 애기한 적이 있습니다. 잘못된 이유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한국기업이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법의 하나가 만일 이것이 한중일 FTA로 확대되는 경우에는 한일 관계의 경제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하면 우리가 일본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일 협력의 성과를 갖고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이 더 넓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계속 한일 문제를 얘기하되 우리 마음 속에는 글로벌한 픽쳐, 특히 동북아에서 한중일 관계를 생각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비관세장벽에 관해서 얘기들을 하고 있고 또 한국의 산업계 몇몇 학자들은 한일 FTA가 한국의 성과를 가져오려면 그 한일 FTA의 내용으로서 일본의 비관세장벽을 철폐를 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그렇게 되면 한일 FTA는 긍정적인 것이라고 말들을 하는데, 저는 일본의 비관세장벽 자체가 이것이 쌍무간의 협정으로 해소될 수 있는 것인지 생각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소위 말하는 일본의 비관세장벽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경제사회구조가 경쟁을 억제하는 그러한 체제로 그러한 분위기에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문제이며, 이것은 일본의 경제개혁의 문제이다, 또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일본경제 구조개혁 없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본의 비관세장벽 문제 이것은 풀기 힘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일본정부의 경제개혁에 관한 좀더 과감한 접근과 성공을 기원하면서 이것이 적어도 앞으로 4~5년 내에는 상당히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

봅니다.

佐伯 嘉彦(Saeki Yoshihiko) 日本貿易振興會 副理事長 : 일본무역진흥회의 사
에키라고 합니다. 귀중한 의견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 대사님께서 말
씀하신 중에 한일중, 동아시아를 시야에 두어야 한다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오픈 리저널리즘이라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단순히 FTA, 무역의 자유화라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초월해
서 어떤 지역간의 일체감, 신뢰감, 그리고 서로 차별감을 갖지 않는 사회를 만들
자는 것이 최종적인 큰 목적이 아닐까, 그것이 동아시아 공동체가 아닐까 생각합
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광범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발전단계의 차이라는 것이 있고 각 국가마다 발전단계를
보면서 거기에 맞춰가면서 진행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아시
아를 볼 때 일본과 한국처럼 가까운 관계, 비슷한 발전단계에 있어서나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그러한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국과 일본
이 가장 현실적인 FTA를 체결하는데 현실적인 존재가 아닐까 라고 보는 것입니
다. 중국은 당연히 시야에 두어야 합니다만, 아무래도 시간적인 차이라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는 동아시아 FTA도 중심으로
미국에서도 NAFTA가 생기고 그 다음에 FTA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FTA는 반드시 NAFTA에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NAFTA와 FTA를 동시에 한다
는 관계죠. 칠레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충적으로 진행된다, 다
같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최종적인 목표이고 거기까지는 단계별로 진행시킬 수가
있지 않을까, 일한간에 있어서도 한국이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논의
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NAFTA에 있어서 멕시코를 볼 때 이 논의맥락에서
보면 멕시코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있었을텐데 현실적으로는 NAFTA 덕분에 멕
시코가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현실 문제로 말씀드리면 한국과 일본 사
이에 소득격차라든지 임금격차라는 것을 생각하면 한국이 결코 일본에 대해서 충
분히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공포감은 일본측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한간의 차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EU에 폴란드가 가입을 한다고 하
는 것입니다만, 폴란드의 1인당 소득은 한국의 절반입니다. 그러한 갭이라고 하
는 것은 EU에서도 상당히 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일본과
한국 사이의 차이라는 것은 극복하지 못하는 차이가 아니다 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방금 지적하셨습니다만, 구조개혁의 추진입니다. 서로가 이 구
조개혁에 힘써 나가는 과정에서 이 FTA는 상당히 큰 자극이 된다는 것이 중요

하지 않을까, 실은 제 자신이 일본경제가 이대로 가면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종전의 의식을 계속 갖고 있으면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여러 가지 일을 도입해서 그것을 소화하지 않으면 일본의 발전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다이너미즘이라는 것이 여러 문화 차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나라에서 여러 가지 일을 도입해서 거기서 공존을 한다, 그러한 사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다이너미즘이 있는 것이지, 우리는 적어도 일본과 한국 정도는 같이 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다이너미즘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일본경제의 미래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일한간에 농업문제가 상당히 문제시되고 있습니다만, 오오누끼씨도 말씀하셨듯이 일본의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0% 이하입니다. 이것은 한국측에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측을 설득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일본측도 농업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하면 이 문제는 90% 이상은 자유화된다는 것이 WTO의 경향입니다만, 이것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로 방금 오오누끼씨도 말씀하셨습니만, 일본의 농수산물의 수입으로 한국은 2001년에 1929억엔이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중국으로부터는 9200억엔으로 4.5배 정도라는 것을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피드 문제가 나왔습니만, 아무래도 한일 정부간에 검토를 하게 되었다는 것은 환영합니다만, 타임스케줄이 거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업계로서도 타임스케줄을 정해놓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진지한 논의가 되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타임스케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U의 경우에도 대중의 희망에 따라서 자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각국의 리더들이 선진성과 지도력을 발휘하여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일한간의 정치, 산업 차원의 리더들이 신뢰감을 구축해서 리더십을 발휘하여 추진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權寧旭 韓國貿易協會 東京支部長 : 한국무역협회 도쿄지부장 권영욱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오누끼 선생님께서 저희 주일한국기업에 대한 애로사항도 일본국내 애로사항 해결차원에서 검토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 지난번에 비교해서 많이 진전된 점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한일 FTA를 추진함에 있어서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단기적이냐 장기적이냐 하는 것은 별도로 얘기하더라도 당연합니다. 먼저 일본쪽에서 봤을 때 양국간 FTA를 산업구조조정을 본격화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일본은 상당히 인구 노령화로 인해서 머지않은

장래에 노동인력의 부족현상을 겪을 것이며, 현재 모든 것을 만드는 폴세트 경제 구조를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종으로 개편해야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국도 일본과의 FTA로 여러 가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FTA는 관세철폐 이외에도 비관세장벽의 개선, 통상제도 선진화를 도모할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일본의 고관세품목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겠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일본의 높은 비관세장벽이 개선됨에 따라서 우리의 주력 수출상품에 대한 수출이 증가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익이 초래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한일 FTA의 핵심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농업과 비관세장벽, 특히 한국측에서 볼 때 그렇게 됩니다. 농업문제는 지금 발표하신 분들도 한 분은 쉽지 않다는 말씀을 시사하셨고 한 분은 어렵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농업은 앞에서도 질문하셨지만 양국간의 리더십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강하게 갖게 됩니다. 그러나 비관세장벽에 대해서는 야카 양 박사님께서 비관세장벽은 일본의 산업구조와 맞물려서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는 말씀, 또 어떤 제도적인 개선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비관세장벽이라는 것 자체가 인비저블하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사실은 제도적인 어떤 일본의 결단, 어떤 이해가 있다면 해결될 수 있는 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단기적으로 나오고 있는 한국측의 불안감, 어떤 사람들이 장사를 하려면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보고 중장기적으로는 이익을 본다면 그 사람은 장사를 합니다. 이것이 일본측의 입장인 FTA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한국측은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이득이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손해가 될 듯해서 불안한 입장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불확실성과 단기적으로 손해보는 것을 단기적으로도 중장기적으로도 이득을 보는 쪽에서 배려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FTA 비관세장벽에 야카 어느 것이 과연 실질적으로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가,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먼저 한국측에서 차량이 일본과 한국을 페리호로 오가고 있습니다만, 승용차는 서로 어느 정도 마음만 갖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오고갑니다. 그런데 이른바 특수차량이라고 해서 냉장차, 화선어차량은 일본차량은 페리호를 통해서 한국 국내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차량은 일본국내를 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환경문제, 매연문제 등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한국도 잘 아시겠지만 연간 250만대씩이나 자동차를 만드는 자동차 생산 대국인데 과연 그것이 일본 국내기준으로 볼 때 그런 문제점이 정말 심각한 문제점인가 하는 것을 과감히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한국의 인터넷 업체들이 일본에서 IT 산업을 하려고 보면 IT 기술자의 비자문제 등이 여기 들어올 때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개선점이 많지 않은가 생각되고, 이것이 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일본의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 주일한국기업의 주재원들이 일본에 1,000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이 운전면허를 한국에 있는 면허증이 그대로 인정을 못받고 처음부터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어느 정도 배려되었다고 하지만 우리 주재원들이 실제 시험을 치러보면 필기시험, 실기시험을 똑같이 봐야 하는데 여기 와서 주재원 생활하면서 굉장히 바쁜 가운데 시험 보러 가기도 어려운데 일본에서는 그 이유를 OECD 국가 중에서 사망사고율이 가장 높은 나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도 창피하게 생각되기도 했었는데 그러나 운전면허증 관계도 한국내 운전상황과 일본내에서 실제로 운전하는 상황이 꼭 같은 것은 아니고 또 한국도 점점 매너가 좋아지는 관계도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배려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비관세장벽에 대한 것을 지금 일본에 있는 시각과 제도로 개선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해 보니까 1년간 걸려도 진전이 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FTA를 위한 일본측의 어떤 별도의 시각을 각별히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鄭圭寅 京畿北部商工會議所 會長 : 한국경기북부상공회의소 정규인 회장입니다. 오오누끼 좌장님과 양수길 대사님의 심혈을 기울으신 명쾌한 강연을 잘 들었습니다. 두 분의 강연을 들으면서 한일 FTA는 거시경제적 이익과 개별 산업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양국에 모두 이익이 되는 Win Win 전략 하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저는 선생님들의 강의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방법론적인 추진 전략도 중요하지만 양국이 FTA에 접근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더욱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EU에서 오랜 시간과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고 오늘날 성공적인 통합체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자국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대국적인 면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역내 통합에 앞장섰던 독일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할 한일 FTA도 결국 이러한 노력과 리더십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경제규모에서 한국의 약 10배, 중국의 4배에 이르는 무역흑자의 경제대국인 일본이 보다 전향적이고 대국적인 관점에서 자국의 이익에 얼마간의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역내 리더로서의 역할을 인식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때만이 FTA, 나아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타임스케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도 계셨는데 타임스케줄을 짜놓고 거기에 맞추는 것 보다는 양국이 계속 협의를 하여 결과를 도출해 내는 그러한 여유 있는 타임스케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또 생각합니다. 하나의 예로 우리 농부가 배추 한포기를 심어서 가꾸는데도 물론 자연환경, 수분, 일조권 같은 것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농부가 정성들여 주는 희생적인 거름, 비료가 있어야 배추가 잘 자랍니다. 이와 같이 일본측에서도 농부만 되지 말고 농부에 플러스 비료가 되어서 이 FTA를 성공적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면서, 오오누끼 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大貫 義昭(Onuki Yoshiaki) 三井物産(株) 顧問 : 무엇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양수길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본의 비관세장벽 문제는 간단하게는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조개혁 문제와 관련됩니다. 그야말로 고이즈미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단에 이르기까지의 효율성을 여하히 추구하는가는 국가와 조직의 문제입니다. 아까 면허증 얘기도 나왔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면허증은 영국에서 40년 전에 딴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일본 면허증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야단을 맞아서 40년 전에 만든 영국 면허증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것을 발급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초보운전자 표시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검사도 그렇습니다.

양자간에 쌍무적인 FTA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많습니다. 하나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일본의 디스트리뷰션 채널로 지금으로부터 10수년 전에 한국산 TV가 많이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언젠가 판매가 부진하게 되었는데, 저는 KOTRA와 한국에서도 일본인회의 회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요는 애프터서비스 기간이라든지 그런 것이 회사마다 제대로 정비가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도적인 미비점, 차량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부착을 해라 하는 엄격한 기준이 있는데 그와 같은 기준과 함께 일본의 기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애프터서비스 체제를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하자면 지구별로 TV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찾아갈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만들어진 것은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모두가 함께 기타 관동 지역에 한군데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비스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합동적인 애프터서비스 기구는 안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일본 고객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프터서비스 면에서도 경쟁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고객은 제대로 따라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차차 그러한 식으로 체제가 정비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양 박사님과의 말씀을 나눴는데 무역장벽을 바꾸고 그 다음에 FTA를 추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역시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관세장벽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일본에 있어서의 유통문제, 한국의 노동문제 같은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먼저 문제를 해결하고 FTA를 하는 것이 아니라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양국 문제를 밝혀내고 일본의 조작을 관리하는 관료들에게도 그것을 건의하고 실제로 바꾸는 것이 실천적인 방안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의 요망에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발자국 두발자국 FTA를 향해서 나아간다면 반드시 자본과 기술의 이전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을 향해 움직일 것입니다. 그러한 것 없이 탁상공론만 하면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언제까지도 비관세장벽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楊秀吉 韓國貿易協會 客員研究員 :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성이 중국 성이고 이름은 일본 이름이어서가 아니고 동북아 경제공동체에 대해서는 어떤 숙명적인 불가피성을 여러 가지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기본축이 한일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일 관계의 어떤 숙명적인 불가피성은 제가 특히 1998년부터 작년 초까지 OECD 대사로 근무하면서 스스로 체험을 했는데 아시는대로 OECD는 기본적으로 서구의 백인들의 기구입니다. 거기에 유일하게 백인이 아닌 나라가 일본과 한국이었는데, 거기서 3년 가까이 근무하다 보니까 많은 국제적인 문제가 제기되는데 그 대부분에 걸쳐서 일본과 한국의 인터레스트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OECD가 선진국들 신사 클럽이라고 합니다만, 거기에도 말하자면 작당을 하는 것이 있어서 결국은 백인들끼리 물려다니는 성향이 있고, 거기에서 일본이나 한국의 인터레스트는 짐짓 자꾸 모른체 하는 경향이 있어서 기를 쓰고 발언을 해야지만 겨우 들어주는 식이고 해서 일본이나 한국의 정치적인 행정력이 약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생각해 보면 세계 정치 경제 질서가 다 백인들이 만든 질서입니다. 여기에서 미국은 원래 다원적인 사회이고 민주사회이니가 기본적으로 선량한 헤지먼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때때로 보편타당성 있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점을 가끔 느끼고 있어서 미국의 일방주의 애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아시아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나 유럽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인구상으로 볼 때 미국

과 서유럽으로 대변되는 백인 사회는 굉장히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세계 정치경제 질서를 해 나가는데 있어서 말하자면 비 백인의 어떠한 인풋이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렇게 거창하게 안보더라도 한국과 일본의 공동된 이익을 반영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재직하는 동안에 저의 카운터파트가 되는 일본 대사는 처음에는 노가미 요시이씨였고 니시무라 요시이씨였는데 두 분 모두 저와 절친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제가 OECD에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일본과 한국은 공동운명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단기적으로 볼 때 특히 한일 FTA를 놓고 얘기하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산업계에서는 근본적인 어떤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고 세 자신도 여기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한국경제에 주는 이득이 확실하다는 확신이 안선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득을 취하도록 노력하자는 것이지요. 그 중에 좋은 예가 아까 비관세장벽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FTA를 함으로 해서 한국시장은 분명히 개방되는데 일본시장이 실효성 있게 개방되느냐가 확실치 않다는 것입니다. 왜 확실치 않느냐, 이것이 쌍무적인 협상에서 해결되었으면 벌써 해결되었을텐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이죠. 지금 비관세장벽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갖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책은 파악하지 못하는데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도깨비나 귀신 보고 하는 얘기나 똑 같습니다. 실체를 모르면서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FTA 협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 실체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본의 경제사회구조, 문화적인 특성 같은 것이 아닌가, 또 정치문제도 관계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통문제에 관해서 언급하셨는데 이것이 제가 느끼기에는 정치문제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결국은 일본의 구조개혁 문제다, 그런데 이것을 한일 FTA를 빙자해서 해결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개에게 꼬리가 몸체를 흔들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어떤 무리라는 느낌이 있어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이고 또 한국업체도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일본정부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 메이지유신 이후에 많은 개혁을 해온 기본적인 키가 개혁의 활용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을 활용해서 오늘날 일본경제를 성장시켜 왔는데 최근에 이런 개혁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은 한국과 뿐만 아니고 멕시코, 싱가포르 등 잠재적으로 여러 나라와 FTA를 하고 싶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고 여러 FTA를 같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여러 가지 FTA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결국 일본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라는 이런 논리를 개발하시면, 그래서 개혁을 창출해 내시면 어

편가, 그래서 예컨대 일본의 경쟁정책을 개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결국은 아까 오오누끼 선생남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고이즈미 총리 정권 혹은 다른 정권의 어떤 총체적인 개혁 의지와 상관이 된다, 그리고 한일 FTA만 얘기하면 영향력이 적으니까 여러 가지 FTA를 같이 얘기하시면서 일본의 그러한 제도를 개혁하고 예컨대 경쟁정책 자체를 그런 문제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활용하도록 개편하자는 구조개혁을 내도록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시켜서 참고로 유럽이 지금 그러한 여러 가지 규제체제의 상충에 따른 교역장벽, 투자장벽을 1994년에 소위 단일 유럽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규제체제를 단일화한 것은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게다가 통화까지 통일했으니까 완전히 유럽은 경제적으로 한나라가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싱글 유럽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써 기반이 되는 것이 체킹 인 리포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2백 몇가지 모든 규제제도를 하모나이즈, 개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스페인에서 의사 자격증을 딴 사람은 불란서에서도 의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한 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을 일본의 산업계, 또는 한일 산업계가 공동으로 한번 총체적인 그런 구조개혁 문제를 연구해서 부분적으로는 FTA에 반영시키고 부분적으로는 또 다른데 반영시키는 이러한 공동작업을 하는 것이 어떤가, 일본과 한국은 좋은 면, 나쁜 면에서 너무나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문제로 인한 장벽도 일본이 심하다고 말합니다만, 한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같이 풀어나가는 것이 얼마나 좋겠는가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인적이동의 자유화, 막노동은 아니고 숙련노동이라든지 프로페셔널들의 이동을 자유화해서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하는 것, 이것은 제가 보기에 인적교류의 차원에서 이러한 경제통합에 플러스효과를 창출하는 면에서나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본의 고령화라는 장기적인 현실을 볼 때에도 이것이 일본에게도 큰 혜택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을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麻生 泰 코디네이터 :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아직도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양측 코디네이터로부터 마무리 발언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두 분께서 기본이 되는 생각을 발표해 주셨습니다만, 아무래도 이번 일한간의 FTA 문제는 역시 농업이라든지 산업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나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러한 FTA를 추진하느냐, 경쟁의 결과 시장에서 퇴출을 하게 되는 것도 우려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리더십, 비전, 글로벌한 또는 국가로서의 비전, 전략 같은 부분에 상당히 관련이 있는

것이고, 정치가는 정치가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는 비즈니스는 이러한 아픔을 수반합니다만, 산업계에서 바람직한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까요 서로에게 이익이되는 비전을 만들고 그 비전 위에서 리드를 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 라고 평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양 선생님께서로부터 일한간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아세안, 중국, 이러한 전략을 갖고 그것을 수용한다는 전제 하에 양국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역사상 하지 못했던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경제상황 하에서 우리가 현역 비즈니스맨으로서 일을 넓은 시야를 갖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역 비즈니스맨으로서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의 기회로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한국측 코디네이터에게 파이크를 넘기겠습니다.

金都亨 코디네이터 : 이제 FTA 문제는 각론에 들어가야 할 단계에 와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토론하는 과정에서 일부의 토론자들 혹은 청중들께서는 했던 얘기 또 하는 것이 같은 얘기 아니냐, 아무런 진전이 없다는 의견도 일부 계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워낙 센서티브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컨셉부터 확인하고 인식을 공유하고 이런 장을 계속해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국간의 무역적자 문제를 다자 차원에서 봐야 한단든지 또는 비관세장벽 하나만 하더라도 그것을 양자간에 해결하는 것은 문제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글로벌한 차원에서, 또 경쟁적책을 수행한다는 관점에서 구조개혁과 연결시켜서 해결해야 한단든지 하는 제안들, 이것은 우리가 공히 공유해 가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농업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역시 제조업만 모이니까 농업에 관한 견해들이 굉장히 소극적인 입장이고, 또 제가 하나 확인한 것은 역시 일본이 농업에 관한 한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에 관해서 관세장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하는 WTO 24조 해석에 관한 한 굉장히 소극적인 입장을 아직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더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전지역, 어느 일부 지역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제안을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에서는 오히려 숨을 죽이고 있는 이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보다 더 적극적인 토론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가해서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상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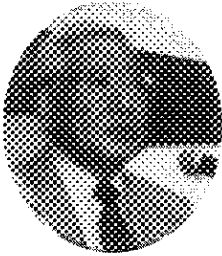
麿生 泰 코디네이터 :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 2분과회를 마치겠습니다. 발표자 두 분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통역을 맡아 수고해 주신 두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장시간에 걸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司會 : 김도형 교수님, 아소 사장님, 장시간에 걸친 코디네이터역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분과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2분과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XI. 全體會議 ②

1. 日本側 主題發表 ①

「히로시마(広島)의 經濟 概況에 대하여」



山本 和郎 (Yamamoto Kazuo)

広島商工會議所 副會頭, 広島TV放送(株) 會長

1. 서 론

히로시마상공회의소 부회장인 야마모토입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의 경제계를 대표하시는 여러분을 모시고 이 곳 히로시마(広島)에서 「제34회 한일·일한경제인회의」가 개최됨을 히로시마 경제계를 대표하여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이렇게 여러분께 「히로시마의 경제상황에 대해」 설명해 드릴 기회가 주어진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 물의 도시, 히로시마 ~히로시마의 자연환경·도시환경~

(2. 1 위치)

경제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히로시마의 풍토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히로시마는 일본열도 본토의 서부에 위치하며, 세토나이(瀬戸内)해에 접해 있는 추시코쿠(中國) 지방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서, 또한 산업, 교통의 요충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서(西)일본의 중추도시입니다.

도쿄(東京)로는 동쪽으로 800km, 비행기로 1시간 거리. 오사카(大阪)까지는 400km이며 신칸선으로 1시간 반 거리. 후쿠오카(福岡)까지도 300km, 신칸선으로 1시간 거리이며, 일본의 주요 도시들과 불과 약 1시간 거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도 비행기로 불과 1시간 반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2. 2 기후·인구)

다음으로 기후에 대해서는, 세토나이해에 접해 있어 연중 온난하며 1971년부터 2000년까지의 평균치는 겨울철 1월의 평균기온이 5.3℃, 여름철 8월의 평균기온은

27.9℃, 연 평균기온은 16.1℃입니다. 또한, 강우일수가 22.5일로 비교적 적고 일조일수가 많습니다.

서울은 겨울철 1월의 평균기온이 영하 4.9℃, 8월의 평균기온이 26.1℃, 연 평균기온 11.1℃이며, 히로시마가 서울보다 약간 따뜻합니다.

인구는 2000년 국세조사에 따르면 히로시마시가 113만명, 히로시마현은 288만명, 히로시마현/오카야마(岡山)현/야마구치(山口)현/시마네(島根)현/돗토리(鳥取)현의 다섯 현을 포함한 추고쿠(中國)지방 전체로는 776만명으로, 상업적으로도 대단히 매력적인 시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3 물의 도시, 히로시마)

히로시마는 아름다운 다도해로 유명한 세토나이해가 앞쪽에, 또 뒷쪽의 서(西) 추고쿠지방 산지(山地)에 근원이 있는 오오타가와 델타(太田川三角洲)가 열려 있어 시내에는 6개의 강이 흐르는 아름다운 「물의 도시」입니다. 추고쿠지방 산지에는 큐슈지방의 많은 분들이 즐겨 찾는 스키장과 캠프장이 곳곳에 있으며 세토나이해에서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도 있어, 야외캠핑 혹은 스포츠 애호가들에게도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3. 산업도시, 히로시마

(3. 1 역사적인 배경)

이상, 간단하게 히로시마의 풍토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그럼, 본 주제인 경제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이지(明治)시대 초기부터 히로시마는 관영(官營) 방적소를 제외하면 우산, 성냥, 바늘, 염색 수건 등 생활 밀접 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그 후 새로운 산업으로서 도료, 고무 등의 화학공업, 조선 및 항공기용 엔진 제조를 비롯한 중화학공업이 새롭게 대두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경공업 색채가 짙은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고 근대적인 대공업은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만, 1950년대 중반부터 자동차산업을 비롯한 일반기계 등 중후장대(重厚長大)형으로 변화하여 산업의 우등생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대적 추세로 인해, 현재의 산업구조가 시대에 걸맞지 않아 구조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3. 2 산업구조)

현재의 산업구조를 보면 히로시마시는 도배·소매업을 중심으로 한 제3차 산업

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81.2%. 제2차 산업의 비율은 18.6%. 제1차 산업의 비율은 0.2%입니다.

제2차 산업 중에서도 제조품의 출하액을 보면 수송용 기계기구, 일반기계기구를 합하면 전체의 약 60%이상, 자동차 제조업 및 관련상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3차 산업 중에서 도매업의 업종을 보면 전체의 반 정도를 광물, 금속재료가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기계기구, 자동차 순입니다.

히로시마에는 일본에서 자동차 생산대수 6위를 차지하는 자동차 메이커 「마즈다(マツダ)」의 본사공장과 자동차관련부품 메이커들이 밀집해 있어 광물 등의 원자재를 제외하면 관련기업에게 부품 등을 납품하는 기계기구 도매 비율이 높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유사한 지방 중추도시의 후쿠오카, 센다이(仙台), 삿포로(札幌)와 비교해도 히로시마는 제2차 산업 비율이 높고 「제조」산업이 밀집해 있다는 특징을 들 수 있습니다.

대체로 히로시마의 산업은 도매·소매업을 중심으로 한 제3차 산업과 기계·금속계 제조업의 제2차 산업이 균형을 유지하면서 발전해 온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제의 소프트화, 서비스화에 따라 서비스업의 발전이 눈부시며 크게 신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로시마의 산업은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환율시세 변동이나 아시아 국가들의 공업화를 비롯한 국제적 경제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최근의 경제불황과 소비침체에 따라 국내 제조업체들은 제품의 비용절감과 품질향상이 요구되며, 저렴하면서도 고품질 상품의 세계조달이 진행되면서 히로시마 제조업의 공동화(空洞化)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 업체들은 생존을 걸고 해외사업 전개, 혹은 위탁생산에 의한 비용절감을 도모하여 위기 극복에 힘쓰고 있습니다.

(3. 3 주요산업)

자동차산업을 비롯한 고도 기술은 근대 100년의 역사에 있어 조선이나 기계공업 속에서 발전하고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중화학공업 이외에도 히로시마에는 독특한 산업이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산업, 산업용기계·공작기계 등의 일반기계공업, 목재가구, 조선, 주물, 식품, 고무제품, 바늘 등의 분야에서 산업기술이 집적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동 부속품을 포함한 자동차산업의 제조품 출하액 등은 8,023억엔으로,

히로시마시 전체의 40.8%를 차지합니다. 히로시마시의 기계공업은 제철기계, 원동기, 포장기계 등의 산업용 기계나 공작기계를 비롯하여 폭 넓은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히로시마현 동부의 후츄(府中)시, 후쿠야마(福山)시, 그리고 히로시마시는 목재가구의 산지로도 유명합니다. 특히 히로시마 지구는 16세기 후반부터 오랜 전통을 자랑하며 품질, 디자인, 도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히로시마의 독특한 특산품으로는 불단(佛壇)을 들 수 있습니다. 불단은 지금의 와카야마(和歌山)현에서 히로시마로 이주해 온 칠기(漆器) 장인들에게 불단 제조를 장려한 것에서 비롯, 현재에는 전국에서도 유수의 산지로서 현 밖으로도 다수 출하하고 있습니다.

고무제품은 쇼와(昭和)20년대('45~'54)까지는 고무신발과 군수를 배경으로 한 스포츠 고무가 주류였지만, 쇼와30년대('55~'64)에는 구기(球技)용 고무공 생산이 시작되어 국제적 지위를 확보한 것 외에도 자동차 부품용, 공업용 고무제품의 생산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늘 종류는 17세기 전반에 중국에서 나가사키(長崎)로 전해진 제조기법이 히로시마현에 도입된 것이 시초로 여겨지고 있으며, 주민의 소득확보를 위해 제조를 장려하고 오사카의 도매업을 통해 전국에 판매되었습니다. 마침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독일로부터 바늘 수입이 중단되어 히로시마의 바늘 생산이 비약적으로 증대하면서 타 산지를 앞지르고 바늘 산지로서의 지위를 부동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붓의 산지로서 쿠마노쵸(熊野町)가 유명하며 전국의 90%를 차지합니다. 또한 미야지마(宮島)에 모셔 놓은 신이 '양조의 신'인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히로시마는 일본술의 산지이기도 합니다.

이상과 같은 히로시마의 전통적인 산업 외에도, 벤처기업 육성 혹은 산업구조의 고도화, 다각화를 도모하기 위해 신산업 유치, 창출을 위해 국가·현 등의 행정과 협력하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새로운 산업이 탄생할 기반으로서 대단히 풍요로운 곳입니다.

(3. 4 도시환경(중추성))

<3. 4. 1 히로시마공항의 국제·국내 정기노선>

히로시마의 도시환경을 보면, 히로시마 공항에서는 한국의 서울, 중국의 대련·북경, 상해·서안, 홍콩 등으로 3편이 취항중이며 기타 싱가포르, 하와이의 6노선의 국제선이 주 20편 취항하고 있습니다.

국내선은 히로시마 공항에서 도쿄, 삿포로, 센다이, 나하(那覇), 이시가키(石垣)

등, 계절운항을 포함하여 8노선이 매일 23편 취항합니다. 히로시마 공항 외에도 히로시마에는 커뮤터(소형여객기) 전용공항인 히로시마 비행장이 있으며 코오치(高知), 카고시마(鹿兒島), 이즈모(出雲), 미야자키(宮崎) 등 5노선이 매일 12편 운항중에 있습니다.

또한 히로시마 공항은 작년 1월에 3,000m활주로 사용 개시를 계기로 북미, 유럽 등과의 직행편도 취항이 가능해져서 추시코쿠(中國) 지방의 거점공항으로서 노선유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3. 4. 2 히로시마항 국제·국내 정기노선>

한편, 히로시마의 바다의 현관역할을 하는 히로시마항은 특정 중요항구로서 산업진흥이나 도시계획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제무역항으로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히로시마항의 해외정기항로는 한국항로가 주 8편, 상해항로가 주 1편, 대만항로가 주 2편, 대만·홍콩 항로가 주 1편입니다. 여기에, 올해 가을부터는 한일간에 국제 정기 여객선이 취항하므로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해 지리라 기대됩니다.

4. 대한민국과 히로시마의 관계

(4. 1 인적교류)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과 히로시마는 불과 1시간 반의 거리이며, 연간 5만 7,000여명이 히로시마현에서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음식과 쇼핑천국으로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으며 히로시마에서도 한국요리는 인기 있는 음식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또한 히로시마에는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설치되어 대구시와 히로시마시, 진해시와 쿠레(呉)시, 포항시와 후쿠야마시, 사천시와 미요시(三次)시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것 외에도 히로시마현 일한친선협회를 비롯한 민간차원의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주민 모두 교류축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4. 2 무역관계)

그러나 무역면에서는 히로시마현의 대한 수출은 철강이나 선박부품 등 약 500억엔(2000년도 실적)으로 히로시마현의 수출대상국 7위인데 반해, 한국의 대(對)히로시마 수출은 수출의 주력상품이었던 자동차 부품이 반 이하로 격감한 이유도 있어 총액으로 전년도대비 약 20% 감소한 약 64억엔입니다.

의료기구 제조업, 자동차 부품 설계, 도료를 비롯하여 히로시마의 13개사 기업

이 한국으로 진출하여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아직 활발하게 비즈니스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향후에도 한층 더 경제교류의 촉진을 도모할 생각입니다.

5. 결론 ~대한민국과 히로시마의 새로운 경제교류를 향해~

월드컵의 한일공동개최, 또한 이번 「제34회 한일·일한경제인회의」의 히로시마 개최를 계기로 한국과 일본, 그리고 히로시마의 교류가 더욱 심화될 것이 기대됩니다.

히로시마 경제계도 IT관련산업, 혹은 조선기술을 비롯하여, 한국의 기술력과 히로시마의 기술력을 합하여 더욱 상호발전 할 수 있는 파트너 관계를 돈독히 다지면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도 연계하여 경제 활성화 도모를 희망하므로 향후에도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의 활약하심과 한일·일한경제인회의의 가일층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韓國側 主題發表 ①

「월드컵 共同開催를 契機로 본 韓日間 地方交流」



吳 在 熙

前 駐日大韓民國特命全權大使, (株)N2 Communication 會長

서 론

본인은 10년 전인 1992년 4월 22일 센다이에서 개최된 제24회 한일·일한경제인회의 개최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이번에는 이곳 히로시마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고, 특히 오늘은 “월드컵 공동개최를 계기로 본 한일간 지방교류”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일 양국의 역사상 최초의 공동 사업인 월드컵이 드디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될 월드컵은 양국민의 협력과 공동노력에 의하여 반드시 성공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한일 양국간의 우호친선 협력의 무드는

과거 어느 때 보다도 무르익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양국은 월드컵 공동개최를 통하여 일층 강화된 우호협력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발전시키는 노력을 함께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번 한일·일한경제인 회의가 양국간의 우호협력의 중요한 토대가 되는 지방교류에 관하여 토의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1) 한일양국간 지방 교류의 실적, (2) 평가, 그리고 (3) 앞으로의 추진방향 등의 순서로,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한일양국간 지방교류의 실적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래, 양국의 우호친선협력관계를 정부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적 차원에서 발전 강화시키는 것이 큰 과제로 되어 왔습니다. 이를 위하여 양국민간의 폭 넓은 교류가 꾸준히 추진되어 왔으며, 그 대표적인 형태의 하나가 양국의 지방공공단체간의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와 제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방공공단체간의 교류, 즉 지방교류는, 다양한 인적교류와 문화교류 등을 통한 상호이해증진과 친선강화를 위하여 매우 유익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류는 양국간의 경제협력과 통상증진에 있어서도 기여한 바 크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지방교류에 대한 관심이 크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이유로서는, (1) 지방공공단체가 국가보다 훨씬 선린우호차원에서 부드럽고 원만하게 국제교류를 할 수 있고, (2)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공공단체간 교류를 통하여 자치제도의 운영이나 행정경험을 서로 나누고 발전시킬 수 있으며, (3)지방공공단체는 지방 산업이나 기업의 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지방경제의 발전을 위한 국제교류에 매우 적극적이며, (4)국제화, 세계화의 추세에 수반하여 한일 양국에 있어서도 지방의 국제화문제가 크게 부상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지방의 국제화는 양국간의 지방 교류를 활발히 함으로써 보다 더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한일국교정상화 후 처음으로 1968년에 울산시와 야마구치시간에 자매결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 70년대에 양국의 지방공공단체간의 자매결연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80년대를 거쳐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자매결연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서 한일 양국의 지방교류의 기초가 되는 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을 숫자로 다음의 표에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한국의 자치단체			일본의 자치단체		
구분	종류	총수	일본과의 자매결연	한국과의 자매결연	총수
광역자치단체		16	13	7	47
기초자치단체		232	58	79	3,223
합계		248	71	86	3,270
					구분
					종류
					도도부현
					시구정촌
					합계

자료 : 한국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2002. 3. 현재)

자료 : 일본 재단법인자치단체국제화협회(2002. 3. 현재)

일본의 도도부현의 수는 47인데 비하여, 일본의 도도부현에 해당하는 한국의 광역지방자치단체는 16단체입니다만, 일본의 47도도부현 중 7개 단체만이 한국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자매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시, 구, 정, 촌의 수는 3,223인데 비하여, 이에 해당하는 한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수는 232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일본의 3,223 시, 구, 정, 촌 중에서 79개 단체가 한국의 상응하는 자치단체와 자매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간의 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의 숫자를 양국이 각각 제 3국과 맺은 유사한 관계의 숫자와 비교해보면, 일본에 있어서 한국은 미국, 중국, 오스트레일리아에 이어 네 번째이며, 한국에 있어서 일본은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1991년 4월 도쿄에서 개최된 한일 외상회담에서 양국지방자치단체간 교류촉진회의 개최에 합의한 이래, 양국의 지역간 교류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예로서, 1992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개최된 한일해협연안 시도현지사회의를 들 수 있습니다. 그 동안 10회에 걸쳐 개최된 이 회의에는, 한국측에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남도 및 제주도가 참가하고, 일본측으로부터는 후쿠오카현, 사가현, 나가사키현 및 야마구치현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제11회 회의는 금년 9월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또한 일본의 전국지사회와 한국의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간의 합의에 따라 제1회 한일 시도지사회의가 1999년 11월 도쿄에서 개최되었으며, 양측은 이 회의를 2년마다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밖에도 양국간 지방경제교류를 추진하기 위하여 1993년부터 매년 한국의 산업자원부와 일본의 큐슈경제산업국의 주선으로 한국·큐슈 경제교류회의가 개최되어 왔고, 유사한 형식으로 한국·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도 개최되어 왔습니다.

한편 월드컵경기가 한일 양국 각각 10개 도시에서 행하여지게 되어 이들 20자치단체간의 회의도 재작년에 개최되었습니다.

2. 평 가

한일 양국의 지리적 근접성, 우호친선협력관계 등에 힘입어, 양국간의 지방교류는 그 역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전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90년대에 들어와서 양국의 지방공공단체간의 교류가 일층 활발해졌습니다. 그 이유로서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우선 냉전 종식에 이어, 글로벌리제이션, 보더레스라는 말이 유행하는 한편, 한일 양국에 있어서 지방화가 일층 촉진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1995년의 통일지방선거를 계기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음으로 선거를 통하여 선출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또한 한일 양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와 국제적 교류를 지원하는 기구가 각각 설립되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재단법인 자치체국제화협회가 1988년 7월에 설립되고, 1995년 4월에는 그 협회 내에 지자체국제협력센터가 설치되어 자매교류를 비롯한 국제교류와 국제협력활동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1994년 7월에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이 설립되어, 전술한 일본의 기구와 유사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국의 지역경제교류를 추진하기 위하여 일본은 JETRO가, 한국은 KOTRA가 중심이 되어 많은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많은 노력과 실적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간 지방교류는 결코 만족스럽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우선 양국정부차원에서 지방교류에 대한 정책적의지가 매우 약하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991년 4월 양국외상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간 교류의 필요성이 논의된 것과 1998년 10월의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 부속서로서 첨부된 행동계획 제5항 국민교류 및 문화교류의 증진 중에 지역간 교류가 간단히 언급된 것 이외에는, 양국의 정상회담이나 외상회담 기타 각료회담 등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었다는 기록을 본인은 찾지 못했습니다. 즉, 양국간의 인적교류나 청소년교류 등은 정부차원에서 수시로 논의되나, 우리 모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교류에 관하여는 그러한 논의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치단체의 국제화나 국제교류를 지원하는 기구가 양국 내에 각각 만들어졌지만 그 활동은 글로벌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일 양국간의 지방교류에 초점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 결과, 앞에서 설명 드린 것으로서 아시겠지만, 양국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이이고, 협력관계를 유지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자치단체의 총수에 비하여 자매결연이나 기타 제휴관계를 맺고 있는 숫자가 매우

적고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특히 일본의 도도부현의 대부분이 아직 한국의 광역자치단체와 자매교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1999년에 처음으로 개최된 제1회 한일 시도현지사회의에서는 2년마다 회의를 개최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2회 회의가 작년에 개최되지 않았으며, 금년에도 개최될 전망이 없는 듯 합니다. 지역경제교류에 있어서도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또한 정부 레벨에서 추진하지 않으면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운 듯 합니다.

3. 앞으로의 추진방향

이상 말씀드린 바를 놓고 생각할 때, 양국간의 지방교류는 이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활발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 방향에 관하여 이제부터 본인의 생각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교류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관하여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미 말씀 드렸습니다만, 양국간의 지방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있어서 금년이 매우 중요한 해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금년의 월드컵 한일공동개최로 인하여, 무엇보다도 양국이 힘을 합쳐서 세계적인 행사를 꼭 성공시킨다고 하는 우호친선협력의 기운이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또한 월드컵경기가 양국의 10개 지방에서 각각 펼쳐짐으로써, 각 지방에 대한 관심이 매우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일 양국 정부는 금년을 국민교류의 해로 결정하여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으며, 경기가 시작되면, 많은 사람들이 경기를 보기 위하여 양국간을 왕래할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가 개막식과 폐막식에 함께 참석하기로 합의한 것은 공동개최의 의미를 더욱 실감나게 합니다. 한편, 지난달 고이즈미 총리의 방한 시, 양국간의 투자협정이 정식으로 서명되고, FTA, 즉 한일자유무역협정체결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재계, 학계 및 정부가 함께 참가하는 연구기구를 발족시키기로 합의되었습니다. 또한 그 연장선에서 한국, 일본, 중국을 포함하는 동북아시아 자유무역협정이나 지역협력체제 실현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최근에는 한일 IT광코리아·프로젝트에 의거하여 한일 양국을 직접 무중계로 연결하는 새로운 해저광케이블망이 완성됨으로써 양국간의 정보통신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이번의 해저케이블망은 최신 기술을 사용하여, 사용료를 매우 저렴하게 할 수 있고, 용량도 매우 커서, 1초당 전화 약 3,500만회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일 양국을 왕래하는 정기 항공편은 1주에 331편에 달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나리타공항의 제 2활주로가 완성되면 400편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인적왕래에 있어서도, 작년 양국간을 왕래한 양국민의 수는 합계 370만이며 하루 평균 1만명 이상인데, 이는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 1년간 숫자보다 더 많은 것입니다. 금년은 양국민 교류의 해로 지정되어 양국의 여러 지방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열리는 한편, 월드컵도 있고 해서, 5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은 지금 전례 없이 조성되고 있는 양국민간의 긴밀한 우호친선협력의 환경과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살리는 공동사업을 계속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본인은 지방교류를 양국의 공동사업이라는 관점에서 재평가하고, 이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앞으로의 지방교류 추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양국정부차원에서 보다 더 확고한 정책의지를 표명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즉, 정상회담, 외상회담 등에서 수시로 이를 토의하고, 양국의 관계부처 실무 당국자들도 정기적으로 만나서 현황점검과 지원방안 등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2) 양국간의 지방교류를 총체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입니다. 한일 양국에는 자치단체의 국제화사업이나 국제교류를 지원하고 알선하는 기구들이 이미 여러 개 있고 교류분야에 따라서도 각각 다른 기구들이 이를 담당하고 있으나, 본인은 한일간의 지방교류를 책임지고 특별히 관리하는 기능과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양국의 담당기관간의 협력체제도 정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교류를 총체적으로 관리함에 있어서는, 단순한 사실의 파악이나 교류알선 뿐만 아니라, 실태를 분석 평가하며 교류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교류분야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주로 인적교류나 문화교류에 편중되었으나, 앞으로는 경제통상교류를 더욱 활발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제통상분야의 교류야말로, 양국간 지방교류를 촉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교류의 형태에 있어서는, 양국이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에 있어서 그 차이가 너무 크고, 각 단체의 인구나 면적도 다양하므로, 1 대 1로 맺어지는 형식적인 자매관계에 구애받지 말고, 복수의 자치단체와 교류하고 또한 필요시에는 특정분야에 한정된 교류 관계를 맺는 등, 지방교류의 지역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화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5) 한일 양국의 지방교류는 최근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한국, 일본, 중국을 포함하는 동북아시아경제협력체제의 실현가능성을 시야에 넣고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양국간의 지방교류를 제 3국과의 교류로 확대하도록 노력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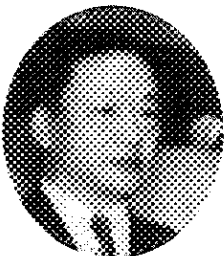
(6) 최근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T)의 성과를 지방교류에 있어서 최대한으로 활용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인터넷을 활용하는 각종 정보와 데이터의 축적과 교환, 가격이 파격적으로 저렴한 인터넷 전화의 활용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언어의 장벽이 문제될 수 있으나, 전문가들에 의하면 한일 양국언어를 사용하는 이메일의 경우, 내용의 90%정도는 상대방언어로 자동번역 될 수 있고, 인터넷전화의 경우, 약 70%정도의 음성이 상대방 언어로 자동통역 될 수 있다고 하며, 멀지 않은 장래에 이러한 자동번역이나 자동통역 기술이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장차 인터넷 화상전화가 상용화되고 이와 관련된 각종 콘텐츠가 개발되면, 정보통신기술은 양국간 지방교류에 획기적으로 공헌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 끝으로, 지방교류는 양국정부차원에서 때때로 야기될지도 모르는 정치문제나 외교문제에 구애받지 않고 추진한다는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교류의 본질이나 목적에 비추어 이러한 원칙은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서 본인의 말씀을 끝내고자 합니다. 지금 고조되어있는 양국간의 우호친선협력의 무드를 충분히 살려, 월드컵 이후의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일층 발전시킴에 있어서, 양국정부와 국민은 지방교류를 전략적 차원에서 생각하고 다루어나감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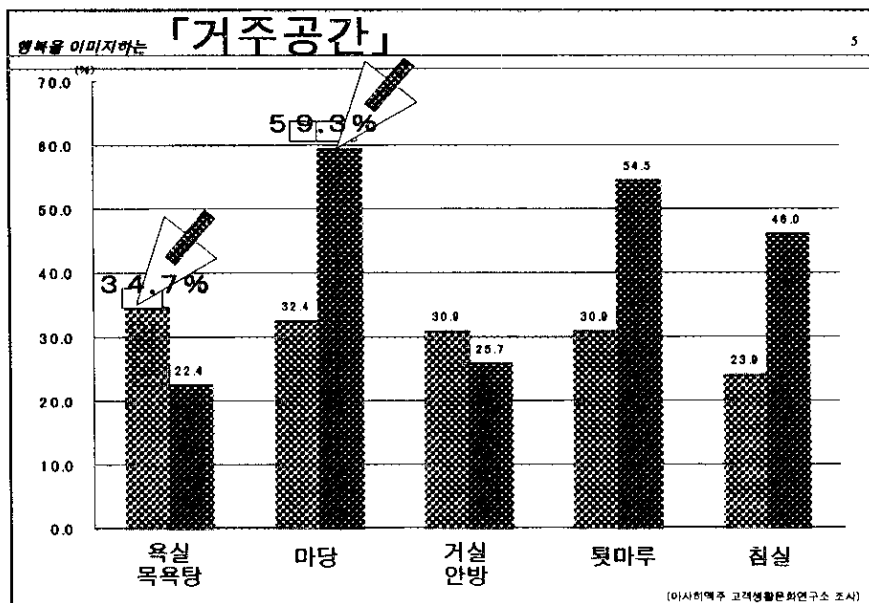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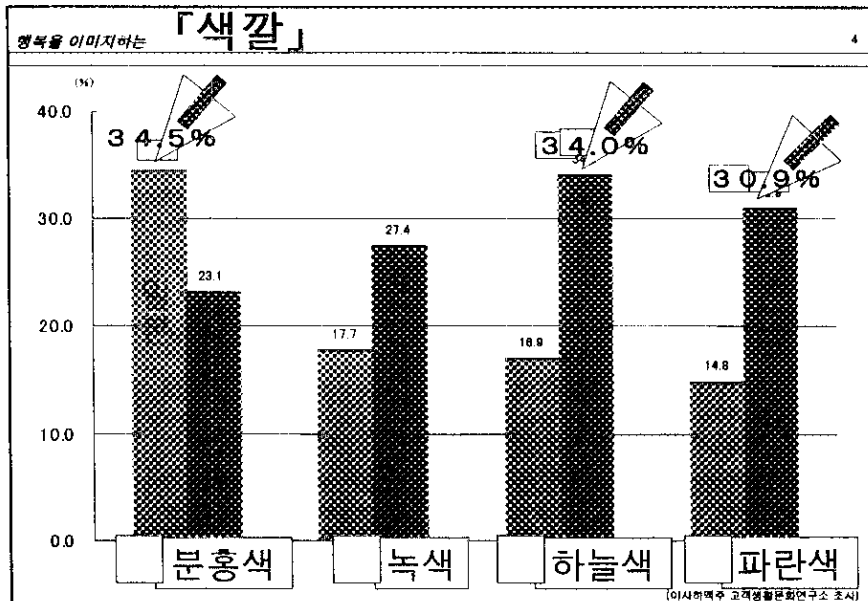
3. 日本側 主題發表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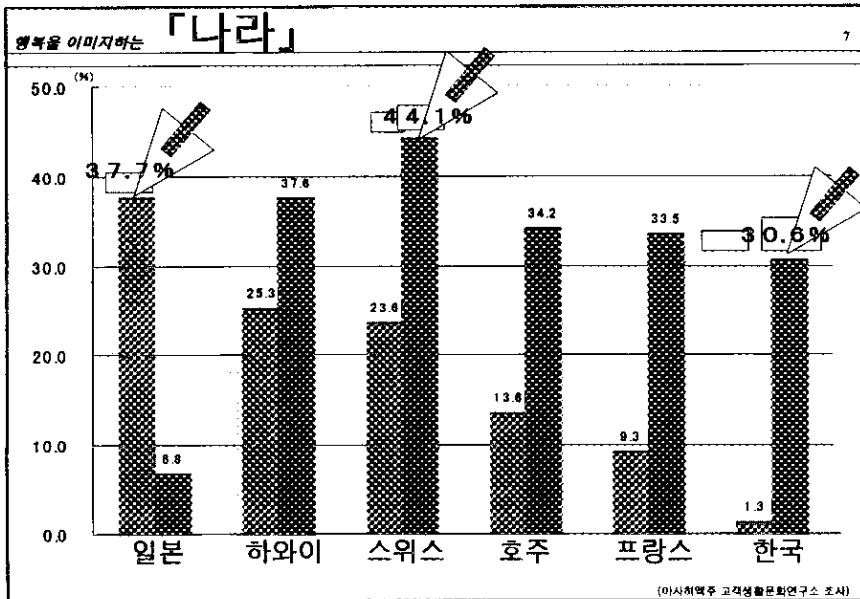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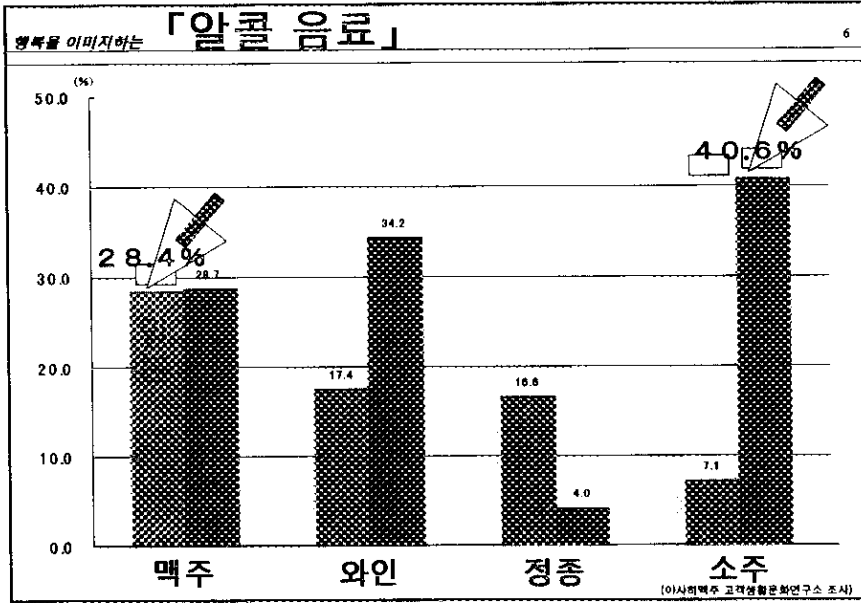
『월드컵以後의 韓日 協力の 可能性과 意義』



泊 三夫 (Tomari Mitsuo)
(株)博報堂 第13營業局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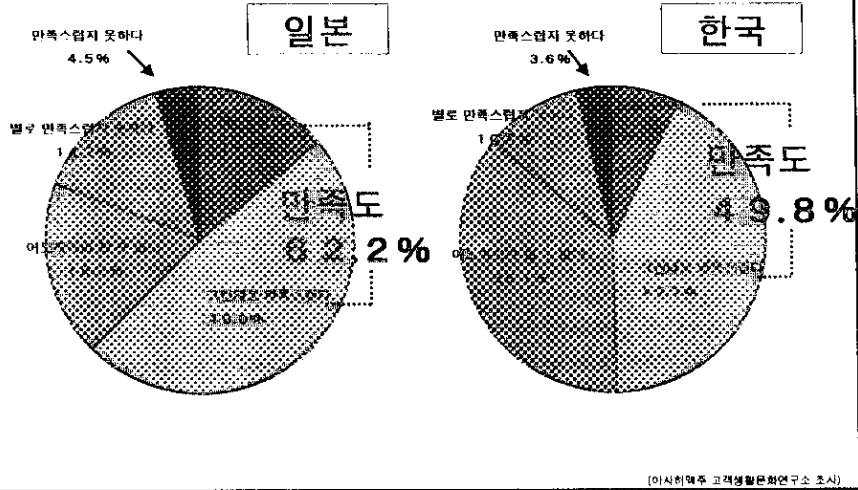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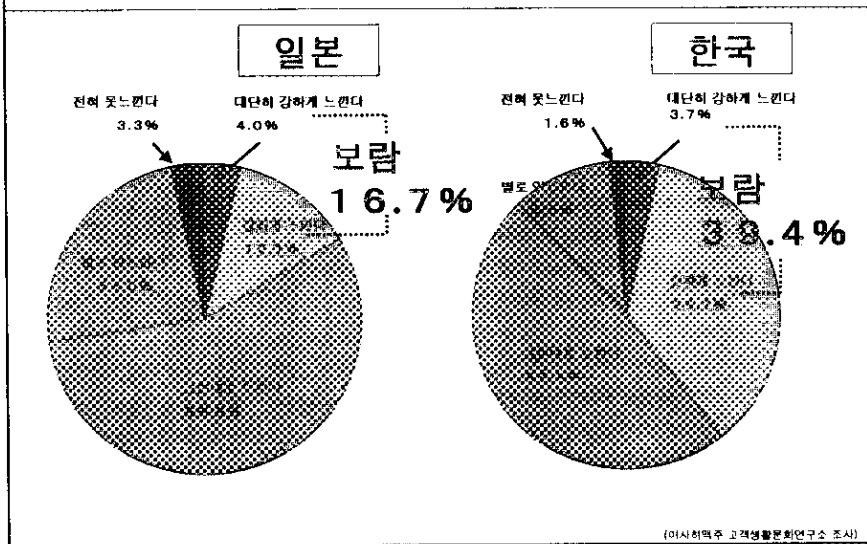
생활만족도

8



생활상의 보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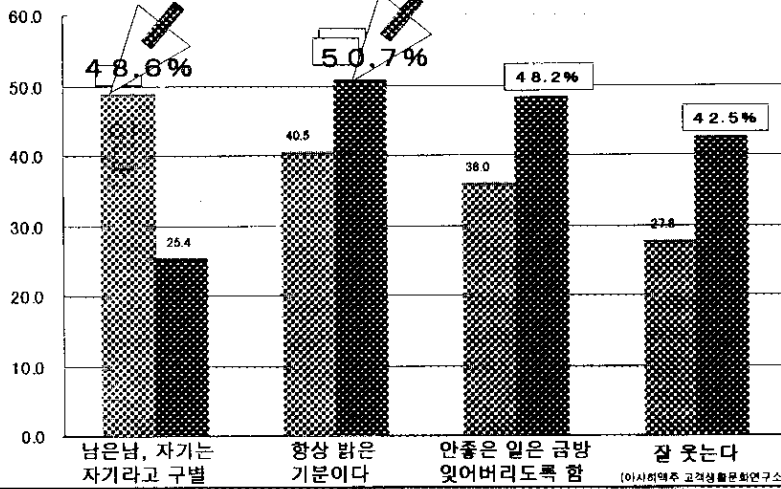
9



항상 신경을 쓰고 있는 점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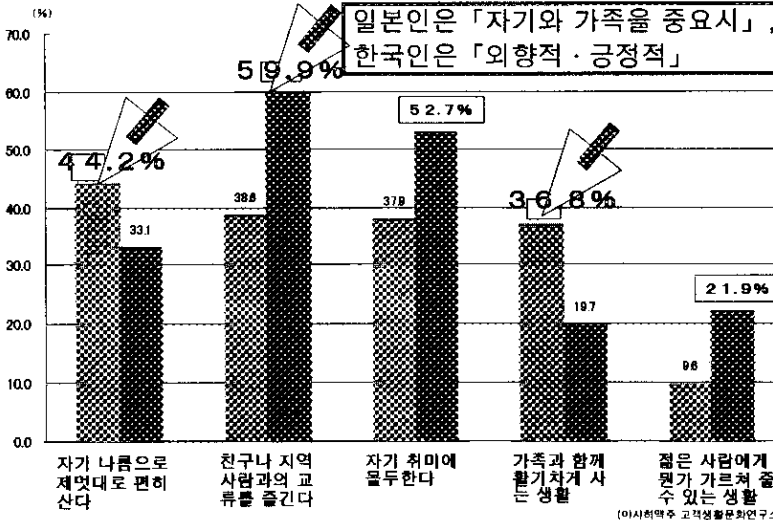
(%) 일본인은 「개인가치 중시」, 한국인은 「밝고, 긍정적」



늙은 후에 바라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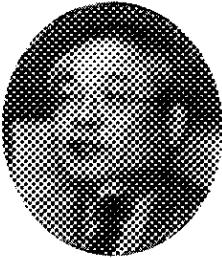
11

(%) 일본인은 「자기와 가족을 중요시」, 한국인은 「외향적·긍정적」



4. 韓國側 主題發表 ②

『韓流』로 본 東아시아 相互關係의 發展 展望』



金 文 煥

서울大學校 人文大學 敎授, 前 韓國文化政策開發院長

[

‘한류(韓流)’란 무엇인가? 그것은 한국유행문화를 줄인 말로서, 1998년 중국에서 최초로 제작된 한국 음반의 포스터를 통해서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동아시아일대에서의 호의적인 반향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듯하다. ‘한류’시대는 N.R.G, H·O·T 등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이른바 10대 힙합전사들이 열었다고 하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안재욱·송승헌·송혜교·김남주·김희선·장동건·원빈·이나영·차인표 등등 한국의 대중문화 스타들의 이름이 중국, 대만, 홍콩, 베트남, 싱가포르, 나아가 몽골 등지에서 인기가 가위 하늘을 찌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베트남에서만도 1999년에는 45편, 2000년에는 무려 90편의 한국 TV드라마가 방영되었다. “의가형제”와 “토마토”, 그리고 “불꽃”에서 시작하여 “가을동화”, “호텔리어”, “모델”, “별은 내 가슴에”, “첫사랑”, “사랑이 뭐길래”, “내 마음을 뺏어봐”, “안녕 내 사랑”, “애인”, “8월의 크리스마스”, “쉬리”, “로펌”, “Mr. Q”, “장미와 콩나물” 등등의 영화 및 텔레비전 드라마가 이들 중화권 나라에 들어가면서 인터넷을 매개로 국제적인 한국스타 팬클럽망(안재욱 ‘포에버’)이 생기는가 하면, 한국배우들 뒷이야기가 매일 연예신문의 전면을 뒤덮고 있다. 연예인 관련상품전에선 톱스타 가필 사인이 한국돈 2만원에 거래되기도 한다. 참고로 중국에 수출된 한국영화를 도표화해본다.

<표 1> 중국에 수출된 한국영화

작품	제작사	수출액(달러)	수출년도
하얀 전쟁	대일필름	30,000	1992
투캅스	강우식프로덕션	40,000	1994
테러리스트	선익필름	40,000	1995
런 어웨이	익영	40,000	1998
결혼이야기	익영	40,000	1998
키스할까요	태원엔터테인먼트	35,000	2000

<자료 : 영화진흥위원회>

2002년 3월말께에는 원·명 교체기에 중국에 파견되었던 고려 사진단의 고달픈 귀향기를 그린 무협영화 “무사”(김성수 감독)가 한국영화로서는 최초로 중국 전역(2~3백개 스크린)에서 개봉된다. WTO가입으로 확대될 중국시장을 감안할 때, 스태프의 50%가 중국인이고, 중국 현지에서 5개월간 촬영한 이 영화의 상징성은 매우 높다.

연예인들의 인기도는 상영 드라마에 따라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 베트남에서는 여전히 장동건이 첫손 꼽히고, 여자배우로는 김남주가 독주하고 있다. 중국 홍콩에서는 안재욱·김희선이, 대만에서는 원빈과 송승헌·송혜교가 강세인 가운데, 차인표와 이영애도 지명도가 높다. 가수들로는 클론이 탄탄한 바탕을 다져왔으며, 이미 해체된 H·O·T와 H·O·T 멤버 강타가 가장 인기 있다. 또한 안재욱이 ‘가수’로도 인기를 얻고 있으며, 그룹 신화·베이비복스 등도 진속한 이름이다.

비단 한국의 대중문화상품만이 아니라, 한국식 라이프 스타일과 연관된 생활문화상품에 대한 선호도 역시 상승하고 있다. 한국산 화장품, 동대문·남대문시장 옷, 웨딩드레스, 중고차, 어린이용 영어교재, 교육용 완구, 나아가 스포츠(축구와 탁구), 바둑, 그리고 한국음식과 소주 등등에 이르기까지 그 품목은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다(한국형 피자집도 빼놓을 수 없다).

휴대 전화에도 한류(한국풍 유행) 바람이 거세다. 인기가수, 텔런트에서 시작된 한류 열풍이 한국산 휴대전화기로 옮겨가면서 대 중국 수출이 매년 15~20%씩 급증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듀얼폴더 휴대전화기(모델명 A-288)는 중국 젊은 이들 사이에 부의 상징으로 꼽히고 있다. 휴대전화기 가격이 6,500위안(한화 100만원 상당)으로 최고가품에 속하지만,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이다. 휴대전화기 바깥에도 LCD화면이 달려 있는 독특한 디자인으로 상하이, 광저우 같은 대도시에서 한국산 휴대전화기 붐을 일으키면서, 가격이 비쌀수록 더 잘 팔린다고 할 정도이다. 태슨전자는 최근 중국 2위의 휴대전화기 제조업체 콩카그룹과 ‘액수 없는’ 단말기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태슨은 중국에서 아직 서비스도 하지 않는 CDMA(미국식 디지털) 방식 휴대전화기를 향후 1년간 독점 공급하기로 입도선매 계약을 했다. CDMA 휴대전화 제조기술은 국내 업체들이 가장 앞서 있는바, 중국 업체들이 CDMA 기술 도입을 위해 경쟁적으로 달려들고 있다고 한다.

오는 10월 중국 차이나유니콤이 CDMA이동통신 서비스를 시작하면, 한국산 휴대전화기 바람은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중국 CDMA시장은 향후 5년간 최소 가입자 5000만명을 예상하는 세계 최대 규모이다. 중국은 이미 CDMA전화기를 생산할 자국 제조업체 19곳을 선정했으며, 여기에는 한국 업체들과 제휴관계를 맺은 업체들이 대거 포함됐다.

중국의 CDMA도입으로 중국~동남아는 물론, 북미~브라질~호주를 묶는 CDMA '환태평양 벨트화'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국 기업들의 중국 CDMA 진출 준비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삼성전자는 CDMA휴대전화기 시장점유율 1위를 목표로 이미 선전지역에 합작공장까지 건립한 상태다. LG전자도 중국 량차오그룹과 합작법인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텔슨전자·팬택 등 중견업체들도 중국 수출용 단말기 개발을 끝내고 '출발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최근에는 베트남이 CDMA도입을 결정함으로써 '한류' 바람은 중국 국경을 넘어 베트남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을 방문한 베트남 찬 득 루옹 주식은 SK텔레콤, LG전자, 동아일렉콤 등 국내 통신·장비업체가 공동투자한 합작회사(SDL텔레콤)가 베트남의 이동통신 사업을 직접 운영하도록 승인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핵심기간망 사업을 다른 나라 업체에 맡기는 것은 극히 드문 일로서, 동남아 지역 최강국에서 이동통신 사업을 하는 것만으로 대단한 사건인바, 캄보디아 등 다른 동남아 국가로 CDMA를 확산시킬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해진다.

소주의 경우 2002년, 처음으로 1억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2002년 1월 21일, 업계에 따르면 진로·두산 등 소주업체들의 올해 해외수출 목표액이 지난 해 9,500여만달러보다 30% 증가한 1억 2,600여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는 2001년 6,100만달러어치를 수출한 데 이어 올해는 중국시장 공략을 강화해 8,000만달러의 수출목표를 세웠다. 또 중국에 붙고 있는 한류열풍을 활용해 기존 베이징, 선양 외에 산둥, 상해, 천진 지역으로 판매망을 넓혀 1,000만달러 상당을 수출할 계획이다.

국내 섬유산업의 해외투자도 중국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국내 내수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중국진출 형태도 기존 생산비용 절감형에서 내수시장 진출형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발표한 2001년 섬유산업 해외투자현황에 따르면, 2001년 10월말 현재 한국 섬유산업의 해외투자 건수는 1,825건, 16억9천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7.3%, 7.4%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2000년말 현재(누적) 아시아 지역이 1,387건(82.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중남미 125건(7.4%), 북미 110건(6.5%) 순이었다. 이중 대(對) 중국 투자가 총 991건, 5억4,800만달러로 전체 해외 투자건수의 58.8%, 투자금액의 33.6%를 차지해 중국의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특히 2001년 대 중국 투자는 전년 대비 32%나 급증했다. 이 가운데 중국진출 형태는 과거 저임금 등 주로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투자에 국한됐으나, 최근 한류 열풍 등 내수시장 규모확대에 따라 현지생산-현지공급의 내수시장 진출형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 대중국 투자지역으로는 주요도시와의 인접성과 인건비를 고려해 산둥성, 요령성, 길림성 등 3성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급기야 한국의 산업 자원부는 2002년 1월 24일 ‘중국과의 동반자적 협력확대를 위한 대책회의’를 갖고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 완화에 맞춰 앞으로 5년간 매년 100여개 상품을 전략상품으로 선정해 육성키로 했다. 또 5월에는 상하이에서 일류상품 로드쇼를 열고, 하반기에는 한류 열풍을 상품판 매로 연결하기 위해 ‘스타 마케팅’과 연계한 한국상품전을 열기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한국기업의 서부대개발 사업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희망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타당성 조사비용의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상징하듯, 중국 상하이의 최대 변화가에 한국 상품만 판매하는 대형 백화점이 들어선다. 즉, 한국 무역유통업체인 썬워즈산업(대표 하형수)이 중국 국영 유통업체인 유이(友宜)집단 산하에 있는 상하이시 난징로(南京路) 소재 유이백화점 경영권을 100%인수, 10년간 도급 형식으로 운영키로 한 것이다. 난징로 일대는 대형 쇼핑상가 및 백화점이 100여개나 들어서 있는 상하이 최대 쇼핑 명소로서, 상하이시는 2005년까지 3조원을 투입, 이 거리를 아시아 최대의 쇼핑거리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5월에 문을 여는 이 백화점에는 약 1,500개의 한국 업체가 입주해 각종 한국산 상품과 서비스, 오락으로 새로운 ‘한류’ 바람을 불리일으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썬워즈측은 난징로의 상권 규모와 중국인들의 한국 브랜드 선호도를 감안할 때, 연 3,000억원 규모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문화관광부는 이미 아시아권에서 불고 있는 “한류” 열풍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를 찾는 ‘한류 관광객’들을 겨냥하여 우리 대중음악, 방송영상, 게임 등의 상품을 전시하고 문화를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 ‘한류메카’(가칭)를 만들어 국제적 관광명소로 키우는 한편, 베이징·상하이 등 해외 거점도시에 한국 대중문화를 소개하는 ‘한류 체험관’을 설치하기로 하고, 그 재원 마련을 위해 경제 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말한 바도 있다. 아울러 현지인 정서에 맞는 문화 콘텐츠를 공급하기 위해 음반, 방송영상, 게임 등의 현지어 사용 문화상품 제작에 대한 정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음반 영상의 공동제작과 우수 공연사의 해외공연을 지원할 계획과, 질 낮은 문화상품의 무분별한 수출로 한국 대중문화의 신뢰도가 실추되지 않도록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아시아문화교류협의회’를 구성해 현지 진출 문화콘텐츠의 품질을 공식 검증하도록 할 계획을 아울러 발표했다. 나아가 베이징 등 주요 지역 재외공관에 문화관을 추가로 파견하며, 한류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개원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해외사무소 설치도 추진할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II.

이와 같은 ‘한류’의 배경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대중매체의 역할이 막강하다. 예컨대 대만의 경우, 케이블 TV 채널이 100개가 넘고, 드라마 채널도 수도 없이 많은데, 이들이 한국드라마를 계속 수입 방영하고 있는 것이 “한류”의 가장 큰 원동력으로 손꼽히고 있다. 한국드라마 한편이 오후에 한번, 저녁 8~9시에 한번, 심야에 한번, 보통 하루에 세 차례에 걸쳐 방영되고, 시리즈가 끝나면 재방송하고, 재방송이 끝나면 다른 채널로 옮겨서 재방송되기도 한다.

음악의 경우 역시 방송의 역할이 절대적인 듯하다. 한국 최신 대중음악이 중국 국영 라디오방송국을 통해 사상 처음으로 중국 전역에 방송되기 시작한 것이 그 좋은 예가 된다. 중국 국영 중앙인민방송국(CNR)은 한국 공연기획회사인 (주)우전소프트와 공동으로 ‘한국을 경청한다’(聆聽韓國)는 최신 대중음악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해 광고가격이 가장 비싼 황금시간대인 오전 11시부터 12시 사이 처음으로 방송했다. 중국 첫 국영 라디오방송국이자 유일하게 채널3을 통해 전국을 커버하는 FM음악방송을 송출하는 관영 CNR은 중국 전역에 걸쳐 한국 대중음악팬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번 방송을 시작했으며, 2000년에는 매주 토·일요일 각 한 차례씩 방송하고, 2001년 1월 1일부터 매일 한 차례씩 방송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CNR은 1940년 12월 30일 중국의 혁명 성지로 일컬어지는 예안(延安)에서 최초로 설립(당시 명칭 延安新華放送)돼 1949년 12월 5일 현재의 이름인 CNR(中國人民廣播電台)로 개명했으며, 한국으로 치면 KBS라디오방송국에 해당한다.

중국내에는 그동안 한국의 공연기획사인 ‘미디어플러스’가 중국측과 제작해 정기적으로 방송하는 ‘서울음악실’이라는 한국 최신 대중음악 프로그램이 있었다. 이 서울음악실(漢城音樂廳)은 중국 라디오에서 유일한 정규 외국 프로그램으로 방송되는 프로그램으로서 베이징과 상하이뿐 아니라 내륙의 충칭 등 10개 주요도시에서 전파를 탄다. 들을 수 있는 인구는 4억~5억명, 고정 청취자만도 최소한 3,000만~4,000만명을 헤아리니, 엄청난 규모다. 그런데 CNR은 이에서 더 나아가 중국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방송인 바, 정기 한국 음악방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시작된 한국 최신 대중음악 프로그램의 진행자는 중국 최고 청취율을 자랑하는 ‘중국유행음악리스트’(中國流行歌曲榜)를 진행중인 MC 장둥(張東)이 맡았으며, CNR에서 녹음과 송출을 하고, (주)우전소프트에서 중문 방송원고와 한국 음악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앞으로 한국 최신 대중음악을 방송하는 이외에도, 한국인기가수 동정, 한국가요 TOP 10, 한국문화 소개, 최근 한국뉴스, 한국어 한마디, 중국팬들의 사연 소개 등을 한다. 첫 방송에서는 조용필 등 80년대 이후 한국의 대표적인 인기가수들과 그들의 노래를 특집으로 소개했고, 다음 날에는

중국내 한국 대중음악의 인기를 지칭하는 이른바 “한류”를 있게 한 한국남녀 가수 5명씩의 노래와 그들을 소개하는 특집을 방송했다. CNR은 이번 방송 개시전 (주)우전소프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수천명에 이르는 중국팬들의 의견을 들어 ‘한국을 정칭한다’는 프로그램 이름을 만들었으며, 10월 중순부터는 홈페이지에 한국 최신곡을 게재한 후 중국팬들의 인터넷 투표 결과를 매주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팬들이 보낸 ‘예쁜엽서 전시회’를 개최해 채택된 엽서 발송인에게 포상하여 팬들과 함께 만드는 음악프로그램을 지향하고 있다. CNR은 또 중국 최대의 국영 TV방송국인 중앙TV(CCTV)와 함께 매년 주최하는 중국 인기가수 시상식에 한국가수 시상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만 한 현지인의 발언은 한국 대중문화상품 인기의 정체규명을 위해 정정해볼 만하다.

“대만 청년들은 중국대륙 전통문화에 대한 귀속감이 거의 없다. 불과 50여년 전에 대륙에서 건너온 대만 사람들에게 자체의 독창적인 문화가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대만인은 외부에 대한 개방성이 굉장히 강하고 거부감이 없다. 새로운 것은 무조건 좋아하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

“한국 드라마가 대만에서 인기있는 이유는 일본 드라마보다 훨씬 강렬하고 선 굵은 이야기에, 가족 가치관 등 대만 사람들에게 더 큰 동감을 얻어내기 때문이다. 대만 드라마의 갈등요소가 거의 ‘돈’인데 비해, 한국드라마는 순수한 사랑과 정열을 보여주는 것도 인기 요소이다. 젊은이들이 특히 거기 매료되는 것 같다.”

한국의 한 동아시아전문가는 이와는 좀 다른 견해를 제시한다.

“대만은 정치 상황이 조금 다르지만, 중국본토·베트남·몽골은 사회주의 정권이 시장경제와 개방정책을 통해 개발독재에 나선 상태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 정권에게는 시장경제의 단맛을 본 국민들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한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80년대초 우리나라 신군부 정권이 편 3S정책이 해답이다. 스포츠, 섹스, 스크린 셋 중에 스크린을 만족시키기 위해 비교적 저렴하고 재미도 있는 우리나라 대중문화품 도입하는 것이다. 만일 저 정권들이 판단을 바꿔 우리나라 연예산업의 진입을 막으면, 한류는 끝나는 것이다.”

다른 한 편 중국음악은 템포가 느려 한국음악과 같은 맛이 없다는 중국청년들의 반응도 있다. 즉 일본음악과 일본대중문화는 너무 매끈하고 상업적이어서 한국 것같은 독창력과 에너지나 힘이 없는 것 같다는 것이다.

중국 관영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경화시보는 3개년에 걸쳐 한국드라마와 연기자들을 분석·소개하는 특집을 싣고, 한국드라마가 이미 아시아 시장 개척에 성공을 거두고 한국 오락산업에 큰 자산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한국드라

마를 평화와 중용의 생활내용 위에 서양 잼을 얹은 한 조각 빵으로 비유하면서, 한국인의 생활방식이 서양의 영향을 크게 받았지만 중국에 건너오는 한국드라마는 서양문화를 동양적으로 변형시켰기 때문에 쉽게 생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서양드라마와 달리 한국드라마에 동양적 도덕률이 담겨있는 것도 중국인들이 쉽게 받아들이는 요소로 지적됐다. 이 신문은 또 한국 인기연예인들을 서양연예인들과 비교, 서양연예인들은 아름답긴 하지만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반면, 한국연예인들은 도시의 평범한 남녀와 다를 바 없어 친근감을 느끼게 한다고 평했다. 한국연예인들은 밥도 스스로 해먹고, 진실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화장실도 가고, 추악한 모습도 보여주기 때문에 중국 팬들이 가까이서 접촉할 수 있다는 즐거운 기분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드라마가 현대 도시생활을 과장 없이 현실감 있게 보여준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혔다. 이 밖에 중국인들이 한국드라마에 열광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한국드라마가 보여주는 도시생활의 정신적 압력과 사소한 일들이 자신들이 막 경험하기 시작하는 일들이라는 ‘동병상련’의 느낌을 주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베트남의 주간지 『티엔퐁』에 보낸 기고에서 응옌쑹립 교수(하노이 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비교문학연구소장)는 한국드라마가 베트남에서 사랑받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고 한다(『월간조선』, 2002년 2월호). 우선 한국드라마의 내용이 베트남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들을 소재로 삼고 있는 바, 베트남의 젊은 여성들은 예컨대 심각한 삼각관계, 고약한 시어머니들을 보며 자기들끼리 벌이는 논쟁을 꽤나 즐긴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드라마는 낭만이 깃든 가슴 아픈 이야기로서 경쟁으로 얼룩진 일상생활에서 언뜻 스치는 잔잔한 미소를 통해 그 동안 메말랐던 인정을 느끼게 해준다는 것이다. 흔히 가족간의 인간관계나 빈부관계가 다뤄지지만, 거기에서 불교와 가톨릭이라든가 경로효친, 장유유서 등 유교의 오랜 역사적 영향이 느껴지는 것도 공통적이다. 다만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드라마에서 좀더 다양하고 생동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삶과 가깝게 닿아 있는 또 하나의 삶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요컨대 한국드라마는 삶에 대한 교훈, 가족 안에서의 처신, 자립적인 생활, 특히 옛 유교적 굴레로부터의 해방, 정절을 지키며 행복에 이르는 내용으로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인들의 생활양식에 대한 무분별한 추종, 출세지향적인 야심, 돈에 대한 집착, 불법적인 행위와 인간의 도리를 지버리는 행동을 비판하면서, 부도덕한 욕망은 비극을 초래하고 결국은 불행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종교적인 권선징악이야말로 불교와 유교의 오랜 정신적 영향 속에서 살아온 베트남 사람들의 정서와 같다. 한국 드라마의 강한 흡인력이 오랜 문화적 전통이 배어 있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사건들을 소재로 삼는 데서 나온

다고 했을 때, 베트남 시청자들은 한국드라마를 보며 마치 자신이 그 드라마 속의 주인공인 것처럼 느낀다는 것이다.

김근 교수(서강대, 중국문화)의 분석은 좀더 심층적이면서 그럴 듯하다.

중국을 주나라 이후 은나라의 무속문화로 변방으로 배척함으로써 광기(狂氣)를 이룬바 정기(正氣)로부터 격리시키려 했다. 우리도 중국의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광기는 민간 문화 속에 면면이 살아서 우리의 상상력과 감각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일본 대중문화도 매우 감각적이기는 하나, 제의를 너무 깔끔하게 다음은 나머지 거세된 이미지가 강해서 팻러스로서의 매력이 결여된 면이 있다. '한류'에서 거친 터프가이들과 건강미 넘치는 활력적인 여성스타들이 특히 인기가 높은 것은 덜 다스려진 광기가 텍스트에 흐르기 때문이다. 불고기와 소주에서도 이러한 야성의 쾌락이 발견된다. 이런 의미에서 중국의 '한류'는 주나라 이후 퇴출된 광기의 회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언젠가는 그들도 스스로 탈근대적인 제의를 생산하게 되겠지만, 광기가 그 속에 살아 있지 않다면, 그것은 결코 자신들의 팻러스가 되지 못한다. 합리주의로는 어떻게 '못 말리는' '거침'과 '거세되지 않음', 이것이 '한류'의 생명인 것이다.

그러나 중국인들이 한국드라마를 볼 때마다 일본드라마와 너무 흡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반응도 있다. 이는 애정을 둘러싼 배신과 야심, 복수, 용서 등 천편일률적인 내용 때문에 한국드라마인지 일본드라마인지 분간이 안될 때가 있다고 꼬집는다. 드라마 배경에 깔리는 음악도 일본드라마의 분위기와 비슷하다고 평했다. 그러기에 앞서 지적한 사회심리적 요인들과 함께 경제적인 요인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현재 대만 방송국들의 한국드라마 수입 비용은 1회 방영분에 미화 1,000~1,500달러 수준으로서, 일본프로그램의 1회분 5,000~1만달러에 비하면 아주 싼값이다.

이처럼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되면서 2001년에 한국 방송프로그램의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은 어김없는 사실이다. 한국의 문화관광부가 2002년 1월 17일에 발표한 2001년 방송프로그램 수출입 현황 집계결과에 따르면, 수출은 2000년에 비해 44.3% 증가한 1,892만달러에 달했으며, 수입은 29.7% 감소한 44만2천달러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방송프로그램 수출은 매년 27%씩 꾸준히 증가한 반면, 수입은 계속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무역 역조현상이 지난 1997년의 1대 6.8에서 2001년에는 1대 1.08로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출입 프로그램 편당 평균 단가의 편차도 크게 줄어들어 수출 프로그램의 단가는 2000년 편당 400달러에서 지난 해 890달러로 크게 상승했으며, 수입 프로그램은 7,000달러에서 4,460달러로 하락했다. 특히 애니메이션의 경우, 수출단가가 4,200달러로 수입단가인 1,760달러를 크게 웃돌아 국제경쟁력을 지닌 장르임을 반증했다.

매체별 프로그램 수출은 지상파 방송사가 2000년에 비해 47% 늘어나고, 독립

제작사는 무려 183.4% 증가한 반면, 케이블 방송사는 54.8% 감소해 대조를 이뤘다. 장르별로는 ‘한류’ 열풍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드라마가 전체 수출액의 64.3%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은 애니메이션 19.8%, 오락프로그램 3.2%, 다큐멘터리 2.7% 등의 순을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가별로 보면 대만 20.2%, 중국 20.1%, 일본 9.7%, 홍콩 9.4% 등 전체수출액의 70.1%가 동아시아권에 집중되어 수출다변화를 위한 유럽지역과 제3세계에 대한 과감한 시장개척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만에 대한 수출이 2000년 60만 2천달러에서 지난 해 248만7천달러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 ‘한류’의 진원지가 중국에서 주변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문화관광부는 국내 방송프로그램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국제 규모의 방송영상전시 개최, 세계 방송영상박람회에 공동부스 설치 지원, 우수파일럿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제작비 지원, 한·중 방송영상 학술교류 및 공동제작 지원, 수출용방송 프로그램의 국제화를 위한 재제작 지원 등에 주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류’를 좀더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좀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이제 그와 같은 요정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한다.

III.

“한국기업이 중국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려면 좋은 제품, 철저한 시장조사, 대화적인 관계 등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디지털타임즈, 2002년 1월 25일자 기사 참조) 2002년 4월 17일~20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최대 IT박람회 ‘컴덱스 차이나(COMDEX CHINA) 2002’를 홍보하기 위해 방한한 키쓰리미디어(Key3Media) 중국사무소 대표 겸 시장조사기관 IDG의 썬썬명총재는 “그 동안 한국기업들은 중국의 시장잠재력만 보고 수요조사나 상거래 관행 등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없이 무모하게 진출한 면이 없지 않다”면서, “한국에서 사용하던 방식대로 사업을 하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중국내 한류열풍이 높다고 하지만 일반인들은 삼성, LG, 현대 등 대기업만 알고 있지 한국 IT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세나 우수한 정보인프라 구축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한국기업들은 단기적인 승부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꾸준하게 중국시장을 공략한다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그 동안 ‘보호’ 위주의 경제정책을 ‘개방’쪽으로 급속히 선회하고 있고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외국기업 투자와 기술 유치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중국시장 진출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WTO가입을 계기로 관세장벽 철폐, 투자제도 개선 등 과거 어

는 때보다 외국기업들이 활동하는 데 많은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바, 지금 시기를 잘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중국 IT산업은 성숙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네트워크나 이동통신, 컴퓨터 부문 기술력은 한국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어 한국기업의 분발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류’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한국대외경제연구원 베이징 사무소의 한 자료는 중국현지에서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비교적 객관성이 높다고 보겠는데, 이 역시 핑퐁제의 발언과 일맥상통하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이 조사는 2001년 9월 5일부터 9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다년간 생활하고 있는 20개 기관 및 업체의 한국주재원 57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한류’현상이 한국언론에 소개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의견(53%)과 함께 과장되었다는 의견(42%)도 상당한 수준인데, 이는 ‘한류’가 일반 도시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못된다는 의견과 상통한다. 또한 한국 대중문화상품 선호도 중국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중문화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65%)이라고 보는데, 이는 중국내 대체상품이 개발될 경우 ‘한류’가 타격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전체응답자 77%가 ‘한류’현상이 2~3년 후에 퇴색하리라고 보고 있는데, 그 중 33%는 1~2년내로 사라질 것으로 전망한다. 참고로 대만의 경우에도 비슷한 전망이 가능하다. 즉, 10년쯤 전에는 일본열풍이 거세게 불었고, 일본열풍이 어느 정도 대만에 익숙해진 다음에 한국문화가 새롭게 들어오기 시작한 것인 바, 현재 한국열풍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새로운 현상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지, 특별히 한국 자체에 대한 관심이 일본이나 다른 나라보다 많아서 시작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에 대한 호감이 높아진 건 분명하지만, 대만 젊은이들의 이런 성향으로 볼 때, 한국 대중문화도 어느 정도 진부해지면 시들해질 가능성이 있는 바, 만일 그렇게 되면, 대만 젊은이들은 인도든 유럽이든 또 다른 외국에서 새로운 문화쪽으로 확 쏠릴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류’현상이 문화산업의 중국진출로 이어지고, 한국제품에 대한 홍보효과를 가져올 것인지 하는 것이 ‘한류’현상에 대한 최대의 관심사인데,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1%가 ‘한류’현상이 문화산업의 대중 진출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광고, 캐릭터, 게임산업 등의 아이템에서 대 중국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이 분야도 현재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되는 부분일 뿐이며, 개별 기업차원이 아닌 산업의 테두리에서 일반화시키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결국 ‘한류’가 문화산업의 진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더라도 실질적인 교역 규모는 상당히 적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인 바, 문화산업이 향후 주요 수출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전망은 26%에 불과하였으며, 나머지 응답자는 전체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한류’현상이

한국제품에 대한 친밀감 등 이미지 개선이나 간접적인 광고효과에는 도움이 되지만, 직접적으로 한국제품의 판매에 도움이 된다는 기대는 16%에 불과한 것과 상통한다. 요컨대 ‘한류’현상으로 한국 문화산업의 중국진출은 다소 활발하지만, 전체 대중교역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바,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근거한다.

첫째, 문화산업 자체가 수요의 변화에 매우 민감할 뿐만 아니라, ‘한류’를 이용하려면 한국의 생산자가 한·중 양국 소비자의 기호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는 난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만일 한국과 중국 소비자의 선호(유행)가 조금이라도 다른 방향으로 변한다면 한국의 생산자는 두 종류의 수요 중 한 가지에만 맞추어 생산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규모의 경제 효과를 반감시키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보아도 문화산업이 상품화되어 성공한 사례가 미국(할리우드)을 제외하고는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즉, 할리우드 산업의 경우 내수시장(미국시장)이 충분히 크고, 전세계를 대상으로 수십 년간 마케팅을 한 노하우가 있지만,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경우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문화산업의 중국진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이 충분히 보호되어야 하고, 구매력 있는 수요가 존재해야 한다. 현재 중국이 정부차원에서 지적권 보호노력을 하고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복제품과 모조품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이다. 예컨대 톱스타 김희선과 안재욱은 중국에서 자신들의 얼굴을 도용한 불법음반과 VCD가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어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나섰다. 현재 중국에는 김희선과 안재욱을 내세운 컴필레이션 음반과 이들의 영화방송활동 장면을 모은 불법 VCD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기 때문이다. 상품 외에 이를 사은품으로 증정하는 회사들도 있어 김희선과 안재욱 측은 불법 VCD의 시장 규모만 1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음반 10만장을 팔면 해적판이 30만장은 팔린다는 업계 이야기도 있다. 김희선의 VCD에는 영화 “비천무”와 그가 출연한 드라마 장면이 들어가 있고, 김희선이 모델로 섰던 국내 한 화장품 회사의 포스터는 브로마이드로 문갑해 있다. 또 안재욱의 경우 모 방송사에서 찍은 ‘한류’열풍 관련 다큐멘터리와 뮤직비디오 등 2장의 VCD가 세트로 팔리고 있고, 역시 사진과 브로마이드가 함께 동봉되어 판매되고 있다. 특히 뮤직비디오에는 난데없이 김만중과 서문탁이 중국어로 노래부르는 것을 배경으로 안재욱이 출연한 드라마 “엄마야 누나야”가 편집되어 있다. 중국에서는 김희선과 안재욱 외에도 H·O·T의 VCD도 판매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얼마전 한 방송사의 ‘한류’열풍 관련 프로그램에서 소개되기도 했다. 방송사 측은 당연히 정식계약을 맺은 상품인 줄로만 알고 화면을 내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희선과

안재욱의 소속사는 초상권과 저작권 위반에 관한 법적 소송을 준비중이다. VCD에 발행인으로는 한국인의 이름과 중국 현지에서 라디오방송사를 운영하고 있는 국내 한 회사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한다. 김희선 측은 “중국에서 불법 VCD가 판매되고 있다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정도가 심각하다. 일단 가능한 방법이라도 동원하지 않으면 더 큰 폐해가 나올 것 같아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재욱의 소속사 미르기획의 대표 역시 “그저 두고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발행인이 한국인과 한국회사로 되어 있는 만큼 우선 이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대중문화전문가 이규영은 중국권에 지금 뜨고 있는 우리 대중문화소프트가 재값을 받으려면 우리가 먼저 저작권상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셋째, 중국내 ‘한류’를 대체하는 문화 또는 WTO가입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문화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을 경우, ‘한류’의 경쟁력은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중국 신식산업부는 2005년 전세계 이동통신 단말기 이용자 10명중 3.3명(33%)이 중국제품을 사용할 전망을 갖고 IT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앞에서 인용한 평총제는 “이번 ‘컴텍스차이나’가 전세계 15개국, 200여개 업체가 참여하고 8만~9만명의 참관객중 80~90%는 중국인들로 채워질 것”이라며 “이번 전시회는 단순히 신제품 경연장이 아니라 전세계 IT관련정보를 나누고 앞으로 중국시장을 가늠해볼 수 있는 뜻깊은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한류’, ‘한류’한다고 우리나라 대중문화가 무조건 최고 대접받는다 고 착각하는 건 곤란한 바, 경쟁력이 약하다 싶으면 바로 밀려나는 현상은 지금도 보이고 있다. 대만의 한 공중파 방송국은 요즘같은 ‘한류’열풍 속에서도 앞으로 당분간 우리나라 드라마를 수입할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얼마 전 한국드라마를 수입방영했는데 시청률이 4%도 나오지 않아서 향후 투자가치를 못 느끼게 됐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또한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가 베이징의 청소년, 성인 등 500명을 대상으로 ‘한류’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했던 바, 응답자의 71%가 한국의 대중문화에 접한 경험이 있고, 한국에 대한 호감도에서는 37%가 ‘좋다’, 55%가 ‘보통’이라고 답했다. 이런 현상은 가요쪽에서 두드러지는 것 같다. 드라마에 비해 우리나라 가요는 아직까지 대만 젊은이들에게 큰 인기를 못 끄는 듯 보이는 바, 타이베이에 가면 대중음악 코너의 절반은 일본가요, 나머지 절반은 중국어 가요와 팝송이 차지하고 있고, 한국가요는 진열대 하나 정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작다는 것이다. 그나마 대부분 드라마 주제곡을 위조로 편집한 앨범들인데, 우리나라 가수 중 H.O.T의 인기는 아직까지 이어지지만, 다른 댄스가수들 이름을 기억하는 대만인은 그다지 많지 않은데, 우리나라 히트 가

요를 대만가수들이 중국어로 번안해 부르는 경우가 흔해 앞으로 ‘한류’ 전체가 제 주 넘는 꿈 꿀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마지막으로, 최근 언론에서는 한국제품의 구매력과 ‘한류’를 동일한 범주에서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명확히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 휴대폰이나 한국음식이 중국에서 인기 있는 이유는 제품과 서비스의 질이 높기 때문이지 중국인들이 한국의 대중문화에 친밀감을 갖기 때문은 아닌 바, ‘한류’현상은 제품의 홍보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안이고, 실제 판매는 제품의 질과 지금까지 축적해온 대중 비즈니스경험이 좌우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문화상품 자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한류’의 발원지로 불리는 베트남에서 최근 한국드라마가 친편일률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그 사례들을 실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일간지 ‘선봉’은 최근호에서 “한국드라마는 대부분 삼각관계와 애정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문제가 생기면 하나같이 미국유학을 가고, 부모들은 자식들의 비정상적인 애정관계를 질책하다 쓰러져 입원하며, 이때서야 자식들은 후회하고 병원을 찾는다”고 보도해 한국드라마가 내용면에서 다양성이 없음을 지적했다. 이 신문은 “또 한국드라마에서 놀라움이나 실망을 표현할 때 여자들은 눈을 크게 뜨거나 입을 벌리고, 남자들은 45도로 고개를 돌리며 눈을 감고 쓴웃음을 짓는다”고 분석했고, “드라마의 끝장면은 거의가 공항에서 이루어지며, 결과로는 주인공이 암이나 뇌종양으로 죽는다”면서 표현방법이나 상황설정 등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한국드라마와 영화를 좋아하고 지금도 하루 평균 서너편의 드라마가 방송되고 있는 베트남에서 한국드라마에 대해 최근 들어 잇따라 혹평이 나오고 있는 것은 매우 의외의 일이어서 이에 대한 분석과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비난은 그 동안 한국드라마와 영화 등에 대해 찬사만 늘어놓았던 베트남 언론이 지난해말 엽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한국영화의 수입을 자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다. 이는 한국문화의 베트남 전달에 큰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바, 그들이 한국문화를 받아들이는 자세 또한 과거의 무조건적에서 선택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베트남을 휩쓸고 있는 ‘한류’의 흐름에 이상을 예고하고 있다.

현지에서 문화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일부 한국업체들이 장삿속만을 의식해 품위있고 교육성 있는 드라마나 영화 대신 무조건 한국에서 젊은층에 인기 있는 드라마와 영화를 수입하다 보니 한국과는 상당한 시대 차이가 있는 베트남인들에게는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다(연합뉴스, 2002년 1월 21일자).

앞에 인용한 웅옌쥬익교수는 한국드라마가 베트남 시청자들에게 어필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참고로 그는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러시아문학을 전공한 문화비평가로 1980년대말 한국외국어대학에서 베트남어 교수로 2년간 일했던 경력을 지닌 채 현재는 한국과 베트남 두 나라 문학교류를 위해 애쓰고 있다.) 만취한 청년들이 패싸움을 하고 실연을 술로 달래고, 여자들 또한 술에 취해 자살을 하고, 사장이 고용인을, 교사가 학생을 구타하는 장면들은 베트남 사람들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해서, 베트남에서는 요즘 한국에서 히트하고 있는 “조폭”영화들은 절대로 먹히지 않는다는 말이다. 베트남 문화부장관이 언론을 통해 베트남의 젊은이들을 한국인 2세로 키우려는가라고 하며 ‘한류’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도, 안재욱 공연이 갑작스레 취소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일 것이다. 안재욱 베트남 공연은 무대까지 다 만들어놓은 공연계획이 당일에 무산된 바 있다. 이런 사태가 공산당 내부의 갈등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게 현지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도 사설에서 “문화시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혼란한 현상과 불량문화현상이 만연하고 있다”는 국무원 회의결과를 전하면서, 문화시장 질서를 한단계 더 정돈하고 규범화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 사설이 한국, 일본 등에서 유입되는 사치향락성문화에 대한 경고라고 지적한다. 한국식 중국댄스그룹을 ‘가짜한류’라고 폄하하고, 한국연예인의 거만한 중국 내 행동이나 여자연예인의 성형수술을 비난하는 기사들도 같은 맥락에서 읽혀진다.

넘고 해결해야 할 과제는 결국 한국 쪽에 있다. 한탕주의가 빚어내는 공연 펑크나 덩핑 경쟁이 그 한 예인데, 2001년 10월 클론·이정현·베이비복스·안재욱 등이 참여,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류열풍 스타 대출전’ 콘서트는 공연을 바로 앞두고 취소됐다. 현지 브로커의 잠적으로 빚어진 일이었다고 하지만, 중국당국은 한국축회사의 일방적인 취소였다면서, 당분간 이 같은 공연을 불허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신화’와 N.R.G, 강타 등 수많은 가수와 그들의 히트곡에 현지의 10대들이 열광하고 있다. 단 한번의 공연 펑크만으로도 싸늘하게 식어버릴 수 있다. 김건모 중국공연을 추진중인 건음기획은 “믿을 수 없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번거로워도 중국에 가서 그쪽 라인들을 상대로 직접 확인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지 관계자들은 “더 중요한 것은 품위 있는 고급 대중문화를 다양하게 개발·보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문한다. 베트남 호치민 텔레비전의 추웅신 기자는 “한국 대분문화가 고품격 고품질을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로서는 거기에 빠져들 이유가 없다”고 충고했다. 요컨대 질이 문제라는 것이다.

대중문화는 새로움과 다양함이 없으면 금세 식상해버린다. 10대, 20대 젊은층이 주도하는 팬그룹의 특정 작품이나 스타에 대한 ‘충성도’가 약한 것도 문제이지

만, 서울에서 열린 ‘한류의 원인과 전망’ 세미나에서 왕이취안 교수가 “기성세대는 오히려 한류에 거부감도 있다”고 말한 것도 새겨줄 만한 부분이다. 중국의 기성세대가 힘합바지며 원색으로 물들인 버리(그들은 이를 한발·韓髮이라고 한다), 발효시킨 만두 같이 뭉툭하고 굵높은 구두에 대한 거부감은 대단하다.

조선일보 이동혁 기자가 문화관광부의 ‘한류육성책’ 아이디어에 대해 세계 각국의 문화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는 흐름이어야 할 ‘한류’를 정부가 지어 관리하는 체형관 속에서 어떻게 체험될 수 있을까 반문하면서 그런 식의 ‘홍보’는 자칫 안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내리라고 걱정하면서 그럴 예산이 있으면 차라리 한국드라마 번역자 확보에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고 꼬집은 것도 결국 질과 관계된 제안이다. 그는 문화예술인들이 자신들에게 열광하는 현지 팬들에게 진심으로 애정과 관심을 갖고 대하고, 연예제작자들은 우리나라 대중문화 상품이 외국 대중문화와 겨워 세 값 받고 팔릴 수 있도록 수준을 높이는 ‘정공법’만이 ‘한류’의 부가가치를 장기적으로 극대화하는 방법이며, 정부는 갑작스런 한국열풍저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일으키지 않도록 뒤에서 조용히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했으면 한다고 덧붙인다. 여기에는 정부로서는 ‘한류’를 이용해서 일회성 돈벌이를 노리는 저질 공연기획사들의 범람을 규제하는 정도로 물러서 있어야 한다는 암시가 숨겨져 있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장 고광식도 우리 정부 차원의 지원이 두드러질 경우 중국 정부의 대응조치도 예상할 수 있다고 경고하지만, 앞서 언급한 ‘한류’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조사에서도 ‘한류’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마케팅이나 홍보에 참여하기보다는 양국간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고, 국내 문화산업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간접적인 지원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WTO가입과 올림픽 개최를 앞둔 중국은 한국인에게 도전이면서 기회이기도 한데, 지금 필요한 것은 객관적인 연구를 통해 중국경제와 한국경제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 그리고 최고가 제품에서부터 최저가 싸구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중국시장의 ‘스펙트럼’ 속에서 한국 산업 가운데 어느 것이 경쟁력이 있으며 어느 것을 더 키워야 할 것인지를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일이라고 재중(在中) 한국기업인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과 동아시아 각국의 문화는 서로 교류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상대국에서 지속될 수 있고 영향력을 확대하여 비즈니스를 포함한 기타 분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중화권에서 ‘한류’가 생기게 된 것은 거꾸로 보면 그만큼 중국문화가 개방적이고 외래문화에 포용력이 있다는 것인 바, 만약 ‘한류’현상을 단순히 문화적 우월성으로 해석하고 심지어 정부정책으로 문화의 일방적인 수출을 감행한다면, 양국간의 마찰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지적(한홍석 광운대 중국학과 교수)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그는 현재의 ‘한류’현상을 무슨 중국시장

개척의 쾌거라고 생각하고 일찍이 삼페인을 터뜨리기보다는 더 깊이가 있고 한국인의 정직하고 강인한 모습을 중국에 알릴 수 있는 문화상품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고, 또한 기업들은 ‘한류’의 표면현상에 과다한 기대를 걸지 말고 실속 있게 중국 비즈니스를 확대할 수 있는 내공을 쌓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인다.

길게 이야기할 게재가 아니지만, 문화산업 일반은 전통문화와 예술문화라는 양대 저장고가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 비로소 효용가치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헐리우드는 “타이타닉” 한 편의 수출로 중국에서 엄청난 수익을 거두어들일 뿐만 아니라 장저민 국가주석마저 “타이타닉”이 가지고 있는 국민적 교양가치를 찬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래문화가 중국인들에게 충격을 주려면 연령층을 가리지 않고 중국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깊이를 가져야 한다는 좋은 예이다. 이때 영화 “타이타닉”이 문학작품을 기초로 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다른 말로 해서, 해방과 더불어 GI문화가 우리의 대중문화를 휩쓸었던 바, 어느 측면에서 ‘한류’가 이와 같은 양키문화의 아류적인 측면도 없지 않은데, 미국문화로 대표되는 서양문화의 진정한 가치는 그나마 이와 같은 대중문화보다는 유학 등을 통해 익힌 본격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상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1980년대 초에는 장편드라마 “오싱”을 비롯해 한동안 ‘일본열풍’이 중국인들에게 영향을 준 적이 있었다. 당시는 가전제품의 보급이 시작되는 시대여서 드라마를 통해 가전제품을 대표로 한 일본의 선진국 생활모습이 중국인들에게 큰 인상을 주고 일본 가전제품의 인지도 확대에 일정한 추진역할을 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 당시 중국인들이 깊은 감명을 받았던 것은 여전히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타난 일본국민들의 근면성과 일본이라는 선진국 사회의 실제 모습이었다.

지금까지 중국에 진출한 한국의 드라마나 음악, 댄스는 대다수 중국인들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작품보다는 주로 10대, 2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미녀·미남형 사랑 소재의 드라마나 율동적인 음악, 댄스들이다. 즉 지금의 ‘한류’가 중국의 주요 소비자층인 30, 40대나 50대에 주는 영향이 크게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장기 대책에서 차지하는 문화적 의의가 결코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된다.

한국측으로서는 지금 중국에서 1980년대의 일본 유명탤런트를 보고 일본 비즈니스를 생각하는 사람이 없듯이, 안재욱에게 열광하는 청소년들이 30대로 성장한 후 계속 한국문화에 집착한다는 보장이 없고, 심지어 노랑머리에 헐렁한 바지를 대표로 하는 한국 젊은 탤런트들과 그들에 열광하는 중국 대도시 청소년들의 모습은 심각한 빈부격차를 안고 있는 중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는 고언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

2001년 10월초 타이베이 한국대표부 주최로 큰 쇼핑센터 한 층을 털어 한국문

물론 행사가 열렸는데, 어느 한국 외교관은 “우리가 한류, 한류하고 공격적으로 나서면 현지인들에게 역효과 나기 때문에 한국연예인들에게도 한류라는 말 입밖에 내지 말라고 당부했다”면서, “이번 행사의 가장 큰 성과는 행사장을 찾은 대만사람들이 김치를 많이 먹어보고 사가지고 간 것”이라고 했다한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만하다.

물론 중국에서 ‘한류’현상은 일정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한류’가 문화산업의 대중진출 측면에서도 일정한 가치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한류’현상과 이에 따른 문화산업의 수출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대중교역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이득일 뿐 일부에서 기대하는 바와 같이 대중교역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거나, 새로운 부를 창출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 견해가 있다. 따라서 ‘한류’현상이 주는 경제적 효과는 직접적인 이득보다는 이미지개선 등 간접적인 광고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 특수성’을 감안할 때 ‘한류’를 이용한 지나친 마케팅활동은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부 산업에서는 개별 기업차원에서 ‘한류’현상을 활용하는 마케팅전략을 수립할 수도 있지만, 대다수 기업은 지금까지 축적해온 대중 비즈니스 전략을 계속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바, 즉 WTO가입 이후 더욱 경쟁이 치열해질 중국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일회성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국내 각 지역에 대한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마케팅전략을 수립하는 것이고, 중국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문화적 접근이다. ‘한류’현상은 기업과 정부가 이와 같은 정공법적인 대중 진출전략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얻게 되는 부수적인 이득이란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인 바, 인력배양은 이를 뒷받침할 가장 시급한 과제에 속한다. 이점에서 한국어과가 개설되어 있는 중국대학들조차 정원을 채우기에 곤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우려할 만하다. 여기에는 중국당국의 보이지 않는 우려가 작용하고 있는 듯한데, 조수성(계명대 교수, 중국학)은 이에 대해 언행분리, 즉 “어떤 일은 말로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며, 어떤 일은 행동만 하고 말을 하지 않는다”는 전략을 대중국교섭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본다면, 좀더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대안이 있어야함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예컨대 중국 유학생 유치정책을 좀더 과감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는 바, 국내 중국 유학생수도 1998년의 799명에서 1999년 1182명, 2000년 1601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국가차원의 효과적인 유학생 유치전략 부재로 이웃 일본에 비해 턱없이 빈약한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일본 내 전체 유학생 5만5,755명 가운데 중국 유학생 숫자가 절반 가까운 무려 2만5,907명에 이른다. 이는 국내 중국 유학생수의 16배에 달한다.

IV.

이상에서 우리는 이른바 “한류”와 관계된 전반적인 문제를 점검해 보았다. “한류”가 특히 중국을 비롯하여 대만, 홍콩, 베트남, 싱가포르 심지어 몽고 등지에서 두드러진다는 상황에 입각하여 이 지역을 중점적으로 살펴 본 셈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그렇게 일반화하기에 다소간 문제가 있어 보인다. 물론 일본의 경우에도 비슷한 조짐이 엿보이고 있다. 원빈과 일본의 인기탤런트 후카다 교코가 캐스팅된 “프렌즈”와 최민수와 인기보컬그룹 도키오의 멤버 나가세 토모야가 공연한 “서울”이라는 영화가 화제를 불러모으고 있다. 영화 “공공의 적”의 두 주인공 설경구·이성재의 인터넷 팬클럽(페퍼민트 캔디와 초록사이다) 회원들이 한국에까지 원정 오기도 했는데, 영화 “박하사탕”, “미술관 옆 동물원”, “주유소습격사건” 등의 일본개봉이 그 시발점이다.

같은 맥락에서 생활문화의 영역에 속하는 소주의 경우, 진로는 오사카, 후쿠오카, 센다이 등에 지점을 개설하는 등 직판체제를 강화해 일본에서만 6,800만달러 어치를 판매할 예정이다. 보해양조는 지난 해 일본 아사히 맥주와 공동개발한 호카이 소주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올해에는 작년대비 100% 늘어난 1000만 달러를 수출 목표로 세웠으며, 수출선도 인도네시아, 대만, 중국 등지로 넓혀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일본의 대중문화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공식적인 개방이 저지되어 왔던 만큼 여타 국가 등과는 다소간 다르다. 이를 조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리라 본다.

한국정부는 1998년 10월 20일, 1999년 9월 10일에 이어 2000년 6월 27일 제 3차로 일본대중문화개방 조치를 단행했다. 이로써 음반의 경우 일본어 가창 음반을 제외한 나머지 음반(연주음반, 한국어 번안음반, 영어 등 제 3외국어 가창음반 등)의 국내 수입이 가능해졌으며, 게임의 경우 지금까지 한국어 버전 일본 게임물은 수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게임기용 비디오게임물(※과거 가정용 비디오 게임물로 통칭되었으나, 비디오 게임기가 네트워크 기능을 지원하게 되어 향후 PC방과 같은 업소에서도 사용이 예상됨)을 제외한 나머지 게임물(PC게임물, 온라인 게임물, 업소용 게임물 등)은 일본 원판의 수입이 가능해졌다. 방송의 경우는 앞으로 매체 구분없이 스포츠, 다큐멘터리, 보도 프로그램의 방송이 가능하며, 케이블 TV 및 위성방송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영화(국제영화제 수상작 및 전체 관람가 영화 중 국내 개봉작)방영이 가능해졌다.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1998년 17만 불에 불과했던 한국 영화의 일본수출액이 1999년에는 187만 불로, 그리고 2000년에는 527만 불 정도로 수직상승하고 있다. 또한 한국 영화에 대한 일본 시장의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10만 불 이상의 수출액

을 보이고 있는 영화가 1998년에는 한 편도 없었지만 1999년에는 “쉬리”를 포함하여 4편이, 그리고 2000년에는 “공동경비구역JSA”를 포함하여 10편이 일본에 수출되었다. (표 2 참조)

<표 2> 개방 이후 한국 영화의 대일본 수출현황

	1998	1999	2000
수출편수	13	11	20
수출액	\$170,000	\$1,875,711	\$5,279,395
편당 수출 가격	\$13,076	\$170,519	\$263,970
10만불 이상 수출편수	0	4	10

<자료 : 영화진흥위원회>

문화관광부는 제3차 개방조치와 관련, 일본의 각종 공연물이나 영상물 등이 국내에 유입될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다른 외국물과 마찬가지로 공연법, 영화진흥법,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상 공연추천, 수입추천, 등급분류 등의 절차는 거쳐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작품은 여과될 수 있을 것으로 밝혔다. 또한 문화관광부는 이러한 개방 확대 조치와 관련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우리 문화산업 및 대중문화예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문화산업지원센터의 조성,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조성(2003년까지 5000억원 조성 목표), 유통현대화 등 문화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등을 골자로 문화산업발전5개년계획('99~2003)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그간의 개방에 대한 한일업계의 의견분식도 반영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영화, 비디오, 공연, 음반 등 각 부문별로 규모 면에서 대표성이 있는 회사나 일본 대중문화개방에 관여한(일본영화 수입 등) 실적이 있는 회사 위주로 10개사 내외가 선정되어 관계자 면접 및 설문조사를, 일본의 경우에는 영화, 비디오, 공연, 음반과 관련된 전문업체 4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먼저 한국 업계 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일본 대중문화 개방속도는 전반적으로 “다소 늦은 편”으로 인식.
- 일본 대중문화가 국내에서 흥행할 가능성에 대해서 7~10% 내외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

-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는 장르로는 영상 분야의 경우 애니메이션, 공연 분야의 경우 발라드와 록, 음반 분야의 경우 댄스를 지적.
- 일본대중문화에 대한 주요 수용자계층은 10대와 20대일 것으로 추정.
- 한국대중문화가 일본에서 흥행할 가능성은 영화로 예측.
- 한국 대중문화의 일본내 주된 수용자 층에 대해서는 주로 학생층, 연령대별로는 20대로 추정.
- 일본대중문화 개방에 따른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수출지원기구 마련, 배급망 구축, 홍보 등을 지적.

다른 한편, 일본 업계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한국의 일본 대중문화 개방속도는 ‘아주 늦은 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
- 일본대중문화의 한국 흥행가능성에 대해서는 영화의 경우, 7~10%내외로 보는 경우가 많음.
- 일본대중문화의 한국내 수용자층에 대해서는 10대와 20대일 것으로 추정.
- 한국대중문화의 일본내 흥행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본업계에서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
- 일본 업계가 관심을 가지는 장르로는 영상물의 경우 액션, 공연과 음반의 경우 댄스로 나타남.
- 한국상품의 일본 진출활성화를 위해서는 영화의 경우 ‘한국산 영화에 대한 붐 조성’, ‘한일합작 영화제작’을 들고 있으며, 비디오에 대해서는 ‘일본내 한국산 비디오 유통망 구축’, ‘한국산 비디오 콘텐츠의 내용 및 장르의 특화’, ‘한국산 비디오 콘텐츠에 대한 붐 조성’ 등을 들고 있음.
- 한국대중문화의 일본내 수용층은 영화와 비디오의 경우 20대와 30대를, 공연과 음반의 경우 10대와 20대를 들고 있음.
- 일본대중문화의 한국 진출시 예로사항에 대해서는 영상부문의 경우, ‘스크린쿼터제’, ‘수입업자의 계약 불성실이행’, ‘배급업자에 대한 정보 부족’을 들고 있으며, 비디오의 경우 ‘정보부족’, ‘불법 복제물 유통’을 지적.

이와 아울러 후속 개방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를 예측하고 있는데, 개방 시나리오의 구분과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 예측, 그리고 개방 시나리오에 따른 부분별 영향 예측에 도표화한다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표 3> 개방 시나리오의 구분

시나리오	개방부분	비개방부분
전면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니메이션을 포함한 모든 영화와 비디오 · 모든 방송 프로그램 · 음반 · 공연 좌석수 제한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급보류 대상물
대폭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니메이션을 포함한 모든 영화와 비디오 · 모든 방송 프로그램 · 음반 · 공연 좌석수 제한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급보류 대상물 · 방송 프로그램
소폭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니메이션을 포함한 모든 영화와 비디오 · 공연 좌석수 제한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급보류 대상물 · 방송 프로그램 · 애니메이션 · 음반

<표 4>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 예측

시나리오	영향	영화부분	비디오부분	음반부분
전면개방	시장확대효과	2~3%	5~6%	5~8%
	시장잠식효과	2%	5%	6%
	일본상품점유율	8~10%	15%	10%
대폭개방	시장확대효과	2~3%	3~5%	3~4%
	시장잠식효과	2%	4%	3%
	일본상품점유율	8~10%	13~15%	5~8%
소폭개방	시장확대효과	1~2%	1~2%	-
	시장잠식효과	1~1.5%	1~1.5%	
	일본상품점유율	5~7%	7~10%	

<표 5> 개방 시나리오의 부문별 영향 예측

(단위 : 억원)

시나리오	영향	영화부분	비디오부분	음반부분	계
전면개방	국내산업의 수익감소분	41~50	175~184	51~122	267~356
대폭개방	국내산업의 수익감소분	41~50	136~155	21~46	198~251
소폭개방	국내산업의 수익감소분	33~42	47~58	-	80~100

이와 같은 예측에 입각하여 일본대분문화개방과 한국화 상품의 일본진출을 전망 했던 바,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개방 시나리오에 따라 차이가 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한국 문화산업 영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우려할 만큼 큰 것은 아니라고 추정.
- 따라서 부문별로 적게는 한국시장의 6배에서 10배 이상이 되는 일본 시장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이라는 간접적이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정책으로 활용 가능.
- 세계 문화산업 시장에서의 입지 강화를 위해서 일본시장에서의 교두보 확보가 절실한 만큼 개방 정책을 이용한 대일 마케팅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
- 부문별로 살펴보면,
 - 영화의 경우 흥행수입 기준으로 1999년 일본시장의 규모는 1,828억엔인데 이에 한국 영화의 일본시장 점유율이 0.3% 정도만 되면 개방에 따른 우리영화의 수익 감소분 최대치인 50억원을 보상하고도 남게 됨.
 - 비디오의 경우 제작사 매출액 기준으로 1999년 일본시장의 규모는 2,700억엔으로 한국 비디오의 일본시장 점유율이 0.7% 정도가 되면 개방의 부정적 효과가 보상하고도 남게 됨.
 - 음반의 경우 1999년 일본 시장의 규모가 6,200억엔인 것으로 추정되어 한국 음반의 일본시장 점유율 0.2%가 개방의 부정적 효과를 보상할 수 있는 손익 분기점이라 추정.
- 일본대중문화 개방에 따른 한국산업에의 부정적인 효과에 집착하기보다는 대일 수출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개방은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공식예방과 교과서 파동으로 인해 중단 상태에 놓여있다. 그러나 “한일국민교류 해” 라고 명명된 2002년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다시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월드컵 대회의 공동 개최라는 국제적인 이벤트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양국은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그러한 협력의 틀 위에서 대중문화의 교류문제가 이행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000년의 제 3차 개방 이후 다시 개방이 재개되는 경우, 그 폭은 주로 애니메이션과 음반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영화와 비디오 부분은 이미 제 3차 개방으로 거의 대부분 개방이 되어 개방 폭의 확대가 큰 의미를 갖지 못하며, 방송부문의 개방은 일본 드라마 등 오락 프로그램까지 개방하는 데 큰 부담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드라마 등 오락용 방송 프로그램과 가정용 비디오 게임물을 포함한 완전한 개방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크다.

V.

한국 문화산업의 장기비전은 21세기 문화대국, 지식 경제강국의 구현으로 요약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문화산업의 Global major중 하나로 성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장기적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위상을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에서 문화콘텐츠의 제작 및 배급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략의 추구도 필요하다. 사실 한국 문화산업의 비전 달성은 전 세계의 문화산업이 합종연횡을 급격하게 이루는 현 상황에서 한국의 독자적인 역량으로서는 불가능하다. 한국시장의 협소함과 이에 따라 피할 수 없는 규모의 불경제(diseconomies of scale)가 존재하며, 결국 한국의 경쟁력을 독자적으로 세계수준까지 상승시키는 것은 오랜 시간을 요한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이라는 시장을 하나의 시장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반이 제공된다면, 이러한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될 여지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들 국가들과의 협력적 발전을 추구하는 전략이 앞으로의 중요한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규모라는 측면에서 이들 세 나라의 문화산업 시장 규모는 현재 독자적으로는 세계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차지할 수 있는 규모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그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러나 한·중·일 3국의 시장이 협력적인 관계를 통하여 문화상품 제작주체들에게 하나의 시장으로 인식된다면, 1999년 현재 미국과 비교할 때 약 33% 수준의 시장이, 그리고 2050년에는 미국과 비교할 때 거의 동등한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시장이 형성되어 시장 규모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상당히 설득적이다.

<표 6> 각국의 문화산업 소비지출 규모 전망(억 불)

	미국	일본	한국	중국
1999	4,021	1,136	112	80
2000	4,147	1,169	117	99
2005	4,548	1,228	149	189
2010	4,979	1,291	187	394
2015	5,459	1,346	232	669
2020	5,958	1,381	287	1,081
2025	6,512	1,416	344	1,591
2030	7,108	1,457	410	2,339
2035	7,768	1,473	487	3,180
2040	8,455	1,493	573	4,312
2045	9,192	1,512	653	5,763
2050	9,982	1,528	740	7,690

<자료 : 김휴종 「북경 올림픽의 한국 문화산업에 대한 효과 분석」, 문화관광부 2001.>

한·중·일 각국의 문화산업 소비자들은 전 세계 소비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미 글로벌화된 소비성향에 익숙해져 있는데,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중·일 각국의 문화산업은 콘텐츠의 국제적 인지도라는 측면에서 일본의 일부 상품을 제외하고는 소비자들의 집중적 소비 대안으로서의 매력을 전혀 창출하고 있지 못하다. 결국 한·중·일 3국의 문화산업은 이러한 현실을 탈피하고 국제적으로 인지될 수 있는 고유한 콘텐츠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 협력해야 본격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는 한·중·일 각국의 문화산업이 글로벌 메이저들의 세계 문화산업 시장 독점화 전략을 독립적으로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사실과 맞닿아 있다. 즉 글로벌 메이저들은 아시아시장에서 중심 축이 형성되기 이전에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각도의 전략을 이미 실행 중인 바, 한·중·일 3국은 자국 문화산업의 보호라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세계 문화산업 시장에서의 진출과 이에 의한 글로벌 메이저의 독점화 저지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한국, 중국, 일본의 문화산업 협력은 하나의 가능한 대안이 아닌 생존 전략이다. 이들 세 나라의 문화산업은 다 같이 협력하여 세계시장에서 입지를 구축할 것인가, 아니면 독자적으로 힘겨운 싸움을 하다가 생존마저 위협받을 것인가 하는 기로에 서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이 점에서 한일양국이 IT자격수준 상호인증에 합의한 것은 미래를 위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IT자격수준의 상호인증이라 함은 일본의 정보처리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정보처리기술자 시험의 자격수준과 한국의 국가기술자격법에 근거한 국가기술자격 정보처리분야의 자격수준이 상호동등하다고 한·일의 시험실시기관이 서로 인정하는 것이다. 2001년 1월 21일 서울에서 일본의 시험실시기관인 중앙정보교육연구소(CAIT) 및 정보처리기술자시험센터(JITEC)의 도미나가 다카오(富永 孝雄)소장과 한국의 시험실시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HRDKorea)의 구천서 이사장 사이에 상호인증에 관한 각서의 서명식이 열렸던 바, 이번 상호인증에 관한 논의는 2000년 9월 김대중 대통령이 방일시에 양국 정상에 합의한 일한 IT협력 이니셔티브의 내용 가운데 하나로 IT기술자 시험제도의 연계에 의한 IT분야의 인재협력의 촉진이 포함된 것에서 시작되었다. 한일의 시험기관을 비롯한 한일 관계자의 노력에 따라 이번에 한일 시험기관 사이에 각서가 조인되기에 이르렀으며, 한일 양국이 앞으로 경제발전의 중요한 열쇠가 되는 IT분야에서 양국 정상의 합의 가운데 한가지가 구체화되었다. 이번 상호인증에 따라 IT기술자의 기능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의 지표가 한일 사이에 공통화되어 양국간 IT산업의 교류·연계가 한층 심화되고, 상호인증된 시험의 합격자에 대해서는 취업비자의 취득요건이 완화될 예정이라 자격을 가진 한국기술자들이

일본에서 활약할 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영국에서는 창작산업이라는 용어를 쓸 정도로 문화산업은 개인적 창의성과 문화적 깊이를 요구하는 바, 앞으로 기술정보사회의 핵심인 고급인력양성에서 문화적 접근이 지니는 의의가 좀더 널리 그리고 신중하게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한다.

5. 韓日 共同提案



井野 正義 (Ino Masayoshi)
(社)日韓經濟協會 常務理事

일한경제협회 사무국장 이노(井野)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뜻깊은 자리에서 한일양국간의 협력관계를 추진하는 세 가지 안전에 대해 제안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韓日・日韓中堅經濟人交流促進團 派遣」

먼저 중견경제인교류촉진단의 한국으로부터의 파견에 대해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 중견경제인교류촉진단의 파견은 1989년 제1회 미션을 파견한 이래, 일본측에서 4회, 한국측에서 8회 상호 파견하였으며, 세미나 및 간담회의 개최, 그리고 학자・TOP경영인 초청강연회 등을 통해 양국의 협력방책에 대한 진솔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져, 양국경제인의 상호이해와 교류증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중견경제인교류는 한일관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차세대를 젊어질 젊은 경영인간의 교류강화라고 하는 사업으로써 중요한 것이며, 한일관계를 더욱 돈독한 관계로 이어 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국측에서 일본으로 파견을 예정하고 있사오니, 한국측에서 다수의 중견경제인이 참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青少年交流 韓日大學生 相互訪問」

다음으로 청소년교류 한일대학생 상호방문에 대해서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 청소년교류사업은 한일 국교정상화 20주년 사업으로서 1985년에 시작된 이후 작년까지 한국에서 모두 719명, 일본에서는 1988년 이후 모두 388명, 양국을

합쳐 1,107명의 대학생이 상호 방문했습니다.

이 사업은 한일 양국의 상호이해를 심화시키고 우호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양국의 미래를 짊어질 대학생들에게 서로의 나라를 방문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며, 감수성이 풍부한 젊은 시절에 서로의 나라를 방문함으로써 얻은 경험이 향후 양국관계의 여러 가지 측면에 반드시 좋은 영향을 가져 올 것이라는 생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학생교류에 참가한 양국 학생들의 감상문을 읽어보면, 같은 세대의 학생들간의 교류에 의해 생기는 상호계발과 우정, 그리고 홈스테이에 의한 생활, 문화에 대한 이해촉진 등,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과 커뮤니케이션이 보다 깊은 교류를 촉진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달 서울에서 개최된 고이즈미(小泉) 총리대신과 金大中 대통령과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금년은 「2002년 한일국민교류의 해」로써 양국민의 교류를 가일층 촉진하는 것을 인식하는 등, 양국정부는 문화·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국민의 교류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참가하는 학생들에게 귀중한 연수여행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다시 한번 철저히 인식시키고, 사업내용 또한 더욱 충실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양국 경제계 및 양국 회원사 여러분의 지원과 협조를 얻어, 금년도에도 청소년교류 한일대학생 상호방문사업을 여류방학 기간 중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韓國訪日輸出促進團・産業技術交流促進mission 誘致」

마지막으로 한일 양국의 경제관계에서 계속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인 무역·산업기술협력에 관한 한국방일수출촉진단·산업기술교류촉진미션의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제안입니다.

먼저 방일수출촉진단에 대해서는 1985년부터 「한국방일수출촉진단」을 지금까지 중견중소기업 총 2,421개사 3,416명의 수용에 협력해 왔으며, 그 결과 총 27,425건의 수출상담 및 일본 현지상공인과의 교류활동을 통해 수출확대는 물론 상호협력관계를 가일층 심화시켜 왔습니다. 올해도 2회에 걸쳐 일본을 방문할 계획으로 있는 바, 제 1차 촉진단은 5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삿포로(札幌)와 도쿄(東京)를, 제 2차 촉진단은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오사카(大阪)와 나가사키(長崎)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또한 본 사업은 지금까지의 정위에 입각하여, 작년부터 일본측은 정식으로 일본무역진흥회의 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양국 중소기업간의 교류촉진 및 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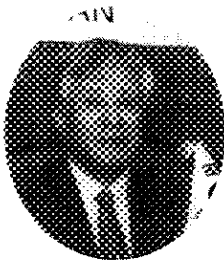
사업의 일환인 「산업기술교류촉진미션」 사업은 1993년부터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에서 수용해 오고 있습니다만, 1999년부터는 양국재단의 공동사업이 되어 내용이 더욱 확대, 충실해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국에서 2회 파견할 예정으로 있으며, 1차 미션은 오는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히로시마(廣島)와 오카야마(岡山)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른 목적을 가진 두 축진단이 올해도 커다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상 세 건을 한일 공동제안으로서 제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 分科會 코디네이터 報告

(1) 第 1 分科會 報告



木村 伸一 (Kimura Shinichi)

日本側 코디네이터

제1분과회의 결과를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분과회에서는 「중국경제의 신장에 대한 한일기업(산업계)의 대응」에 관하여 일본측으로부터 渡里 杉一郎(와파리 스기이치로) (주)도시바 상담역으로부터 「한일중 3국의 경제관계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측으로부터 현명관 삼성물산(주) 회장으로부터 「중국경제의 신장과 한일 산업계의 협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시사적인 훌륭한 백그라운드 페이지의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두 분의 발표에 대해 플로어로부터 매우 적극적인 여러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번 제34회 한일경제인회의의 커다란 주제인 “중국경제의 대두 하에서 한일경제의 가일층 긴밀화를 생각한다”는 주제 하에 양국 참가자들은 가일층 인식을 심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회의뿐 아니라 다시 한번 인적교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재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와파리 상담역의 발표를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국은 WTO 가입을 계기로 하여, 그리고 2008년의 베이징 올림픽 개최를 통하여 경제면에서 커다란 도약을 이룩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중국경제의 동향은 3국간의 경제동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개국간의 무역구조는 93년 이후 한일간에는 한국의 수입초과, 한중간에는 중국의 수입초과, 중일간에는

일본의 수입초과라고 하는 순환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분업관계도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인식이 제기되었습니다. 과거에 문제가 되었던 기술이전에 따른 부메랑효과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부메랑을 던진 것은 일본 사람들 자신이다 라고 명언하였습니다. 되돌아오는 부메랑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가 원위치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의 관계도 기본적으로는 일중관계와 비슷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중국에 대하여 논할 경우에 중요한 하나의 시사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본기업의 대중 진출의 실례가 소개되었습니다. 일본의 산업공동화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식, IT, 네트워크 3가지가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개국간의 공통적인 문제로서는 환경문제, 지적재산권문제, 에너지문제, 정보화, 고령화에 대한 대응을 꼽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관계 긴밀화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인적교류 확대에 관하여 가일층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서 관광산업의 진흥을 세 나라 공통의 테마로 하여 힘쓰면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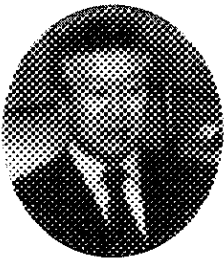
한편, 한국측의 현명관 회장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중국경제의 신장에 어떤 현황, 원동력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고, NAFTA, EU와 같은 세계적인 지역주의의 확산과 중국의 WTO 가입 등등의 환경변화로 말미암아 협력의 분위기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개국간의 경제협력은 그러나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 앞으로는 정부와 기업과 국민 모두가 공감대를 가지고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거국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현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과거의 역사가 옹어리로 남아있는 그런 복잡한 감정도 있어서 쉽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오랫동안의 전쟁을 되풀이했던 유럽이 이제 EU로 하나로 뭉쳤다, 이처럼 한일중 세 나라도 동북아권으로써 하나로 뭉치는 것이 결코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전 일본측의 한 사람으로서 이를 아주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또 한일간의 FTA에 대해서도 장점과 단점을 각기 분석하셨습니다. 한일 FTA의 방향성으로서 특별히 현회장님께서 지적하신 점, 그것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양국 모두에게 공평하고 효율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균형 잡힌 것이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 백그라운드 페이퍼의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플로어로부터 개진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플로어로부터는 두 분 발표에 대해서 도합 열네 분이 각각 다른 시각에서 의견을 발표하셨습니다. 특히 산업협력분야에 가일층의 긴밀화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일본의 대한 진출기업, 혹은 한국의 중국 진출기업으로부터 매우 구체적인 제안과 실천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또 일본기업과 한국기업의 중국 공동 진출에 대해서 서로의 우위성을 살려서 마켓을 공유한다 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또 중국봄이긴 하지만 그러나 중국이 이대로 앞으로 계속 나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신랄한 시각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한일간의 FTA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더욱 더 빨리 이것을 전척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고, 산업계의 충분한 사전협의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 외에 사람과 사람의 인적교류,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서 일한중 세 나라가 Win Win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회의 전체의 장기적인 방향에 관해서는 한일관계를 완전히 잘 정착시킨 다음에 중국을 포함시켜서 한일중 세 나라간의 경제회의를 검토할만한 시기가 되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동북아에 있어서 북한의 경제적 위상에 대한 일본측의 시각은 어떠한가 라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이렇나하게 코멘트할 만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측의 정보제공을 통해서 일본측도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 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발언을 하셨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발언을 미처 못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커다란 성과를 거둔 알찬 논의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플로어로부터 나온 의견을 정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측 코디네이터께 회의 진행에 협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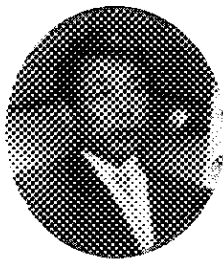
李 洙 喆
韓國側 코디네이터

조금 전에 키무라 코디네이터께서 말씀하신 것과 대동소이합니다만, 오늘 두 분의 발표에서 공동으로 지적된 바와 같이 한일중의 경제규모가 세계경제 전체의 16%나 되고 NAFTA의 57%, EU의 75%에 육박하면서도 역내교역 비중이 NAFTA의 47%, EU의 60%에 비해서 20%에 불과하다는 냉정한 현실 지적이 있었으며, 또한 3국간에는 극심한 무역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현실도 지적되었습니다. 아시아의 금융위기 이후에 3국간의 협력이 더욱 절실히 요청되고 있고, 또한 세계의 거대한 경제블록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한일간의 FTA 체결을 위한 준비 등 동북아 국가간의 협력은 미룰 수 없는 현실극복의 과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양국의 대표 분께서 아주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대안을 각 분야별로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에너지 환경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동북아시아 에너지 환경협약의 체결로부터 정보통신분야의 e-Trade 시스템 구축, 정보통신 IT산업분야의 공동 표준화 설정, 한중일 공동의 유무선 국제통신망의 구축, 정보통신분야의 인적교류, 무역사이트의 공동구축, 자동차 및 기계부품의 공용화 등의 제안은 실질적으로 경영 일선에서 경험하지 않고서는 거론될 수 없는 훌륭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제시된 제안들은 충분히 검토되고 양국정부와 기업, 나아가서는 국민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일본의 기술과 자본, 한국의 경험과 생산기술, 중국의 자원과 인력이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할 경우 엄청난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한일 양국의 경제인 및 유관기관 여러분께서 앞장서서 노력하고 독려해서 한일중 3국이 규모에 걸맞는 성장과 번영을 향유하도록 해야 되겠으며, 끝으로 비록 한일관계에 있어서 간단하지는 않습니다만, 더 많은 전쟁과 다툼으로 집철된 유럽의 국가들이 EU라는 간판 아래 경제적으로 통일되었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한일 양국의 협력은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하면서 제1분과회의 코멘트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第 2 分科會 報告



麻生 泰 (Aso Yutaka)

日本側 코디네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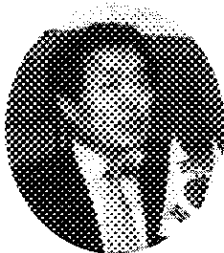
제2분과회의 코디네이터를 맡은 아소라고 합니다. 두 분으로부터 백그라운드 페이지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본 측으로부터는 「한일 FTA를 향한 일본 경제계의 대응」이라는 테마였습니다. 경제단체연합회 일한산업협력검토회 좌장을 맡고 계시는 大貫(오오누끼)씨로부터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오누끼 좌장님께서 실제적인 비즈니스의 입장에서 한일 산업협력과 한일 FTA의 바람직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안을 포함해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만, 하나는 한일 FTA 체결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경제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과제 하나가 되고 있고 경단련에서도 업종별로 이러한 산업협력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데, 한일 FTA는 관세철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장벽을 개선할 수

있는 포괄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한일 FTA의 체결은 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경제, 나아가서는 세계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한국측의 현안 사항에 배려하면서 조속히 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한일 FTA는 관세철폐나 노동문제에 대한 대응, 무역관련 절차의 간소화, 기준인증의 통일, 문제발생시 지원제도의 정비 등등이 남겨질 필요가 있고, 농림수산물 등 일부에 있어서 민감한 분야도 있지만 중국의 동향을 겨냥하면서 한일 양국이 중요한 파트너로써 손에 손을 잡고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중핵이 되어 아시아경제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국측으로부터는 한국무역협회 객원연구원이시고 전직 OECE 대사를 역임하셨던 양수길 박사님으로부터 「한일 FTA의 쟁점과 대응전략」이라는 테마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양박사님께서서는 한일 FTA에 대한 과거의 연구에 바탕을 두고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부터 비교 고찰을 통해서 한일 FTA 추진을 향한 새로운 제안이 있었습니다. 산업정책에 있어서는 먼저 대일관계와 관련되는 한국의 산업정책상의 변화, 정부의 변화에 대해서 두 가지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는 과거 한국은 수입선다변화 정책으로 일본을 차별해왔습니다만, 이 제도 자체는 일본의 자본제를 이용해서 국제시장을 상대로 하여 무역을 하는 한국산업의 발전을 저해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일 FTA가 도입되면 일본을 다른 나라보다 우대를 한다는 점을 지적하셨고, 두 번째 지적은 이번 한국 공용기업의 민영화 반대를 하는 노조의 파업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대응은 아주 당연한 것이었고 앞으로 한국의 노동문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돌릴 것이다, 일본의 산업계에 있어서도 이 점에 주목해 달라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한편 통상정책에 있어서는 지난 번 고이즈미 총리의 방한으로 한일 FTA에 대한 산관학의 공동연구회 설치가 결정되었습시다만, 이것이 큰 계기가 되어서 다국간주의를 취해 온 양국의 통상정책이 지역주의를 병행적으로 추구한다는 그러한 멀티트랙의 추구방식으로 전략이 전환되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통상정책에 있어서는 지적은 한국 산업계에서는 한일 FTA를 언젠가는 한일 양국간의 틀을 넘어서 중국, 아세안 동파의 경제통합을 시야에 둔 동아시아 FTA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한일 FTA는 각각 글로벌한 통상정책의 하나의 공통축으로서 구상되어야 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래적으로 한일 FTA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장래적으로는 중국이나 아세안을 포함시킨 그러한 FTA 정책을 저해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한일 FTA가 하나의 유도적인 작용을 해서 전략을 비전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참으로 좋은 지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플로어에서도 제1분과회에서는 열네 분이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제2분과회에서는 숫자는 적었습니다만, 한정된 주제를 놓고 토의를 했습니다. 플로어에서 나온 의견은 한일 FTA는 중국을 생각할 때 역시 스피드와 타임스케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한국기업의 불안을 해소하고 인적인 교류, 그리고 큐슈지역과 한국의 남부지역에서 어떤 파일럿 사업적인 것도 시야에 둔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일간의 무역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양자간에서 보면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만, 한일중이라는 삼각형으로 생각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플로어로부터의 의견, 그리고 양 발표자의 코멘트 등이 나왔습니다. FTA는 당사국의 발전단계의 차이를 보고 추진시켜야 합니다만, 한일 양국은 경제적인 갭이 적고 비관세장벽의 극복을 포함한 제반문제의 해결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 그리고 그 의견에 대한 양 발표자의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느낀 것은 한일 FTA는 산업협력을 더욱 더 확대하고 가속화시키는 최선의 선택이고 양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유효한 수단입니다만, 이에 더하여 한일 FTA는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전반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의가 크고 장기적으로는 중국, 아세안 등 광범위한 시야를 가지고 장래적인 어떤 전제 하에,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한일 FTA를 조속히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WTO의 정합성과 제 3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배려하면서 시장개방과 무역투자 확대가 양국의 발전을 위해서 불가결하다는 것,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하면서 한일 FTA는 광범위한 경제제휴를 지향하는 포괄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한일 FTA의 추진은 발상의 전환을 전제로 해서 산업계가 리드하면서 양국정부에 촉구를 해 나가면서 정제에 있어서나 강한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국가의 정책 차원과 양국 국민 차원의 컨센서스를 얻으면서 추진을 시켜야 한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함께 그러한 중요성을 이번 회의를 통해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 저의 인상이었습니다.



金 都 亨
韓國側 코디네이터

조금 전에 제2분과회 일본측 코디네이터께서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고 잘 요약이 된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추가할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한일 FTA 체결을 위해서 산관학 공동검토회가 공식

화된 지금 우리 양국 업계, 단체에 주어진 임무는 총론 찬성, 각론 반대에서 총론도 각론도 모두 찬성하는 이런 단계로 빨리 이행할 수 있도록 협의 검토 채널을 가동해야 될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저희 제2분과회 분위기는 상호 양국이 그 동안 FTA를 향한 여러 가지 국내 대응을 비판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오히려 상대국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노라고 하는 적극적인 제안도 불사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두 분의 발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동안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던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현재 총론으로는 한일 FTA는 관세철폐뿐만이 아니고 광범한 경제연대를 지향하는 포괄적인 협정으로 가야한다, 그리고 조속히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 양국에서 공인된 입장인 것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는 향후 논의를 해 나가야 하겠다, 그래서 공동검토위원회를 정부 차원에서 설치 운영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즉 FTA에 따라서 한국의 대일 적자가 심화될 것이다, 그러면 양국간의 무역불균형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 두 번째는 FTA와 양국의 비관세장벽의 해소문제, 세 번째는 FTA와 농수산물을 포함한 센서티브한 아이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네 번째로는 피해를 보는 업종과 득을 보는 업종간의 이해를 조정하기 위해서 소득의 보상장치를 어떻게 내재화 하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최근에 타결되려고 하고 있는 투자협정에 따라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투자협정 이후에 양국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노력을 하느냐 하는 문제 등등은 우리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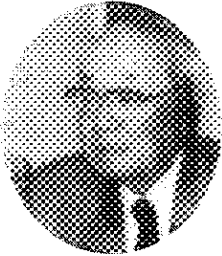
이번 토론을 거쳐서 확인된 몇 가지 사항은, 첫째는 FTA 해결의 속도와 관련하여 일본측은 조속히 체결하자, 한국이 제기하는 비관세장벽 등등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은 FTA를 진행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즉 그레쥔얼하고 프랙티컬한 어프로우치를 선호하는 반면에, 한국측에서는 뭔가 비관세장벽에 관련된 문제들에 관해서는 일본측이 다소 과시적인 효과를 보여줄 때 보다 더 협정을 조기에 타결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희망을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일본측은 특히 자본과 인력과 기술이 교류되어 가면 그것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아직도 견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인적교류와 상호방문, 신뢰구축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에는 양국의 참가자들이 이의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호인증협정과 같은 중요한 무역 원활화 조치 등등은 만일에 한일 양국만의 고유 쟁치라든지 상관습 같은 것에 의거해서 양국이 우선 체결을 할 경우에 제 3국에 주는 피해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이러한 무역 원활화 조치에 관한 한에 있어서는 클

로벌 스탠더드를 적용해서 해결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등 센서티브한 아이템의 취급에 관해서는 한일 양국의 전체적인 국민 경제적 편익, 또는 노동구조 조정이 한일 양국이 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동방안을 마련해서 공동대응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도 일본측 코디네이터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한·큐슈의 지역간 협력, 또 그것을 더욱 더 구체화시켜 가기 위해서 지역 레벨에서의 소위 프리 트레이드 지역에 대한 기대가 지난 번 후쿠오카에서 있었던 한일산업무역회의에서도 제기가 되었고 오늘도 그런 얘기가 적극적으로 제안이 되었습시다만, 이 문제에 관한 한은 국가 차원에서 통상무역정책을 수립 시행해 가야 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 무역투자 원활화를 위한 하나의 조치, 열의로써 지속적인 노력이 가일층 경주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일본측은 한일 FTA가 먼저 될 것이냐, 멕시코와의 FTA가 먼저 체결될 것이냐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역시 일본·멕시코 보다는 한일 FTA가 먼저 선결되는 가능성이 더 높지 않느냐 하는 기대 혹은 희망사항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끝으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본 정부가 현재 FTA 추진상 국가차원에서 농수산물의 무세 양허는 뉴라운드의 농수산물 협상체결 이전에는 일체 손을 댈 수 없다고 하는 입장을 지금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플로어에서 일부 의견으로써 WTO 24조의 해석에 대해서 여전히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일·싱가폴 EPA의 수준에서 한발짝 더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임을 인식해서 다소의 기대 밖의 상황이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싱가포르 농수산물 94% 내용을 보면 무세 양허한 비율이 1할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보다 더 농수산물의 교역의 비중이 높은 한일간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와 같은 입장을 견지한다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한국의 국내 농산물 개방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에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일본이 이와 같은 일·싱가폴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 입장을 그대로 견지해 간다고 한다면 상당히 이 문제는 어렵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단계적인 입장의 접근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산업간의 이해조정, 보상원칙, 실질적인 조치, IT협력 등의 산업협력의 스킴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보다 더 구체적인 논의들은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산학관 공동검토회의가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최근의 두 차례에 걸친 정력적인 공동연구회를 통해서 정부에 건의한 한일 비즈니스포럼 이상의 노력을 업계가 경주해 감으로써 공동검토회의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면서 업계 지도자 여러분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XII. 閉 會 式

1. 團長人事



藤村 正哉 (Fujimura Masaya)

日本側 代表團 團長

어제부터 계속된 이번 제34회 한일경제인회의가 지금 공동성명을 승인 받고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참가자는 모두 합해서 299명입니다. 과거에 없던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것도 여러분의 지원과 협력 덕분이라고 생각이 되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동시에 공동의장을 맡아주신 김상하 단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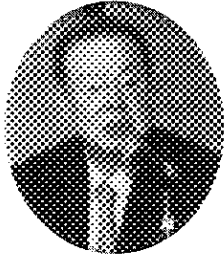
이번 회의는 두 가지 큰 테마 대두되는 중국의 진출에 대비한 한일중을 포함한 앞으로의 대응 방안, FTA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서 토의를 했습니다만, 그 밖에도 한일간의 문화교류 촉진, 인적교류 촉진 등등 대단히 광범위한 내용을 둘러싸고 진지하고 심도있는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매년 이 회의를 열 때마다 진지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낮에 단장단 오찬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에는 한국에서 개최됩니다. 나중에 김회장님으로부터도 말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 회의가 35차, 36차 거듭될 때마다 더욱 더 발전되기를 기원해마지 않습니다.

이번 회의는 이곳 히로시마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 히로시마는 지사님과 시장님으로부터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위를 거쳐서 국제평화도시를 지향해서 현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잊을 수 없는 원폭의 피해를 입은 비참한 경험을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앞으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맹세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도시 히로시마에서 34회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폐회식을 갖게 된 것은 여러분의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金 相 廈
韓國側 代表團 團長

존경하는 藤村 正哉(후지무라 마사야) 團長님을 비롯한 일본측 단원 여러분, 그리고 이 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신 藤田 雄山(후지마 유우잔) 広島県 知事님과 秋葉 忠利(아끼바 다다토시) 広島市長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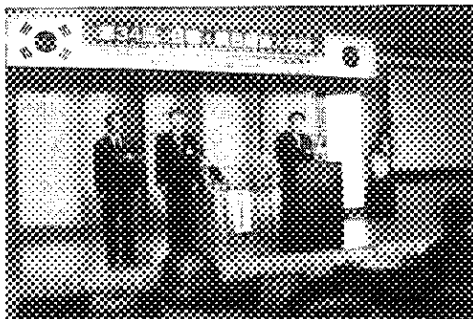
어제의 開會式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일 양국관계는 中國經濟의 부상에 따라 새로운 차원의 협력이 요구되고 있고, 나아가 東아시아지역의 발전과 공동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 가야할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록 2일간의 짧은 기간이었습시다만, 第34回 韓日經濟人會議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유익하고 건설적인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의는 이제 幕을 내리게 되었습시다만, 우리가 합의하여 채택한 共同聲明의 정신이 그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협조를 付託 드리는 바입니다.

내년에는 본 회의가 조금 전 共同聲明에도 언급되었듯이 한국에서 개최됩니다만, 地域間 交流의 活性化라는 취지에서 大邱廣域市에서 개최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大邱商工會議所 盧喜燦 會長님, 大邱廣域市 李晉勳 經濟産業局長님, 大邱컨벤션센터 白昌坤 社長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럼 세 분을 앞에 모시고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盧 喜 燦 大邱商工會議所 會長
李 晉 勳 大邱廣域市 經濟産業局長
白 昌 坤 大邱컨벤션센터 社長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大邱商工會議所 會長 盧喜燦입니다. 옆에 계신 분은 李晉勳 大邱廣域市 經濟産業局長이시고, 다음은 大邱展示컨벤션센터 白昌坤 社長입니다. 후지무라 日韓經濟協會 會長님, 金相廈 韓日經濟協會 會長님을 비롯한 양국 경제인 여러분!

저는 大邱市와 大邱經濟界를 대표하여 2003년 第35回 韓日經濟人會議 개최지로 우리 市를 결정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韓國 제 3의 도시, 大邱는 국제 평화문화도시 히로시마시와는 자매결연 관계에 있으며 히로시마시의 바톤을 이어 大邱가 내년도 韓日經濟人會議를 개최함은 대단한 인연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大邱는 세계적인 섬유산지로 패션과 첨단산업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팔공산의 자연과 역사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아름다운 고장이므로 여러분께 깊은 감명을 주리라 확신합니다.

이제부터 250만 대구시민과 대구 경제계는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을 맞을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뵈 그 날을 기대하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가름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측 난장인사 계속)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년 4월에 한국의 大邱廣域市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뵈 것을 기대하며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第34回 韓日・日韓經濟人會議
報 告 書

2002年 6月 28日 發行

編輯兼發行人 韓 元 碩
發 行 處 社團法人 韓日經濟協會
KOREA-JAPAN ECONOMIC ASSOCIATION

135-729 서울特別市 江南區 三成洞 159-1

(韓國貿易會館 1504號)

TEL : 02-551-1531, 1541 FAX : 02-551-1530, 1540